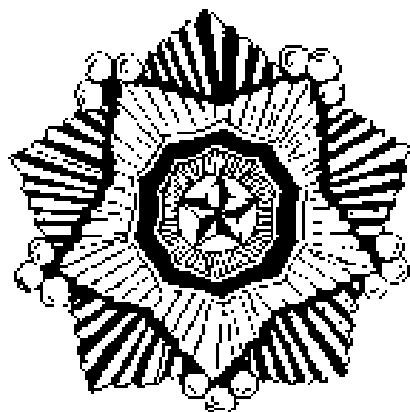




3

주체 93 (2004)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9(2004)년 제3호

(루계 제 677 호)

## ◆◆◆◆◆◆◆◆◆◆ 차 례 ◆◆◆◆◆◆◆◆◆◆

철령을 넘어 .....	3
땅우의 은하수 .....	13
위대한 령도의 손길아래 창작된 품위있는 성과작 .....	14
웃놀이를 하신 사연 .....	18
은정마을 새 풍경 .....	18
총대는 말한다 .....	19
불 .....	22
《지 원》 .....	30
병사와 고향 .....	31
선군 소설문학의 매력 .....	32
명언해설 .....	36
백일홍 .....	37
나는 산골마을 분교에서 자랐네 .....	50
대흥단사람들 .....	51
나의 모습 .....	53
분여지표 말 .....	65
어머니와 포 .....	66
두루미 .....	67
사랑의 새 전설 .....	68
탄은 무엇을 속삭이는가 .....	75
작가의 권리와 공민의 의무 .....	76
사랑과 증오에 날뛰는 시대의 맥박 .....	77
그네뛰기 .....	80

## 철령을 넘어

김 만 영

이 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더라  
아이들도 어른들도  
선군시대를 두고 이야기 할 때면  
생각깊은 그 가슴들속에  
아아히 솟아오르는 철령

물어보자 철령이여  
예나 지금이나  
지도에는 평범히 표시되어있건만  
언제부터 우리 마음에  
그리도 승엄히 솟아 위용떨치느냐

내 가슴속에  
언제나 철령의 눈보라가 날리고  
진달래가 붉게 피어있어  
너를 불안고  
생각은 끝없이 이어지나니

오, 철령 철령  
너는 위대한 선군사상 선군철학으로  
가장 큰 시련을 헤쳐 승리를 안아온  
선군혁명의 증견자  
민족운명의 메부리

하여 내 오늘  
사연많은 철령을 넘어  
최전선으로 종군의 길을 걸으며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이 세기를 밝히고 이끌어가는  
위대한 진리를 세상에 전하려나

### 1. 야전장군과 마라초담배

철령을 넘어  
굽이굽이 전선길은  
천리런가  
만리런가

즐기줄기 뻗어내린 산밭  
높고낮은 봉우리들이

머리를 치여들고 솟아있는  
전연도 최전연  
마가울 서늘러운 바람결도

못잊을 사연을 이야기하며  
발걸음을 붙잡는듯  
숲이 설레이는 소리도  
길가의 작은 시내물소리도  
여기 먼저 들렸다 가라고  
다투어 부르는듯

초소와 초소  
고지와 고지  
해를 넘어 세기를 넘어  
수만여리 전선길에 새겨진  
그 하많은 사연  
이 한가슴에 어이 다 안을수 있으랴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열번도 더 철령을 넘으신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  
최전연의 그 어디엔들  
찍혀져있지 않으랴만  
내 가슴 울렁이며 선참으로 오른 곳은  
그 이름도 자랑스러운 1211고지

미친듯이 퍼붓는 적들의 폭격과 포격으로  
11메터가 줄어 1200고지가 되었다는 곳  
바위까지 불에 타던 고지에서  
살아 물러설 땅은 한치도 없다고  
수령님께 맹세문을 쓰던  
영웅전사들의 숨결이 아직도 뜨거운 고지

내 여기서 우러르노라  
태양의 모습으로 환히 웃으시며  
병사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던 장군님  
마음속으로 경건히 우러르노라

태양절에 1211고지의 병사들이  
수령님을 더 그리워할것 같아서

다른 곳보다 여기 먼저 왔다고  
병사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신 그이

화선용사들이 생활하던  
갯도에도 들리시고  
485개의 파편이 박혀 있는 나무앞에  
깊은 사색속에 걸음멈추시고  
장군님 하시는 말씀  
-1211고지 방위자들은  
모두다 영웅들이요!

조국의 촌토를 지켜  
마지막피 한방울까지 바친  
영웅전사들의 그 숨결인가  
줄기차게 뻗어내린 통선들에서  
후더운 바람이 일어번져  
장군님의 옷자락에 어리광쳐라

수령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고 떠나간  
전사들의 그 넋을 고이 안아주는듯  
고지의 나무들을 소중히 쓰다듬으며  
우리 장군님 조용히 시를 외우시여라  
...

이 나라의 초부들이여  
부디 삼가 나무를 버이라-  
우리 선렬의 령을  
그 나무 고이 지키는지 어이 알리  
부디 삼가 길옆에 놓인 돌 차지 말라-  
우리 선렬의 해골이  
그 돌밑에 잠들었는지 어이 알리!

피흘리면서도 쓰러지면서도  
수령만세를 웨치던 그날의 병사들  
포연가신 밤하늘 멀리 평양하늘 우러러  
화선악기를 타던 병사들의 그 모습을  
뜨겁게 뜨겁게 그려보시며  
차마 고지를 내리지 못하시는 장군님  
문득 마라초담배를 찾으시여라

무슨 영문인지 몰라  
일군들은 의아해하는데  
전투를 치른 다음  
마라초를 돌려가며 피우던  
1211고지 용사들이 생각나시여  
그들의 그 위훈을 못잊으시여

마라초를 찾으시는 장군님

누가 모르랴  
그이는 담배를 끊으신분  
그이의 건강을 간절히 바라는  
인민의 소원을 안고  
그토록 좋아하던 담배를 끊으신분

허나 이 시각엔  
손수 마라초를 두툼히 말아  
참으로 오래간만에  
담배를 피우시여라

1211고지에서 마라초를 피우니  
참 별맛이라고  
지금도 화선용사들이 피우던  
구수한 마라초냄새가 풍기는것 같다고  
조용히 말씀하시거니

반세기전 이 고지의 마라초냄새가  
어이 지금도 풍기랴만  
그것은 집무실이나 방안에서는  
도저히 느낄수 없는것  
그것은 오직  
한지에 익숙되고  
준엄한 전투적생활을 이어온  
야전장군만이 느낄수 있는 야전진미

그 진미속에서  
장군님은 헤아려보시였어라  
마라초의 구수한 그 냄새에서  
고향의 흙냄새를 맡고  
피여오르는 그 연기속에  
사랑하는 부모처자의 모습을 그려보며  
애국에 불타던 방위자들의 그 마음을

아, 마라초 마라초  
총과 함께 총탄과 함께  
병사들의 주머니엔  
사랑하는 처녀와 안해들이  
수를 놓아 정성담아 기워준  
담배쌈지가 있었거니

마라초 너는  
병사들에게 있어서  
땅이였고  
고향이였고

사랑하는 부모처자였다

고장마다 향토마다  
마라초맛은 저마끔이건만  
조국을 지켜낸 승리자들에겐  
하나같은 그 맛

변절자 비겁분자들이  
수치를 걸머지고는  
결코 맛볼수 없는 마라초의 진맛  
그것은  
향토의 맛  
승리의 맛

비발치는 탄우속  
죽음의 계선을 눌러딘고  
승리자로 일어난 병사들의 그 마음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마라초의 진미를 그리도 잘 아시는 그이

마라초를 권 손으로  
가까이 바라보이는 지혜산을 가리키시며  
지혜산을 보니  
수령님생각이 더 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는 장군님

전화의 그날  
불이 튀는 지혜산에 오르시여  
바위우에 작전도를 펼치고  
1211고지전투를 친히 지휘하시던  
수령님을 생각하시며  
수령님의 한생은  
시련에 찬 전장에서의 한생이었다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산천도 목메여 설레였거니

불당골과 안말  
순감혁명사적지  
수령님의 발자취가 어린 곳이면  
그 어느 험한 곳이라도  
다 찾으시고 다 뵈아보시며  
수령님의 전승위업을 빛내가시는 장군님  
두 제국주의와의 가렬한 전쟁을  
승리로 펼쳐온 수령님의 총대위업  
총대로만 빛내갈수 있기에  
힘겨워도 어려워도  
우리 장군님

기어이 전선시찰을 단행하시여라

병사들이 있는 산밭과 산밭  
고지와 고지마다에  
오늘도 메아리쳐 울려오는  
그 뜻깊은 장군님말씀을  
내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노라

-내가 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철령을 자주 넘는지  
이제 동무들은 알게 될것ियो!

력사여  
영원히 새겨안으라  
제국주의의 포위와 압살광증으로 하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생사기로에 놓였던 그날  
혁명을 구원하실 비장한 맹세를 안고  
철령을 넘어가신 장군님의 거룩한 그 모습을

수령님 넘겨주신  
우리 공화국 우리의 사회주의는  
최전선에서만 지켜낼수 있기에  
철령을 넘어  
야전사령관이 되신  
빨찌산의 아들  
**김정일장군!**

오, 그때문에  
화선의 승리자들과 마라초가  
그리도 잘 어울렸듯이  
포성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오신  
야전장군과 마라초는  
그리도 잘 어울리는것 아니던가

비길수 없으리라  
비길수 없으리라  
위대한 승리자로  
전장을 굽어보며 피우시는  
마라초의 그 진미  
우리 장군님 아니교서야  
누가 다 알수 있으랴

마라초 마라초  
향토와 조국 사랑과 승리  
그 모든 뜻깊은 의미를 담은

1211고지의 마라초담배  
그 짙은 향기여

## 2. 사생결단

사람들이여  
내 오늘 종군길에서  
말하고싶노니  
사생결단이라는 그 말을  
너무 쉽게 하지 말자

장군님의 자옥자옥을 따라  
1211고지를 거쳐  
351고지와 어은산고지  
까칠봉으로 굽이굽이 오르며  
가슴깊이 절감했노라  
사생결단- 그 말의 참뜻을

세월이 흘러간들  
어찌 잊을수 있으랴  
아버이수령님을 잃은  
뼈저리는 상실의 아픔을 안고  
전선으로 나가시던 장군님을

그이의 가슴속에서  
용암처럼 끓던 신념의 불이어  
-최후에 웃는자가 누구인가를 보라!  
시대와 역사를 뒤떨친  
그이의 그 선언이여

이것이  
그이의 신념  
그이의 의지  
이것이 이것이  
빨찌산장군만이 하실수 있는  
사생결단!

하늘을 가르는  
번개의 번쩍임에 비기랴  
설사 하늘과 땅을  
뒤바꾸어놓는 힘이 세상에 있다 해도  
그날 **김정일**장군의 가슴속에서  
무섭게 일어번지는 불길은  
결코 잠재울수 없었거니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도 멈춰세울수도 없는  
선군의 폭풍을 안으시고

다박술초소를 거쳐  
그이는 단호히 철령을 넘으셨어라  
바람찬 최전선으로 나가셨어라

이때부터 력사여  
조국의 운명을 떠맡  
빨찌산아들의 성스러운 싸움  
백두산아들의 야전생활이 시작되었거니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백두설령을 넘나들며  
일제를 쳐부시던 김대장의 기상으로  
최전연전장을 종횡무진하며  
제국주의의 등뼈를 꺾어놓으시던  
무적의 최고사령관!

눈내리는 야밤에  
비내리는 새벽에  
철령을 넘어  
찾으신 초소  
오르신 고지는 그 얼마였던가

그이는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  
최고사령부작전대앞에서  
보고도 받고 명령도 내리며  
전 전선을 통솔하실수도 있으리

허나 그이는 다르시다  
작전지도도  
위장망을 친 전방감시소에서 보시는분  
한손에 쌍안경을 드시고  
대공에 옷자락 날리시며  
적정에 대한 보고도 받으시고  
산발이 쨍-쨍 울리게  
온 전선에 명령을 내리시는분

그러시자니 그이는  
때로 사품치는 풍랑도 헤치셔야 했다  
때로는 새들도 깃을 접지 못하는  
구름덮인 산정에도 올라야 했고  
때로는 오, 때로는  
생각만 해도 등에 땀이 흐르는  
얼음덮인 절벽길로도 가셔야 했다

사람들이여

누구든 한번은  
어은산을 찾으시라  
그 언제든 마음으로라도  
어은산 절벽길에 서보시라

그러면 그대들  
누구도 따를수 없는  
혁명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그이의 그 헌신앞에  
깊이깊이 머리를 숙이리

머리를 숙이고 생각하리  
해빛밝은 창문들  
맑게 울리는 아이들의 노래소리  
행복의 단잠드는 거리와 마을  
고르로운 인민의 숨결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미끄러지는 야전차를  
어깨로 밀고 오르시던 그 한치한치에서  
조국이 가고  
인민이 가는 길이 열리고  
쏟아져내리는 눈발을 헤치며  
한걸음한걸음 짊어가신 그 자옥에서  
이 땅에 봄이 오고 꽃이 피었나니

그 자옥앞에  
나도 걸음멈추노라  
눈내리는 2월의 그날  
351고지 얼음길에 찍으신  
거룩한 그 자옥앞에  
삼가 걸음멈추노라  
한치 또 한치

야전차를 몰아가던 운전사  
얼굴에 흐르는 땀을 씻으며  
끝내 고지중턱에 차를 세우고  
장군님께 조용히 아뢰었나니  
이제 더는 갈수 없다고

그 마음을 헤아리신 장군님  
차에서 내려  
얼음길을 걸어가시여라  
-차가 못가면  
걸어서라도 반드시 가야 하오

아, 눈덮인 얼음길을 걸어가시는

장군님의 발자욱우에  
하염없이 떨어지던  
수행원들의 후더운 눈물이어

그이 가고가시는 전선길  
그 어느 곳이면  
험하지 않은 길이 따로 있었으랴  
전선길이 천리면  
위험도 천리  
전선길이 만리면  
사생결단도 만리

한번 내짚은 걸음은  
설사 그앞에 천길나락이 있다 해도  
결코 돌아설줄 모르시는분  
한치의 예뚱도 없이  
순간의 쉬임도 없이  
수령님 헤쳐오신 빨찌산행군길을 이어  
끝바로만 끝바로만 걸어오신  
선군혁명의 길

그이의 그 담력 그 배짱을 안고  
내 오늘 까치봉에 올랐노라  
까치봉에 올라  
위장망을 친 전방감시소에  
거연히 서계시던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노라

부대지휘관들로부터  
적정을 보고받으시며  
적진을 굽어보실 때  
그이의 안광에서는  
섬광이 번쩍이었나니

그날 장군님을 뵈은 병사들  
누구나 말하더라  
장군님의 안광에서는  
정말 번개불이 뿜어나오더라고  
한번 명령하시자  
산발들이 움썹-움썹 드놀더라고  
환희에 넘쳐 이야기하더라

이는 병사들의 상상도 아니여라  
그이는 집무실에서가 아니라  
광활한 전선에서  
천하를 호령하시나니

바로 그분이  
 우리의 장군이다  
 천만대적이 달려들어도  
 끄떡하지 않으시고  
 원썬들의 숨통을 틀어쥐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그이는 자신의 걸음으로  
 전호와 참호와 초소들을 다 밟아보고  
 자신의 심장으로  
 부대들의 전투준비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병사들의 깨끗한 마음을  
 소중히 안아 꽃피워주시며  
 끝없이 전선길을 걸으시여라

한해의 첫눈도  
 한해의 첫비도  
 전선에서 맞으시고  
 눈석이시내물소리도  
 새싹이 움트는 소리도  
 전선에서 제일먼저 들으시는분

변화무쌍한 세계정치를  
 전선에서 주도하시며  
 조선혁명의 탄탄한 활로를 열고  
 줄기차게 이끌어가시는분

원썬들의 불에는  
 화산의 용암으로  
 원썬들의 미싸일에는  
 벼락같은 화력으로  
 제국주의의 아성을 통채로 날려버리는  
 이것이 우리의 선군주먹

기고만장하여 날뛰는  
 미제의 《힘》 앞에  
 지구의 여기저기서  
 말 한마디 변변히 못하고  
 비위를 맞추며 살아갈 때  
 조선의 장군만은 선군주먹을 높이 쳐드셨나니

그 주먹은  
 사생결단의 주먹  
 미국놈들과는 추호의 타협도 모르며  
 최후결산할 때까지 내리우지 않을  
 강철의 주먹

하기에 원썬들은  
 그이의 전선걸음 한자욱한자욱을  
 그 어떤 미싸일보다 더 무서워한다  
 전선에서 하시는 그 한마디한마디 말씀을  
 천만폭탄보다 더 무서워한다

그 통쾌함을 안고  
 나는 생각하노라  
 정의를 위해 진짜 용감한 사람은  
 불의를 반대해 칼을 뽑으면  
 칼집을 버린다 했더라

우리 장군님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  
 전쟁을 막아선 세기의 영웅  
 우리와 맞선 미제가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세계를 거머쥐려 날뛰기에  
 《칼집》을 버리고  
 판가리결전장에 나서시었나니

쉽게 외우지 말라  
 사생결단이란 말을  
 그것은 단순한 언어도  
 그 어떤 상장의 대명사도 아니다

그것은  
 조국과 민족을 책임진  
 위대한 혁명가만이 내릴수 있는  
 목숨과도 같은것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승리와 미래를 띠관하는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만이 지닐수 있는것

아, 전선길 굵이굵이를 걷노라니  
 그이의 그 인생관  
 그이의 그 혁명관을  
 이 가슴에 찡-찡 울려주며  
 전진의 구령처럼  
 선군의 구호처럼  
 천리산발에 메아리친다

-돌진하라!  
 사생결단 돌진하라!

**3. 류다른 시찰**  
 오, 철령, 철령



너를 넘어  
내 지금  
어디에 서있는것이나  
붉게붉게 피어난 진달래  
푸르러 설레는 전나무 한그루한그루도  
장군님 가슴속에 억세게 뿌리내린  
철령이여

너를 넘으면  
앞에는 첩첩  
불과 불이 마주서고  
철과 철이 맞부딪치는 최전선 최전선  
한낮에도 한밤에도 섬광이 번쩍이여  
자연조차 엄엄한 곳

허나  
다치면 터질듯 한  
엄혹한 그 기류를 밀어내며  
초소마다 고지마다  
파스하고 부드러운 공기가 흐르나니

우리 장군님 가고가시는 길  
세상이 처음 아는 길이어서  
전선길 그 어디서나  
세상이 처음 듣는 새 전설들이 태어나더라

그 전설 태어나는 곳 하얗건만  
내 마음을 이끄누나  
여기만은 들렸다 가라고  
파도가 기슭을 치며 나를 부르누나

여기는  
60년대의 그 어느날  
공화국의 령해로 기여들었던  
원썩들의 《경호함 56》호를  
바다속에 수장시킨 해안초소

세계를 뒤흔들었던  
그 격전의 메아리보다  
이 초소가 안고있는 선군시대이야기는  
내 가슴을 더 뜨겁게 울려주누나

그날 우리 장군님의 전선시찰은  
참으로 류다르시였다  
전선시찰일행중에  
치마저고리차림의  
나이지숙한 여인이 있었거니

그 여인도  
동행한 일군들도  
영문을 모르고  
장군님을 따라  
초소에 도착했어라

장군님을 마중하여  
젊은 초소장이 달려와  
씩씩하게 영접보고드릴 때  
그제야 여인은 알았거니  
그 초소장이 바로  
자기의 막내아들임을

어머니도 아들도  
장군님앞이라  
선뜻 손을 잡지 못하는것을 보시며  
어서 만나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는 장군님

사랑이 뜨거워  
어머니도 아들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데  
이 뜻깊은 상봉을 사진으로 남기자고  
어머니와 아들을 나란히 세우시고  
몸소 사진기를 들어 사진까지 찍어주실 때  
파도도 기슭을 치며 달려오고  
갈매기도 목청돋구어 노래를 불렀더라

그 누가 헤아릴수 있었으랴  
해안초소병사들의 생활을  
친히 보고받으시던 그날  
병사의 집주소를 기억해두셨다가  
오늘 새벽 평양을 떠나실 때  
병사의 어머니를 데리고오신  
장군님의 그 깊은 심중을

사랑이여라  
사랑이라도  
세상이 모르고  
인류가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 장군님의 병사사랑이여라

정녕  
장군님의 전선시찰은  
끝없는 사랑의 전설이 태어나는  
류다른 시찰

그 어느 감나무초소에 들리시여서는

나어린 처녀병사에게  
고향의 부모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그러면 내가 전해주마 약속하시고  
병사의 고향집에 손수 전해주신 이야기  
이것이 어찌 전설이 아니라

최전연병사들에게 정이 들어서  
비를 맞아도 눈을 맞아도  
자주 찾아오게 된다고  
하루라도 병사들을 못보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시는 그이

그래서 한밤중에도  
병사들을 찾아 길을 떠나시고  
병사들을 만나시면  
천리길의 피로도 다 잊으시거니

찾아가시여  
메주된장맛도 친히 보아주시고  
다시 찾아가시여  
부대의 연혁소개판도 보시며  
부대가 낳은 영웅의 사진을  
더 밝게 찍어붙이라고 하시는 그이

길을 가시다가도  
맑은 시내물을 보시면  
물이 바른 고지들이 생각나서  
걸음멈추신적은 그 얼마였던가  
날만 차지면  
어느 고지에 눈이 내리지 않았는가고  
다심하게 물으신적은 그 몇번이었던가

나는 모른다  
우리 장군님 걷고걸으신  
풀덤불에 덮인 오솔길과 초소길  
아찔한 벼랑길이  
천갈래인지 만갈래인지

허나  
최전연길을 걷고걸으며  
생각하노라  
오르고 내리며  
천갈래 만갈래로 뻗어간 그 길이  
우리 장군님의 심장에서 뻗어간  
뜨거운 혈맥이라는것을

눈이 와도 얼지 않고

비내려도 찢기지 않는  
아버이의 정이 굽이쳐흐르는 길  
밤이 와도 어둠이 덮이지 않는  
가장 밝고 따스한  
해빛이 내리는 길

그래서  
평양에서 최전연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천리로 수천리로 멀고멀건만  
최전연병사들과 평양은  
그처럼 가까운 지척이 아니었던가

자애롭고 따사로운 사랑이  
전설로 태어나는 곳이 전선길이어라  
위대하고 다심한 아버지의 그 정이  
전설로 흐르는 곳이  
최전연의 고지들과 산발들이여라

정녕 장군님의 병사사랑은  
병사들과 생사도 고락도 함께 하는  
친아버지의 혈연의 사랑  
운명의 사랑

아, **김정일**장군의 전선시찰은  
병사들을 영웅으로 키워  
혁명의 만아들로 내세워주시는  
사랑의 시찰 믿음의 시찰  
인류력사에 찾아볼수 없는  
최고사령관의 류다른 시찰  
전설적위인의 전설이 태어나는  
위대한 시찰이여라

#### 4. 인연인가, 행운인가

별이 뜨고 달이 솟는 밤이면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병사들이 부르는  
절절한 그리움의 노래  
산발타고 은은히 울려가는 최전연

장군님을 만나뵈온 병사들도  
아직 만나뵈지 못한 병사들도  
장군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장군님만 믿고사는 순결한 그 진정이  
최전연을 이루고있어라

병사들의 그 마음 그 진정을 안고  
천리방선을 바라보니  
고지마다에 산발마다에  
장군님의 영상이 빛을 뿌리여라

태양의 그 빛발을  
온몸에 받아안으며  
가슴에 젖어드는 생각은  
장군님께서 최전연 여기 그 어디  
가까이에 세실것만 같은 생각  
문득 장군님 뵈울것 같은 그 생각

나에게서 잠시도 떠난적이 없으라  
멀고먼 전선길 굽이굽이에  
장군님의 숨결소리  
장군님의 발자욱소리

그 숨결  
그 발자욱소리를 안고  
나는 왔노라  
이번 종군길의 마지막초소  
영웅이 많이 배출된 894군부대

오중흙7련대칭호를 쟁취하고  
장군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린 부대  
그래서인지 자주  
장군님 오신 꿈을 꾸다는  
병사들과 지휘관들

그들과 밤길도록  
장군님이야기를 나누며  
날이 밝는줄도 모른 이른아침  
이 무슨 인연인가  
이 무슨 행운인가  
꿈에 뵈던 장군님을  
전선길에서 정말로 뵈왔으니  
이게 늘 꾸던 꿈은 아닌가

아니여라  
꿈이 아니여라  
찬서리 내린 이른아침  
하늘땅을 환히 밝히시며  
최전연의 병사들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한시바빠 전사들을 만나실 생각에  
천리 먼길을 한밤에 내쳐 달려

우리 장군님  
아침 첫 시간에 도착하셨거니

만세!  
만세!  
산발을 흔들며  
하늘가에 울려퍼지는  
환호성 환호성

내 병사는 아니어도  
이 시각엔 병사들처럼 달려가  
만세의 환성으로  
장군님께 삼가 아침인사 드리노라

야전차에서 밤을 지새운  
그 피로는 다 잊으시고  
위훈많은 병사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오중흙7련대칭호를 수여받은것을  
뜨겁게 축하해주시는 장군님

다가올 겨울을 생각하시며  
병실의 온도며 난방조건  
겨울나이 김장준비와 솜옷두터이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헤아려보시는 장군님

어느덧 시간은 흘러  
해는 하늘중천에 떠올랐는데  
아침끼니도 드시지 못한채  
기다리는 병사들을 찾아  
그이는 다시 차에 오르시였으라

누가 모르랴  
이제 그이는 달리는 차안에서  
우리가 다 아는 그 가마치로  
끼니를 에우시리  
길가의 샘물 한공기 마시고  
그냥 전선길을 이어가시리

하여 그이를 오래오래 뵈고싶던 소원  
서운한 그 마음을 애써 진정하며  
또다시 전선에서 전선으로 떠나시는  
그이를 바라워드리나니

안녕히 가시라  
첩첩산발  
멀고 험한 전선길

마가을 찬 날씨에  
부디 안녕하시라  
부디 건강하시라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휘날리시며  
장군님 가고가시는 전선길을 따라  
신심에 넘쳐 걷는 종군길  
그이는 언제나 전선에 계시기에  
이 길에서 또다시  
그이를 가까이 만나뵙게 되리

이는  
그 무슨 우연도  
그 어떤 행운도 아닌  
야전장군과 선군길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의 필연  
하나의 법칙

최전연에 있어야  
밥맛도 나고  
잠도 잘 오고  
기분도 좋다고 하시는 그이  
폭풍치고 우뢰치는  
천리 먼 최전연에  
장군님의 집이 있다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자주의 궤도로 역사를 떠밀어가는  
세기의 사령탑  
최고사령관의 집무실이 있다

그이의 생활은  
야전생활  
그이의령도는  
야전령도

아, **김정일**장군-그이는  
한평생 최전선에서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가시는  
백두의 야전사령관  
불세출의 야전장군

그래서 그이 하시는 사색은  
번개인양 순간에 천리를 내닫고  
그래서 그이 세우시는 작전은  
우뢰인양 세계를 뒤흔들고  
그래서 그이 이끄시는 선군혁명  
원썬들의 그 어떤 책동도 짓부셔버리며

백전백승하는것 아니더냐

우리는 잊지 않으리  
조국은 영원히 잊지 않으리  
깊은 밤 이른새벽  
비발을 헤치며  
눈발을 헤치며  
철령을 넘으시던  
장군님의 그 모습을 잊지 않으리

잊지 못하리  
잊을수가 없으리  
그이의 족잡이며 췌기밥  
잠시 손발을 녹이시던 길가의 모닥불  
그 천만고생 하나하나를  
우리는 잊지 않으리

10년세월 다시 가고  
100년세월 다시 와도  
잊지 않으리  
역사는 잊지 않으리  
철령을 넘어  
내 조국을 철벽으로 다져주시고  
민족의 존엄을  
누리의 한끝까지 빛내여주신  
그 자욱자욱을 잊지 않으리

철령을 넘어  
최전연을 백두전장으로 삼으시고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신 우리 당과 공화국  
붉은기와 사회주의를 지키고  
강성대국의 창창한 래일을 펼쳐주신  
**김정일**장군의 불멸의 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나리니

이 땅에 철령이 솟아  
몇천몇만년  
허나 선군시대에  
우리 장군님 안아올리신  
철령이여 너는  
민족운명의 철령  
붉은기수호의 철령  
**김정일**승리의 철령  
그때문에 철령  
너의 이름만 들어도 원썬들은 전율한다  
그때문에 철령  
너의 기상

너의 위용을 떨치며  
조국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앞으로 앞으로 보무당당히 나아가리

아, 세기와 세기를 이어  
높이 솟아 빛나라

정의의 한복판에  
사회주의의 한복판에  
길이 솟아 빛나라  
빨찌산의 철령이여!  
**김정일**야전장군의 철령이여!

주체92(2003) 12. 31

## 땅우의 은하수

최 인 덕

하늘이라도  
밤하늘에만  
아름다운 은하수 있다더나  
별이라도 은하수만이  
그 흐름 끝없는 별이라더나

하늘의 은하수 천리면  
땅우의 은하수는 만리  
하늘의 은하수는 밤에만 흘러도  
땅우의 은하수는 낮에도 밤에도 흘러  
향기를 풍기는 은하수 천만리

그 은하수 이 땅에 흐르게 하시려  
푸른 잎새마저 더위먹고  
노그라지는 더위속을 헤치시며  
평양화장품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다너온 먼 길도 잊으신듯  
참으로 멋쟁이공장이라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장답다고  
《은하수》화장품이 흘러가는  
자동흐름선앞에 다가가신 장군님

장군님 《은하수》비누 한장 드시고  
향기도 맡으시고 해빛에 비춰보시니  
향기에 젖은 하늘이  
하늘을 기울여 자기의 은하수를  
흐름선에 실어놓고 흘러보내는데

장군님 《은하수》치약 하나 드시고  
인민들이 기뻐하는 모습 그리시니  
기쁨에 젖은 하늘이  
세월의 눈비에 다듬어온 은하수를  
장군님께 드린 기쁨에 넘친듯

비누직장에도 《은하수》...  
치약직장에도 《은하수》...  
장군님 돌아보시는 일터마다

그윽한 향기풍기는 화장품 《은하수》  
은하수의 시작은 어디며 끝은 어디?!...

장군님마음속에서 시작된 은하수  
그 한끝을 인민의 마음속에 이어놓고  
낮이나 밤이나 인민을 위해 걸으신  
사랑의 자욱자욱이 은하수되어  
이 땅에 흘러가는 사랑의 은하수여!

어제는 북방도시 화장품공장을 찾으시여  
온 나라에 사랑의 봄향기 풍겨주시고  
오늘은 8월의 무더위 헤치시고  
이 땅우에 행복의 은하수 펼쳐주신  
어버이장군님의 뜨거운 사랑

**김일성**민족 우리모두를  
선군의 강자로 키워주시고  
얼굴도 용모도 아름답게 가꾸어  
세상사람들앞에 내세워주시려는  
민족의 어버이 **김정일**장군님

장군님사랑 처녀총각 백년간약 폐장속에  
봄향기흐르면 맺은 사랑은 봄향기 천리  
봄향기 천리 먼 길에 은하수 깃들면  
맺은 사랑도 은하수 만리되라고  
우리 장군님 안겨주신 사랑의 손길이여

그 손길 《은하수》화장품에 닿으면  
병사들 가슴에 용맹이 나래치고  
그 손길 《은하수》화장품에 깃들면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  
선남 선녀되어 이 땅이 밝아지나니

아, 은하수 8월의 은하수  
장군님품속에서 시작된 은하수는  
우리 장군님 인민의 마음속에  
사랑의 하늘을 기울여 비껴주신  
영원한 삶의 향기 사랑의 은하수여라!

## 위대한 령도의 손길아래 창작된 품위있는 성과작

안 희 열

우리의 주체소설문학은 형상화수준이 높고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수령형상소설문학의 활발한 창작으로 자기의 화원을 더욱 풍만하게 장식하고있다.

수령형상문학을 기본으로 하는 주체소설문학의 화원을 생각할 때마다 총서형식의 수령형상소설문학창작의 초시기에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활동력사의 한 시기를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품위있게 형상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령도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되새겨 보게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과 주체문화건설에서 수령형상문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을 수령형상소설문학의 사상예술적품격을 훌륭히 갖춘 작품으로 창작완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창작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작품의 초고를 여러차례 보아주시고 이 소설이 우리 혁명의 려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는것만큼 《태양이 솟는다》로 한 소설의 제목을 《혁명의 려명》이라고 하는것이 좋겠다고 가르쳐주시었으며 소설작품에 담아야 할 내용의 포괄범위와 수령형상소설의 구성형식문제로부터 작품의 핵인 종자를 바로잡을데 대한 문제 그리고 수령의 위인적품모를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품위있게 형상하기 위한 방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작품이 다 완성된 다음에는 소설작품의 높은 형상수준과 심오한 철학적, 사상정서적감화력과 인식교양적의의에 대하여, 수령형상소설작품들중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절세의 위인상과 탁월하고 비범한 령도품모를 품위있게 형상한 수령형상소설문학의 빛나는 성과작으로, 주체소설문학의 본보기작품으로 훌륭히 창작완성될수 있었다. 초기혁명활동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절세의 위인적품모를 품위있게 형상한 소설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이 수령님의 위대성을 높은 수준에서 품위있게 형상할수 있는것은 무엇보다도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낸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 중에서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 이 수령님의 위대성을 높은 수준에서 품위있게 형상할수 있는것도 바로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제기한데 있다.》

작품의 형상과제는 종자와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본문제를 풀어나가며 작품의 구성을 엮는데서 매 인물이 맡아 안는 몫이다. 그러므로 형상과제 문제는 작품의 종자를 어떻게 골라잡고 기본문제를 어떻게 내세우는가 하는 문제로 나뉜다. 수령형상작품에서 종자가 뚜렷하지 못하고 문제성이 희박하면 작품의 형상전반에서 정치적대를 세울수 없으며 작품의 철학적성을 보장할수 없게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작품초고를 보아주시고 이 소설작품의 기본약점이 생활내용이 불충분하게 반영되었거나 작품의 형식이나 양상을 바로잡지 못한데 있는것이 아니라 작품의 기본핵을 이루는 종자를 바로 잡지 못한데 있다고 깨우쳐주시고 주체사상의 출발점을 작품의 핵으로 틀어쥐고 예술적으로 잘 해명할데 대한 문제, 수령님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 어떻게 새로운 지도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의 길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시였는가 하는것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이것은 혁명의 수령만이 해결할수 있는 력사적과제인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혀주는 주체사상을 창시하는 문제를 중요한 형상과제로 제기하고 그것을 예술적형상으로 밝혀낼데 대한 가르치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길림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하신 혁명활동과정은 독창적으로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시는 과정이었으며 조선혁명의 장래발전을 위한 위대한 구상과 과학적인 혁명리론을 완성해나가시는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길림을 중심으로 한 수령님의 혁명활동과정을 형상하는 작품에서 주체사상의 출발점을 작품의 핵으로, 주체사상의 창시 문제를 작품의 기본문제로 하는것은 필연적인것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의 사상적알맹이로 되는것은 주체사상의 출발점이다. 그것은 주체사상의 출발점이 수령님께서 벌리신 초기혁명활동의 심오한 본질을 체현하고있는 근본사상적알맹이이며 당시의 수많은 력사적사변들과 사건들, 혁명업적들의 밑바탕에 줄기차게 흐르고있는 사상적핵이기때문이다. 소설은 우리 혁

명의 러명을 불러온 주체사상의 출발점을 핵으로 하고 그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떻게 혁명의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해 나가시였는가 하는 것을 중요한 사회작문제, 인간문제 제기로 제기하고 있다.

길림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에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혁명발전도상에 제기된 두가지 심각하고 첨예한 문제에 부딪치게 되셨다. 그 하나는 조선혁명을 한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대중을 떠나서 상층부의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말공부만 하고 정도권쟁탈을 위한 파벌싸움에만 눈이 어두워 돌아가면서 실지 대중을 혁명운동에 불러일으키지 않고있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혁명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외세의존적이며 민족허무주의적인 사상에 깊이 물젖어 민족자주정신이 없이 남만 쳐다보면서 자기 나라 인민의 힘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남의 힘을 빌어 혁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혁명을 그들처럼 해서는 절대로 안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안으시였으며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므로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야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과 자기 나라의 혁명문제는 남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철의 신념으로 다지시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혁명의 력명》은 주체사상의 출발점, 주체사상의 시원문제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형상적으로 밝혀내는데 모든 형상요소들을 집중시켜 나갔으며 복잡다양한 력사적사건들과 사실들, 생활화폭들을 작품에 펼쳐보이였다. 작품에는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에 속한 민족주의자들이 대중과 리탈하여 《3부통합》을 한다고 하면서 몇달씩이나 정미소 뒤골방에 모여앉아 저마다 피대를 돌구면서 말싸움질만 하고있는 장면과 공산주의운동을 한다고 하는자들이 민족자주정신이 없이 민족문제를 허무적으로 대하며 외세의존적인 사고방식에 물젖어 국제당의 승인을 받아 저들의 《정도권》을 쟁취해 보려고 분별없이 돌아가는 모습을 펼쳐보여준다.

또한 작품에는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에 대한 철저한 주체적관점과 민족자주적리념, 애국, 애족, 애민의 립장에서 조선혁명의 참다운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있는 각계각층 청년학생들과 로동자, 농민들속에 들어 가시어 그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조직적으로 결속 시키며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켜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시며 그들을 대중적인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는 과정을 감동깊게 펼쳐보여준다.

작품의 이러한 생활화폭을 통하여 민족개량주의적이고 무저항주의적이며 외세의존적인 견해와 립

장의 부당성이 드러나고 조선혁명에 대한 주체적인 로선과 립장의 위대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다. 이 과정에 작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혁명에 가로 놓인 준엄한 난국을 타개하고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길을 뚜렷이 밝혀준 혁명의 위대한 태양, 주체의 태양이시라는것을 생활적형상으로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이 소설이 수령님의 위대성형상에 어울리는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내세우고 예술적으로 훌륭히 밝혀낸 여기에 수령님의 위대성을 품위있게 형상할수 있는 비결의 하나가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혁명의 력명》이 수령님의 위대성을 높은 수준에서 품위있게 형상할수 있는것은 다음으로 수령형상문학의 고유한 생리에 맞게 수령님의 혁명활동력사와 업적의 내용을 력사문헌적의의를 가질수 있도록 진실하고 감동깊게 반영한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품초고단계에서 초기혁명활동시기의 많은 력사적사실자료들을 고증해주시였으며 작품이 완성된후에는 그것을 다 읽으시고 소설작품에반영된 생활과 내용이 실지 있었던 력사적사실과 다 맞는 다는 치하의 말씀을 주시였다. 소설에 반영된 수많은 생활과 사건들은 력사적사실 그대로의 생동한 예술적재현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혁명의 력명》이 위대한 수령님의 초기혁명활동시기의 혁명력사를 력사적사실 그대로 감동깊게 형상할수 있는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작품창작과정에 력사적사실자료에 기초하여 수령님의 혁명활동력사에서 있는 사건과 사실을 잘 형상할데 대하여 주신 가르치심을 창작실천에 옹계 구현한 결과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작품의 초고를 보신 다음 민족주의자의 한사람인 안창호가 길림에 온 시기가 력사적사실과 맞지 않는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수령형상 소설은 일반소설과 달리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력사문헌적의의를 가지기때문에 철저히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형상을 창조해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는 우리 당의 력사, 우리 혁명의 력사로서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져야 할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귀중한 재부이다.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치면서 걸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활동로정 그자체가 사람들의 심금을 끝없이 울리는 감동적인 화폭으로 수놓아져있으므로 그 어떤 예술적허구나 과장이 없이 력사적사실 그대로 충실하게 반영하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커다란 사상정서적감화력을 불러일으킬수 있고 인식교양적의의를 가질수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혁명의 력명》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수령형상문학의 고유한 생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의 초기

혁명활동시기에 있었던 역사적사건과 사실자료에 철저히 기초하여 형상을 창조하였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총서형식의 장편소설에 반영하는 특성에 맞게 길림을 중심으로 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활동력사를 실재한 인물들과 사건들, 사실들을 그대로 충실하게 형상적으로 재현하는데 주되는 관심을 돌렸다.

그리하여 작품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활동의 중심지를 길림으로 옮기신 당시 시대사조에 압도했던 고루한 민족주의자들이 권력다툼으로 세월을 보내고있었는가 하면 공산주의운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파세력의 확장과 외세에 빌붙어 《헤게모니》를 쟁취해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었으며 청년학생들은 조선혁명의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해 갈팡질팡하고있던 복잡하고 첨예한 정세가 당시의 환경과 정황 그대로 생동하고 진실하게 반영되게 되었다.

작품에는 또한 수령님께서 길림육문중학교에 도서관을 꾸리고 길림 시내의 여러 학교들을 망라한 독서회와 연구소조들을 조직하여 광범한 학생청년들과 로동청년들을 새로운 시대사조에 점차 물젖게 하시며 길림 시내에 조선인길림소년회와 반제청년동맹, 공산주의청년동맹(당시)을 련이어 조직하시고 거기에 각계 각층의 광범한 청년학생들을 묶어 세우시며 그들을 동맹 휴학과 길희선철도부설공사 반대투쟁, 일본상품배척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이 감동적인 생활적화폭으로 펼쳐져있는데 이것은 다 역사적사실을 실지 그대로 형상적으로 재현한것이다.

작품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십년이 지난후에도 잊지 않으시고 여러차례 회상하신 길림거리에서의 인력거군사건과 수령님을 찾아온 차광수, 김혁파의 뜻깊은 상봉장면도 역사적사실자료에 기초하여 생동하게 그려져있다. 또한 민족주의자들이 《대통령》처럼 떠받들던 안창호가 《3부통합》을 앞두고 주체 16(1927)년 이른봄에 길림에 도착하는 장면과 그가 《조선민족운동의 장래》라는 제목으로 민족개량주의적이며 외세의존적인 내용으로 일관된 연설을 할 때 수령님으로부터 받은 서면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진땀을 빼다가 연락에서 내리지 않으면 안되게 된 장면도 역사적사실 그대로의 생동한 예술적재현이다. 민족주의거두들이 매일 정미소 뒤골방에 모여앉아 《3부통합》을 한다고 하면서 말싸움질, 자리다툼질로 세월을 보내고있는것을 보시고 수령님께서 반제청년동맹핵심성원들을 조직발동하여 그 것을 신랄하게 풍자비판하는 연극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초청해다놓고 공연무대를 펼쳐놓으시어 크게 자극시킨 장면의 예술적형상도 초기혁명활동시기의 역사적 사실 그대로의 생동한 반영이다.

이렇듯 소설에 펼쳐진 생활화폭들은 위대한 수령

님의 초기혁명활동시기의 실재한 인물들과 사건들과 사실들의 생활그대로의 형상적반영이며 작품의 기본형상 체계를 이루는 이야기줄거리와 중요인물관계도 다 실재한 역사적사실에 기초한 진실한 형상이다

이러한 소설의 생활내용을 통하여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혁명업적을 실재한 역사적 사실 그대로 깊이있고 감동깊게 체득할수 있으며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갈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이 소설의 역사문헌적의의가 있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인적풍모를 격이 있게 형상한 소설의 가치와 품위가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혁명의 력명》이 수령님의 위대성을 높은 수준에서 격이 있게 형상할수 있는것은 다음으로 수령님의 비범한 철학세계와 인간적풍모의 위대성을 풍만한 생활과 구체적인 생활세부로 감동깊게 형상한것과도 중요하게 관련된다.

수령형상작품은 화폭의 중심에 내세우는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로서의 정치적수령의 특출한 지위와 관련하여 수령의 비범한 철학세계와 인간적풍모의 위대성을 풍만한 생활로 감동깊게 형상할것을 요구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령형상문학의 고유한 생리에 맞게 수령님의 비범한 철학세계와 인간적풍모의 위대성을 깊이있고 감동깊게 그럴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정치적수령의 위대성을 품위있게 그리는데서 나서는 창작실천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길림에서의 인력거군사건, 신안툰의 학교에서의 생활장면, 권심의 연설, 안창호의 석방문제 등 이 모든 생활화폭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위인적풍모의 위대성을 잘 형상하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손길이 어려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혁명의 력명》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창작실천과정에 높은 형상수준에서 실현하였다.

작품에서는 우선 수령님의 비범한 철학세계를 깊이있게 형상하였다. 수령님께서 주체의 진리를 밝히시고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하는 과정은 끝없는 철학적사색과 탐구의 과정이었다. 수령님의 비범한 철학세계는 혁명적인 도서들을 정력적으로 탐독하시면서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독창적으로 모색하는데서 도 길림육문중학교의 한 교원에게 종교의 반동적본질을 밝혀주시는 수령님의 비범성에서도 차광수의 흥분된 감정과 시점에서 펼쳐보여주는 안창호의 《민족개조론》과 외세의존 사상의 본질을 밝혀주는 강남공원에서 수령님의 연설장면에서도 깊이있게 보여준다. 또한 민족문제를 계급적모순의 한 측면으로만 보는 좌경적이며 허무주의적인 권심의 연설내용에 대하여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혁명 실정에 맞게 소화해서 받아들이야 조선혁명의 옳은 방침을 세울 수 있다고 가르쳐주시는 수령님의 말씀을 통해서와 조선혁명의 동력문제를 교조적으로 대하는 월파에게 식민지반봉건사회인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민족부르조아지들과도 단결해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가르쳐주시는 장면을 통해서도 수령님의 비범한 철학세계를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고 있다.

작품에서는 수령님께서 신안툰에 나가시어 활동하시는 내용도 단순히 꽃밭을 가꾸고 학교를 다니는 장면을 통하여 광범한 대중속에 들어가 혁명의 씨앗을 뿌리며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확대강화해 나가는 과정으로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파고 들으로써 정치적수령의 위대한 풍모를 격이 있게 보여줄 수 있었다.

작품에서는 또한 수령님의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구체적인 생활세부로 감동깊게 보여주고 있다. 작품에서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보여준다고 하여 수령님과 혁명전사들과의 관계를 지도를 주고 지도를 받는 공식적인 관계로가 아니라 서로 믿음과 사랑을 주고받는 혈연적인 동지적관계로 그리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박두학, 채봉이, 차광수, 김혁 등 《E.C》의 핵심성원들, 반체청년동맹원들과의 관계를 조금도 간격이 없는 허물없는 인간관계로 보여주고있는것은 그 실례로 된다.

작품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뜨거운 인정미와 생활정서를 지니신 위대한 인간으로, 인민들속에 들어 가시어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면서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인민의 령도자로 형상하고 있다. 가난한 하숙집의 봉숙이에게 글을 가르쳐주시고 그와 노래도 함께 부르시는 모습과 부모를 잃고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채경이 오누이 집에 찾아가시어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그들을 참된 삶의 길, 투쟁의 길로 이끌어주시는것을 보여준데서, 로동과정에 다리를 크게 상하여 부두가에서 힘겹게 일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한 로동자를 병원치료를 받아 고쳐주도록 하시는 숭고한 품모를 감동깊게 보여준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작품에서는 인력거군사건도 길림시에 처음 찾아온 김혁이의 시점에서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들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을 자신의 고통과 슬픔으로 느끼시며 그들을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인민들의 리익을 적극 옹호하여 투쟁하시는 수령님의 고매한 인민적품모의 위대성을 더욱 인상깊게 보여주는것으로 형상하였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폭넓은 도량과 인정미를 지니신 인간, 뜨거운 포용력을 지니신 참된 인

민적 령도자로 훌륭히 형상하고 있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민족주의자들 및 공산주의운동자들(당시)과의 관계를 정치적리념상 모순과 대립관계에 있다고 하여 정면대결관계로가 아니라 수령님께서 넓으신 도량과 인정미, 뜨거운 포용력을 가지고 그들을 레절바르고 아량있게 대하시며 옳바른 길을 걷도록 이끌어주시는것으로 형상하였다. 실패한 강연으로 고독속에서 절망에 싸여있는 권심이를 넓은 도량으로 고무해주시고 새로운 길을 걷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며 안창호의 석방운동을 크게 벌리시어 그를 끝내 감옥에서 구출해 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숭고한 위인적품모를 감동깊게 보여주고 있다.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혀주시는 주체의 위대한 태양의 비범한 철학세계와 인간적품모의 숭고한 세계를 풍만한 생활과 구체적인 세부형상으로 감동깊게 보여준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품위있게 형상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 된다.

이렇듯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하고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철학적인 종자를 심고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내세우고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낸 성과작으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수령님의 혁명활동력사와 업적을 품위있게 형상한 작품으로, 절세의 위인의 비범한 철학세계와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생활적으로 감동깊게 형상한 훌륭한 작품으로 창작되어 주체소설문학사에 빛을 뿌리고 있다.

우리의 주체소설문학은 문학예술혁명과정에 이룩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있고 수령형상소설문학의 귀중한 본보기가 있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활동력사를 총서형식에 담아 수십권의 대서사시적화폭으로 감동깊게 형상할수 있게 되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의 사상예술적성과는 오늘 우리의 주체문학, 선군혁명문학의 내용과 형식 및 형상방법에 구현되어 작품의 사상예술적품격을 더욱 높여나가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주체의 소설문학의 창작과 그 발전과정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연구하고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할 때 빛나는 창작적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문학예술혁명과정에 이룩하신 불멸의 령도업적과 수령형상소설문학창작에서 이룩한 귀중한 사상예술적 성과를 더욱 깊이 연구하고 구현해 나감으로써 선군혁명문학창작과 건설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다.

## 웃놀이를 하신 사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가 오늘과 같이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보위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김정일**동지의 옳바른 령도의 결과입니다.》

여러해전 3월초였다.

인민군대의 어느 한 일군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그 어떤 중요한 임무를 주시려는줄 알고 그이께서 부르신 곳으로 바삐 갔다.

이날 일군의 도착보고를 받고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를 따듯이 맞아주시고나서 건강상태에 대하여 일일이 료해하신후 웃놀이판으로 이끄시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웃놀이를?)

그는 잠시 어안이 빙빙해졌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자주 만나뵙음은 파정에 그이께서 낮과 밤을 이어가시며 얼마나 긴장하게 집무를 보시는가 하는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 그였던것이다. 그런데 웃놀이라니?...

이러한 일군을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일군과 자신이 한편이 되어 웃놀이를 하자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그러시면서 최고사령관도 전사들이 좋아하는 웃놀이를 할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와 그 일군을 한편으로 하고 나머지 일군들을 다른편으로 하여 웃놀이가 시작되였다.

일군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 하신 그이께서는 우스개소리도 하시고 후뜰이 나올 때에는 호탕하게

웃으시기도 하며 일만 일이라고 하면서 내밀기만 하던 일군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시였다.

그 일군은 한없이 인자하고 너그러우실뿐아니라 일군들과 꼭 같은 위치에서 웃가락도 쓰시고 자리 곁에 한점두점 말을 옮겨놓으시기도 하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르면서 어려움도 잇고 웃놀이를 하였다.

시간이 썩 흘러서야 그 일군은 그동안 불편한 몸으로 긴장하게 사업하여 온 자기를 휴식도 시키고 또 그가 병사들과 간격없이 어울리자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하는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하여 그이께서 일부러 바쁜 시간을 내시였다는것을 알았다.

그 순간 그 일군의 눈시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 이듬해 3월초였다.

최전연의 어느 한 중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평범한 중대정치지도원과 웃놀이판을 마주하시고 웃놀이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고 주패, 웃놀이와 관련한 도서까지 출판하도록 하시였다는 소식을 들은 일군의 충격은 더더욱 컸다.

(아! 바로 그때문이시였구나.)

일군은 이날 그이께서 가는 길 험난할수록 군인들이 웃으면서 혁명적락관에 넘쳐 살도록 하시기 위해 문화정서생활에 얼마나 깊이 관심하시며 뜨거운 사랑을 돌려주시는가 하는것을 충격적으로 더욱 깊이 받아안았다.

그뿐아니라 최고사령관도 전사들이 좋아하는 웃놀이를 할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던 그 심오한 말씀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도 더욱 폭넓게 리해할수 있었다.

박 봉 윤

## 가사

### 은정마을 새 풍경

고 영 수

산허리에 감도는 흰 구름인가  
처녀들이 몰아가는 하얀 염소떼  
장군님 기쁨속에 보신 모습이  
내 고향 은정마을 풍경입니다

마을앞에 바다가 펼쳐졌는가  
양어장엔 금잉어가 꼬리칩니다

장군님 미소속에 보신 그 모습  
꿈속에 다시 보는 풍경입니다

천년세월 바라던 인민의 소원  
선군덕에 무릉도원 꽃렸습니다  
장군님사랑속에 펼쳐진 모습  
새 세기의 황홀한 풍경입니다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죽음도 두려움없이 맞받아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반제투쟁의 진리를 과시한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다.

-공 동 사 설 에서-

시초

## 총대는 말한다

김 경 기

### 우리의 총대

백두의 메부리를 밟아  
그 기상 굽어들지 않는다  
백두의 눈보라가 어려  
그 서리발 녹지 않는다

이 총대  
퇴성벽력에도 끄떡없음은  
정일봉을 안고있기때문  
그앞에 원썩들이 선채로 굳어짐은  
정일봉의 우뢰가 터져나오기때문

이 총성  
진리를 길게 설명하지 않고  
평화를 단방에 선언할수 있음은  
그 방아쇠가  
백두령장의 손에 걸려있기때문

이 총구앞에  
지구의 어데 있든  
원썩들 죽음을 피할수 없음은  
그 조준선우에  
령장의 눈빛이 흐르기때문

어느 때 어느 시각  
어떤 총탄이 날아갈지  
드러내진 않아도  
일단 붙으면 그 배짱 그 담력  
침략의 밑뿌리를 송두리채 들어내려니

아 장군님의 담력  
장군님의 의지  
장군님의 배짱어린 총대  
그 판단 가장 정확하고  
그 결심 가장 단호하며  
그 타격 가장 무자비한  
장군님 그대로 닮은 선군백승의 이 총대

인민이 행복을 맡기고  
조국이 존엄을 맡긴 총대에  
당이 붉은기를 맡기고  
사회주의가 운명을 다 맡겼도다  
온 세계가  
앞날을 다 의탁하였도다

### 총대 사랑

그이는 이 나라 군복중에서도  
가장 첫째가는 원수복대신  
가장 수수한 야전복을 입으셨다  
병사들과 마주앉아 고향소식도  
스스럼없이 나눠야 했기에

그이는 장군식으로가 아니라

병사식으로만 늘 사신다  
너럭바위를 식탁삼아  
췌기밥도 허물없이 나눠야 했기에

그이는 최고사령관이시전에  
다심한 어머니가 되시기도 했다  
건간장이며 토장국이며

각종 요리비결도 배워주고  
병사솜웃 두터이도 헤아려야 했기에

때론 바쁜 기자 편집원이 되시기도 했다  
그래서 당보에도 병사들 노래  
청년보에도 병사들 자랑  
텔레비죤화면에도 병사들 모습  
이 땅 어딜 가나 병사사랑의 구호 펼치셨다

이것으로 하여 우리 장군님  
위대한 령장으로 더더욱 위대해지셨고  
이것으로 하여 우리 병사들  
장군님과 더더욱 가까와졌다  
이것으로 하여 우리  
고난과 맞서 마음먹은 기적 다 세우고

대적과 맞서 하고싶은 배짱 다하거니

총대사랑! 총대사랑!  
천만전사의 심장만을 틀어잡았던가  
정의가 불의를 틀어잡음으로 하여  
미제의 먹다시를 가장 바투 틀어잡았다  
시대와 역사를 틀어잡음으로 하여  
순간에 인류의 심장 틀어잡았다

오오 총대사랑으로  
인간이 누릴 온갖 사랑 다 지켜주셨다  
병사사랑의 최고정화  
인간사랑의 최대승화  
선군총대의 최대완성을  
그이는 온 세계에 보여주셨다

## 총알과 나

지그시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며  
나는 생각한다  
불덩이로 날아갈 총알에 대하여  
총알을 닮아  
총알처럼 배반 몰라야 할 나에 대하여

총알아  
내 만약 육탄정신을  
이 가슴에 불덩이로 간직하지 못했다면

하여 네가 불이 되어 떠날  
장군님총대의 총구를  
인생의 출발점으로 알지 못하고  
장군님 겨냥하신 목표를  
영생의 출발점으로 택하지 못했다면

내 어찌 장군님총대에 재워진  
첫번째 총알일수 있으랴

총알아 한번 날아가면  
너는 다시 돌아오지 못해도  
이 몸은 날아가 목표에 탕탕 부딪쳐서  
쪼각쪼각 흩어졌다가도  
나의 삶은  
다시 돌아와 그이몸에 안기리라

장군님총대에서 출발한 인생  
그이 손들어 가리키신 곳  
목숨바쳐 소멸해야 할 결사의 과녁을  
영생의 출발점으로 정한  
오, 나의 인생아

## 내가사는 집

집이 있다  
력사의 눈사태에 집들이 묻히고  
세월의 폭우에 지붕들이 무너져도  
제 모습 아니 잃고

이 세상 한복판에 우뚝 서있는 집  
살펴보면  
남의것을 조금도 본파지 않은

순수한 우리 집  
총대기둥 세우고  
총대지붕을 얹고  
총대성벽 끄떡없이 높이 두른!

그래서 내 집 지붕은  
그 어떤 불비에도 아니 불타고  
그래서 내 집 기둥은  
그 어떤 광풍에도 아니 넘어지고  
그래서 내 집 총대성벽앞에선  
력사의 역풍도 달아나버렸거니

봄빛만이 영원히 자리잡아  
웃음만이 노래만이 흘러나오는  
선군만복이 무르녹는 집  
대국들의 속박도 아랑곳없이  
온갖 《힘》의 구속에도 끄떡없는 집

비록 화려하고 사치하진 못해도  
우리는 이 집에서 보란듯이 산다  
봉쇄의 쇠사슬이 조여들어도  
우리는 이 집에서 떠들썩 웃으며  
자주의 문 열어놓고 노래높이 산다

## 총대는 말한다

인류가 불을 발견하듯  
지구에 쇠불이가 생겨난 때로부터  
인간을 죽이는데만 리용되던 그 총대에서  
인간을 살릴 선군을 발견하신  
우리 장군님

총대로 온갖 불의를 누른  
선군은  
자주의 궤도우에 지구를 올려세운  
이 행성의 지레대였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도  
죽지 않는다 믿고  
산다고 확신하며  
이긴다고 배심든든해진 총대

총대로 지퍼올린 공장굴뚝의 흰 연기와  
총대로 쌓아올린 언제의 타빈들이  
총대로 넓혀나간 무연한 벌판들과  
총대로 반들어올린 우리 위성이  
선군의 영원한 생명력을 론증했을 때  
총대여

너는 우리 삶의 위대한 도약대였다  
  
조국의 운명과 계급의 낮이 무겁게 얹힌  
당기와 국기와 군기를  
우리 장군님 총대로 틀어쥐었을 때  
총대여  
너는 무엇으로도 대신 못할  
사회주의붉은기의 영원한 기발대였다

인류가 바라던 정의와 평화에  
핵무기보다 강한 선군총대를 주었을 때  
하여 불의가 정의앞에 무릎을 꿇게 한  
총대여  
너는 인류해방의 위대한 표대였다  
기울어졌던 지구를 바로 세운 축이었다

오오 총대여  
너를 틀어쥐면  
누구나 행복의 영원한 주인이 되는  
운명의 총대여  
너는 억만년 인류가 그리도 찾고찾던  
삶의 위대한 만능보검이어라

## 불

조상호

## 1

가라말은 눈가루를 뽀얗게 일구며 네굽을 안고 백설의 광야를 천방지축 내닫고있었다. 말우에서는 남북을 하고 조여맨 혁띠에 권총을 두자루씩이나 찬 곱살한 처녀가 종발머리를 기폭처럼 날리며 《찌, 찌》하고 연방 박차를 가하고있었다.

처녀의 땀에 뜬 동실한 얼굴에서는 아릿다운 용모에 어울리지 않게 그 어떤 초조와 불안과 분노가 뒤엉킨 서리발 같은 광채가 번뜩인다. 그 처녀를 뒤쫓아 서너필의 말들이 눈보라를 일으키며 달려간다. 처녀를 혈레벌떡 따라가는 사람들은 퍼런 군복을 입은 독립군들이다.

《서라 셋! 안서면 쏜다!》

뒤따르는 사람들의 악에 반친 웨침소리...

그러나 처녀는 듣는듯 마는듯 죽기내기로 말을 짓쳐 몬다.

마침내 총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땅 따당 땅땅 ...

어지럽게 울리는 총소리, 총소리...

갑자기 앞서 달리던 가라말이 곤두박질을 하며 나동그라지고 처녀는 허공중 휘뿌려져 눈우에 나뒹굴었다. 점점 가까와지는 말발굽소리...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난 처녀는 자기 신변의 위험은 생각지도 않는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판에 넘어져 네다리를 버둥거리는 말에게부터 다가간다. 말은 어디에 맞았는지 대가리가 온통 피범벅이 되었는데 처녀를 올려다보는 큰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있다. 처녀는 말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갈기를 쓰다듬는다. 그러는 처녀의 크고 검은 눈에 핑그르 눈물이 고여오른다.

뒤따르던 말들이 등뒤에 들이닥쳐서야 처녀는 벌떡 일어서며 몸을 핵 돌렸다. 량손에는 어느새 권총을 한 자루씩 뽑아들었다. 처녀는 허공중에 대고 땅땅 총을 갈졌다.

《범접하지 말아. 덤벼들면 가차없이 싸갈길테다.》

처녀의 울분에 찬 웨침소리가 쟁하고 언대기를 찢었다. 그러자 푸르릉거리며 처녀의 주위를 맴돌던 말들이 푸들쩍 놀라 길길이 뛰여오른다. 말우에서 혈떡거리며 처녀를 내려다보던 독립군들의 눈이 켜졌다.

《아니? 그럼 당신은... 리관린이?》

《그래요. 나예요. 누가 왔어요. 내 말을 누가 쏘았는가 말이에요.》

독립군들은 찢끔 목을 움츠러뜨렸다. 서로 눈치를 본다. 자기들이 따른 미모의 처녀가 뜻밖에도 《만록총중 일점홍》으로 소문난 독립군의 녀걸 리관린이니 정말 재수없게 맞다들렸다는 표정들이었다.

《어찌겠소. 우리 사령님이... 누구도 마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단단히... 지키라고 해서... 그런데 아무리 소리질러두 서지 않으니...》

처녀의 세차게 오르내리는 봉긋한 앞가슴을 훑쳐보며 눈을 꺼벅거리던 텃석부리 독립군대원이 난처한듯 맥락이 닿지 않는 소리로 중얼거리는 말이었다.

《서지 않는다고요? 당신들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기나 해요? 김형직선생님을 찾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들은... 뻘어요. 긴말할 새 없으니 당신은 어서 말에서 내려요.》

《예?》

처녀의 불이 펄펄 이는 눈길에 곧추 자기를 겨누고 들자 텃석부리가 눈이 둥그래졌다.

《아니, 어찌자구...》

《어서 내리지 못하겠어요? 나예젠 지금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술한 생명이 왔다갔다하는판인데... 빨리 내려요.》

처녀의 다기찬 성격과 도담한 기상 그리고 녀걸로 소문난 그의 명성에 여기가 질렸던 텃석부리는 리관린이 발까지 구르며 소리치자 병병해진채 말에서 내렸다. 독립군 녀걸의 말을 쏘아죽인 죄책감으로 기가 질렸던데다가 김형직선생님께로 간다는 말에 놀라 얼굴에 뛰여내린것이다.

관린은 지체없이 그의 말에 날아올랐다. 그리고는 텃석부리를 돌아보며 그루박듯 포박포박 찍어말했다.

《어서 가서 박사령님께 전하세요. 이 리관린이 이제 가서 김선생님이랑 오동진총사령이랑 다 모시고 올테니 그때까지는 절대로 총소리를 내선 안된다고 말이에요. 또다시 총소리를 내었다간 모두가 무사치 못할것이라구...》

그리고는 《찌!》하며 말의 배허벅을 찼다.

《아니, 잠깐...》

텃석부리가 당황해서 소리치며 황급히 한손을 내뻗었지만 관린은 벌써 앞으로 내닫고있었다.

《내 말을 죽였으니 당신은 걸어가란 말이에요. 또다시 날 따라왔다간 용서없다는걸 알아요.》

오금을 박는 그 말에 발목이 묶이운듯 독립군대

원들은 더 따라갈 생각을 못하고 말을 타고 사라져가는 처녀의 뒤모습만 멍하니 쳐다보다가 껌껌 입을 다시며 돌아섰다.

## 2

리관린은 독립군들이 어찌고있는지 뒤돌아볼 마음의 겨를도 없었다. 눈판이고 얼음판이고 가릴 경향도 없었다. 무작정 말을 내몰았다. 한시바삐 김형직선생님을 만나뵈워야 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왜놈들에게 체포되었다가 연포리주막집에서 무사히 탈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이께서 주신 모연공작임무를 마저 수행하느라고 미처 찾아뵈지 못했던 리관린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가슴아픈 소식을 안고 가고있으니...

관린은 지금 가슴이 찢기는듯 아팠다. 빨강계 달아오른 량볼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있었다. 육문 입술사이로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소리가 새어나왔다.

《용서하시지 않을게야. 절대로... 절대로... 징벌을 가해야 돼...》

엿그제 관린은 오동진총사령이 준 김형직선생님의 편지를 전달하러 북대평에 있는 독립군부대들에 찾아갔었다.

조선의 독립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정당을 창건하기 위한 독립운동가들의 회합을 조직하러 하니 사령들은 무중으로 속히 오라는 편지였다.

그러나 리관린이 북대평에 도착하니 그곳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하였던 일이 벌어지고있었다. 모연공작을 나갔다가 돌아오던 박사령네부대 대원들이 최사령네부대 독립군의 습격을 받은것이다. 세명중 두사람은 희생되고 한명은 다리에 관통상을 입은채 벌벌 기어서 부대에 도착했다. 죽은 사람속에는 박사령과 결의형제를 무은 사람도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사령네 《형제》들이 가만있을리 없었다. 서로 자기네 관할구역에 들어와 모연공작을 한다고 양속으로 지내며 양양 불락하던 박사령네 《형제》들은 자기네 《동생》의 복수를 한다면서 즉시에 부대를 출동시켰다. 최사령네가 주둔한 마을을 포위한 박사령은 한사람도 마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는 모연공작조를 습격한 놈들을 당장 잡아보낼것을 요구했다.

최사령은 전부대를 모아놓고 조사해보았으나 그날 습격장소에 나갔던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최사령은 급히 자기가 제일 신임하는 유종삼이란 부관과 다른 한명을 연락원으로 보내여 자기네 부대사람들이 습격하지 않았다는것을 알렸다. 박사령은 연락은 사람들을 그 부상자에게 데리고 갔다 부상자는 치를 떨면서 부르짖었다.

《사령님, 저 최가네 놈들이 틀림없소이다. 군자금을 강탈할 때 한사람이 몰래 나에게 귀띔했소이다. 최사령의 명령이라 할수없이 자기도 따라왔

다고... 그래서 내가 죽지 않은걸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것이니 날 보구 죽은것처럼 꼼짝말구 있다가 자기네가 사라진 다음에 부대로 가라고 했소이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살려 주었다는 말은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고...》

유종삼부관은 펄쩍 뛰면서 손을 내저었다. 그건 꾸며낸 말이라고, 자기네 사령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목숨을 걸고 담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사령네 《형제》들은 《동생》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라 분별이 없었다.

《네놈이 아무리 우겨대두 우린 믿지 않아. 우리는 네놈보다 우리 사람의 말을 더 믿는단 말이야. 우리는 <형제>를 무을 때 죽어두 같이 축구 살아두 같이 살자고 피로써 맹세했다. 자 보라, 이 혈서를... 동생이 죽었으니 우리도 죽어야겠지만 동생의 원수를 갚지 않고서는 죽을수 없는 사람들이니 우리는 피를 물고 서라도 복수를 해야겠다. 네가 목숨을 걸고 최사령을 담보하였으니 어차피 너부터 죽어야겠다.》

그러면서 유종삼을 최사령네 부대가 바라보는 언덕우에 내다세우고 총살해버렸다. 최사령네 부대에 대고 이틀동안 시간을 줄테니 그때까지 습격자들을 내놓지 않으면 남은 한명을 마저 죽이겠다고 선포했다. 그것은 곧 최사령네 부대를 들이치겠다는 최후통첩과도 같은것이였다. 최사령네 부대는 사실 박사령네 부대보다 인원도 적었고 무장장비도 약했다. 그러나 자기네 부관이 총살당하는것을 본 최사령네부대에서는 죽어도 피값이나 하고 죽자면서 모두들 들고 일어났다.

최사령을 만나러 갔다가 그 부관의 죽음을 목격한 리관린은 너무도 억이 막혀 리성을 잃을 지경이였다. 그 유종삼부관이 바로 김형직선생님께서 황해도 구월산쪽에 나갔다 오실 때 몸소 데리고 오신 청년이었던것이다.

선생님을 모시고 구월산으로 향하던 리관린은 포승을 진채 왜놈순사들에게 끌려가는 한 청년을 보았었다. 어쩔수 없는 상황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관린을 돌아보시였다. 선생님의 뜻을 안 리관린은 번개같이 권총을 빼들고 앞으로 나섰다... 관린이가 놈들을 숲속으로 끌고 들어가 처단해 버리고 나오자 청년은 눈이 화등잔만해져서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다. 꽃같이 아름다운 처녀가 우악스런 왜놈순사를 두놈씩이나 눈깜빡할새에 요정내는것이 꿈같이 희한하고 신기했던것이다. 청년은 한동안 있어서야 정신을 차리고 김형직선생님의 손을 덥석 잡으며 무릎을 꿇었다. 왜놈순사들의 총을 자기에게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다. 3. 1운동 때 왜놈들의 칼에 맞아죽은 아버지, 어머니의 원수를 갚겠다는것이였다. 오늘도 그래서 칼을 품고 나섰다가 오히려 왜놈들에게 잡히는 신세가 되었다면서...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청년에게 혼자서 원수

를 갈겠다고 뛰어다니지 말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 싸워야 아버지, 어머니는 물론 사무친 민족의 원한을 풀고 나라를 되찾을수 있다고 알기 쉽게 깨우쳐주시었다. 선생님이 범상치 않은분임을 알게 된 청년은 자기도 데려가달라고 졸랐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잘 키우면 청년이 훌륭한 독립군 지휘관이 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구월산을 떠나실 때 몸소 데리고 오시었다. 그와 동행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었다. 우리 나라의 독립운동의 전망에 대하여, 조선국민회와 투쟁목적, 무산혁명방침, 로씨야의 10월혁명, 레닌과 손문에 대하여...

호젓한 산길을 걸으실 때는 노래도 배워주시었다.

태평양과 대서양의 무한한 물은  
산곡간의 적은 물이 회합함이요

...

오고가는 바람형제 맹렬한것은  
무형무색 공기들이 회합함이요

리관린은 그가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도 흘끔흘끔 자기를 신기하게 결눈질해 보던 그 눈길을 지금도 잊을수가 없었다.

그렇게 순박하고 열정적이던 청년... 그가 바로 유종삼이었다. 선생님께서 팔도구에 있는 덕에 도착하시었을 때 마침 최사령이 치료를 받으러왔었다. 최사령은 선생님옆에서 병치료시중을 드는 유종삼이가 마음에 꼭 들었는지 자기 술하에 두게 해달라고 졸랐다. 유종삼은 선생님의 걸을 떠나기 서운해 하였지만... 눈물이 글썽해서 떠나갔었다.

그런데... 그런 청년을 저 무지막지한 박사령네가 죽인것이다.

리관린은 분격을 참을수가 없었다. 혼자서라도 박사령네 부대로 짓쳐들어가 《형제패》들과 결판을 내고 싶었다. 최사령이 한사코 막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김선생님께 알려드리시오. 그분께서만 허락하신다면 당장이라도 저것들을 그저 아 김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저런 훌륭한 청년을 잃다니... 선생님 앞에 내 무슨 죄를 지었는고...》

최사령이 가슴을 치며 통탄하는 말이였다. 유종삼이 것처럼 선생님을 떠나기 싫어하는것을... 선생님께서도 훌륭한 지휘관 감이라면서 앞으로 훈련소에 보내여 키웠으면 하시는것을 때를 쓰며 졸라서 데려왔던 최사령이니 얼마나 죄스러우랴.

리관린은 최사령의 말대로 김형직선생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하고 마을을 빠져나왔다. 그런데 무지막지한 박사령네 독립군대원들은 자기를 추격하다 못해 말까지 죽여버린것이다.

눈보라가 일기 시작했다. 뽕안 눈장막이 앞을 가리웠지만 관린은 울면서 연신 박차를 가했다.

아 선생님,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이 일을...

### 3

《게, 관린이가 아닌가?》

어느 집에 선생님께서 계시가 생각해보며 마을에 들어서던 리관린은 자기를 찾는 귀익은 목소리에 얼른 고개를 돌렸다. 마침 강반석어머님께서 한옆에 광주리를 끼시고 집들사이를 돌아나오고계시었다.

리관린은 제격 말에서 뛰어내리며 인사를 올렸다. 《사모님, 그간 안녕하셨어요?》

리관린은 그이를 뵈옵자 까닭없이 왈칵 눈물이 쏟아지려는것을 애써 참으며 얼른 광주리를 받아들었다.

무슨 약을 지어 오시는지 씹싸하고도 향긋한 냄새가 광주리안의 종이봉지들에서 풍기는듯 싶었다.

《나야 여전하지. 그런데 어디엘 가는 길인가?》

《선생님을 뵈오러 오는 길이예요. 선생님의 신장에 상서롭지 못한 일이 있었다던데 건강은 좀 어떠세요?》

강반석어머님께서서는 말고삐를 받아쥐고 걸으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시였다. 순간 관린은 가슴이 섬적해 움을 느끼며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아직까지 어머님에게서 단 한번도 한숨소리를 들은적이 없는 관린이였다. 불길한 예감이 섬광처럼 번쩍 뇌리를 꿰지르는것을 느끼며 어머님을 돌아보았다.

강반석어머님의 안온하던 얼굴에는 시름이 짙게 비껴있었다.

리관린은 가슴이 철렁 했다.

《사모님, 무슨 일이예요, 예? 선생님께서... 몸시... 다치셨어요?...》

음성이 자기도 모르게 떨리였다.

어머님께서는 시름겹게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좀 심하게 상하셨다우. 신의주로 호송도중에... 황서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하기는하셨습니다... 이 엄동설한에 글썽 산에서 사흘밤낮을 지내시느라 온몸에 동상을 입으셨다우... 그 다음엔 저 압록강 얼음우로 넘어오시느라 재차 동상을...》

그러시는 어머님의 눈에 물기가 펴 고여올랐다.

《예? 어쩐... 난 그런것두 모르구 여적...》

관린은 가슴이 금시 얼어드는듯 했다. 어머님을 따라 김형직선생님께서 계시는 방에 들어서던 관린은 몸을 흠칫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하반신을 이불로 가리우시고 벽에 기대앉아 무슨 책인가 보시다가 《관린이가 왔구만. 어서 들어오라구.》하며 반색을 하시는데 그 얼굴이 몹시 수척하시고 모진 고문과 동상의 흔적으로 퍼릿퍼릿한것이 가슴에 팍 마쳐왔던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눈곱이 시큰해지고 울음덩어리가 왈칵 솟구쳐올라 입안에 가득찼다. 억이 막혀 말도 나가지 않았다.



리관린은 선생님앞에 풀썩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다가 이렇게… 전 선생님이 이러신줄도 모르구… 지금까지와보지도 못하고 절 욕 많이 해주세요, 선생님.》

그러는 리관린의 랑볼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러나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헉헉하게 웃으시었다.

《걱정마오. 크게 상한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왔던 사람들더러 다른 사람들에게 일체 내 병세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한 거니까 관린이가 어떻게 알수 있었겠소. 그건 그렇고… 관린이는 오동진총사령의 편지를 가지고 북대평쪽에 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빨리 돌아왔구만. 갔던 일은 어떻게 되었소?》

《선생님!》

관린은 고개를 떨구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이처럼 중한 병석에 계시는 선생님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지 못한 자신이 저주스러웠다. 생각할수록 그 박사령네 《형제패》가 참을수 없이 미워났다. 그러나 달리는 방법이 없었다. 이제 선생님께서 북대평에서 일어난 일을 아신다면 얼마나 본격해하실가.

관린은 머리를 들지 못한채 떠듬거리며 자책어린 어조로 입을 열었다.

《선생님, 사실 북대평에서 일이 좀 생겼습니다. 선생님께서 황해도에서 데려오신 그 청년이 그만 박사령네 <형제패>에 의해서…》

관린의 자초지종을 듣고있던 선생님께서 놀란 표정을 지으시었다.

《그러니 그 유종삼이가 희생되었단 말이요?》

관린은 눈물을 삼키며 말씀드렸다.

《선생님,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있으면서도 일을 바로 잡지 못하고 이렇게… 선생님, 최사령은 지금 선생님의 분부만 기다리고있습니다. 박사령네 <형제패>는 지금 리성을 잃었습니다. 물불을 모릅니다. 이번 습격사건이 왜놈들의 간계가 분명한것 같은 데도… 가만두면 안될것 같습니다.》

《음…》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피롭게 숨을 몰아쉬며 입술을 꼭 깨무시었다. 벽에 기대시고 눈을 감으신 그의 얼굴에 모진 고통의 그늘이 짙게 비꼈다. 잠시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시더니 결연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관린이… 빨리 나가 말파리를 좀 준비해주오.》

《예?》

관린이 잠깐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니, 그럼 선생님께서?…》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말없이 고개만을 끄덕이시었다.

그러자 관린은 펄쩍 뛰다싶이 하며 말씀드렸다.

《그 몸으로 어디엘 가신다고 그러십니까. 안됩니다. 그저 분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오동진총사령이랑 함께…》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고개를 가로 저으시었다.

《오사령은 오전에 왔다갔는데… 오사령도 이번 독립운동자들의 회합때문에 바빠 할일이 있소. 그러니 관린이가 나하고 함께 갑시다.》

리관린은 선생님의 확고한 결심이 어린 말씀에 어찌할바를 몰라 울상한 표정으로 부엌에서 약을 달이시는 강반석어머님을 바라보았다.

강반석어머님께서도 선생님의 말씀이 놀라우신 듯 선생님을 쳐다보시다가 조용히 방안으로 들어오시었다.

《성주아버님, 이번에는 관린의 말대로 해주세요. 그 몸으로는 어디에도 가지지 못합니다.》

물기에 젖은 안타깝고도 절절하면서도 단호한 말씀이시었다.

그 말씀에 김형직선생님께서도 퍼그나 놀라신듯한 표정이시었다. 어찌 그러지 않으시랴. 지금껏 독립운동의 길에 나선 남편을 도와 것처럼 모진 고통도 달게 여기시며 성심성의로 받들어 온 어머니가 아니신가.

관린은 어머니가 눈물겹게 고마우시었다. 그만큼 김형직선생님의 병이 위중하심을 가슴저리게 절감하였다. 관린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말씀드렸다.

《선생님, 이번만은… 이번만은 그저 분부만 하십시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이윽도록 어머니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으시었다.

《나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자 나선 사람ियो. 지금 큰일을 앞에 두고 상서롭지 못한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치료만 받고 앉아있겠소. 이번일엔 꼭 내가 가야 하오. 당신도 알지 않소. 그 유종삼청년이 잘못되었다는데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소. 관린은 어서 나가 말파리를 준비하오. 어서…》

선생님의 엄하신 말씀에 리관린은 마침내 《선생님!》하고 목메어 부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동실한 그의 어깨가 사정없이 떨렸다.

《사모님, 이런 땀… 이런 땀… 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런 선생님을 모시고 가면… 오사령님이랑… 사람들이… 저를 두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을거예요. 절대로… 절대로…》

꼭 꼭 느껴올며 몸부림치는 관린을 여겨보시던 선생님께서 강반석어머님에게로 엄한 눈길을 보내시었다. 어머니의 두눈에서도 맑은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별안간 가슴이 찢릿해 움을 느끼시며 두눈을 지그시 감으시었다.

지금껏 생활해 오시면서 자신께서 하시는 일에는 언제 한번 반대의사를 표시해 본적이 없으시고 눈물은 더더욱 보인적 없으신 어머니이시었다.

문득 어린신 아드님을 만경대로 보내자고 하셨을 때 놀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시었다. 열두 살밖에 안되는 어린신 아드님을, 그것도 두 나라지경의 머나먼 천리길에 홀로 떠나보내려 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그리도 애처로와하고 슬하에서 떼놓기 그리도 힘들어 하시면서도 어머니께서는 다른 말 한마디 안하시고 밤을 새우며 아드님께서 입고가실 두루마기를 지으시었다. 한뼘한뼘 바느질을 하시다가는 깊이 잠드신 아드님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당분간이라지만 이제 떠나면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기약할수 없는 사랑하는 아드님의 모습을 점도록 내려다보곤 하시던 어머니의 눈가에 소리없이 고여 오르던 맑디맑은 그 눈물...

모두들 잠드신줄 알고 조용히 눈물지으시는 어머니를 보시며 선생님께서는 가슴이 뻘근해 움을 어찌할수 없으시었다.

선생님께서 평양감옥에 갇혀계실 때 어린신 아드님과 함께 면회오시여 고문으로 상한 모습을 보시고 억이 막혀 하시면서도 눈물 한방울 보이지 않으시던 강의한 어머니이시었다.

오히려 선생님께서 체포되신후 조직을 지켜내기 위해 하고있는 일들을 자신께서만 알아들을수 있게 말씀하시며 힘을 주시던 어머니이시었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어머니께서 하신 일과 함께 어린신 아드님을 감옥에까지 데리고 오신 속깊은 마음을 헤아려보시며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끼시었다. 《지원》의 큰 뜻을 다시금 더욱 굳게 다지시었다. 그러시면서 큰 뜻을 품고 나선 남편에게 힘을 주기 위해 애쓰시는 어머니의 가슴속에 지금 얼마나 많은 피눈물이 고였겠는가를 생각하시었다.

그렇게 남편의 마음과 남편이 하는 일들을 깊이 이해해주고 받들어주고 대신해주던 어머니이시었다. 어떤 때에는 한밤중에 연락도 가시고 위험을 무릅쓰고 무기와 탄약도 운반해오시고...

만경대에서 강동으로, 중강으로, 팔도구로... 언제 한번 단란한 생활을 못하시고 나라를 위한 싸움길에 나선 남편과 동지들의 시중을 들어주느라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시면서도 얼굴색 한번 달리해본적 없으신 미더운 동지... 지금껏 살아오면서 남편의 의사는 법처럼 존중해 오신 어머니께서 지금은 완강히 도리머리를 하며 눈물로 하소하시고있다.

《여보, 제발 저의 말을 들어주세요. 그러시다가는 영영 쓰러지실수 있어요.》

그렇다. 이러다가 정말 몇날 못가 쓰러질수도 있다. 그러나 쓰러진대도 가야 하는것이 바로 이 길이 아닌가.

선생님께서는 리관린이가 북대평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릴 때 벌써 그것이 왜놈들의 악랄하고도 비열한 모략임을 꿰뚫어보시었다. 이번에 체포되어 호송되실 때 연포리주막집에서 순사놈들이 술에

취해 지껄이는 말을 통해 왜놈들이 독립운동가들의 리간을 조성하기 위해 얼마나 날뛰는가를 더욱 똑똑히 아시게 된 선생님이시었다. 왜놈들은 자기네 밀정들을 비적들속에 침투시키고 그들이 독립군행세를 하면서 다른 독립군을 습격하거나 독립운동자들을 테로하게 하고있는것이다. 그 수법들이 참을수 없이 교활하고 악랄했다.

바로 박사령네 모연공작조를 습격한것도 그놈들이 한짓이 틀림없었다. 놈들의 모략을 까밝히고 독립운동의 단합을 이룩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로 되는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박사령이 놈들의 간계에 속아넘어가 리성을 잃고 분별없이 제 동료들에게까지 마구 총질을 해대고있는것이다. 사태가 매우 험악해지고있었다. 이번 일은 비록 최사령과 박사령네 부대들사이에서 일어났지만 지금 다른 부대들에서도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고있었다. 독립운동은 사분오렬될 위기에 처했다. 독립운동가들의 서로 다른 출신과 경력의 차이에서 오는 쓸데없는 자기 우월감과 자존심, 독단과 편견, 오해와 불신, 자기 본위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감정마찰에 왜놈들의 마수가 깊숙이 뻗쳐들어오고있다. 순간도 지체할수 없다. 분렬의 자그마한 요소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가야 한다. 이 길이야말로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독립하는 길과 잇닿은 독립운동의 단합을 위한 길이기때문이다.

문득 고향 만경대를 떠나실 때 지어 읊으신 시 한 구절이 생각나시었다.

나라의 독립을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리  
몸이 찢겨 가루되여도  
광복의 한길에서 굴함없을줄  
동포야 믿어다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그때의 격정이 되살아옴을 느끼시며 어머니를 돌아보시었다.

《여보 당신의 그 심정을 내가 왜 모르겠소. 내 몸상태는 나도 잘 아오. 사실 이 몸이 다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자면 1년, 아니 일생이 걸려도 모자랄수 있소. 그렇다고 치료만 받고있을수야 없지 않소. 이 몸이야 이미 독립운동에 바치기로 결심하고 나선 몸이란걸 당신도 잘 알지 않소. 가야 하오. 저마다 개인사정이 있다고 미루기 시작하면 그만큼 광복의 길이 멀어지게 되오. 그런 보신적인 행동은 이미 독립성전에 피를 바친 렬사들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거요. 어서 준비해주오.》

애절한 눈길로 김형직선생님을 쳐다보시던 강반석 어머니께서는 더 어쩔수 없는듯 자리에서 일어서며 갈리신 어조로 관린에게 말씀하시었다.

《관린이, 어서 나가서 말파리를 준비하라구.》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어머니를 놀라서 울려

다보 던 관린이 급기야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우며 밖으로 달려나갔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말코지에서 두루마기를 벗기는 강반석어머님을 후더운 눈길로 바라보시었다.

《여보, 정말 고맙소.》

#### 4

리관린은 울면서 말파리를 몰아가고있었다. 손등으로 연방 눈굽을 훔치면서 채찍을 휘둘렀다.

이처럼 병석에 계시는 선생님을 모시고 이처럼 눈보라 휘몰아치는 겨울날에 이처럼 멀고 위험한 길을 가게 될 날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리관린이었다.

《김형직선생님을 잘 모시고 받들어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 무산대중이 잘사는 문명국을 세울수 있다.》

이것은 일찌기 리관린이 평양여자고등보통학교 기예과에 다닐 때 김형직선생님을 뵈옵고 《지원》의 뜻을 배우면서 가슴속에 간직한 신념이였고 진리였다.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조선국민회에 들고 지하활동을 하면서 그 신념은 더욱 굳어졌고 진리는 불변의것으로 되었다. 그때부터 관린은 김형직선생님께서 하라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하였다. 평양에 가라면 평양에 가고 서울에 가서 누구를 데려오라면 놈들에게 잡혀 벌의별 고생을 다하면서 도 기여이 임무를 수행하군 하였다. 의주, 삭주, 초산, 강계, 벽동, 회령 같은 북부국경일대와 간도지방은 물론 순안, 강동, 은 룰, 해주를 비롯한 서선지구와 멀리 경상도까지도 기꺼이 다녀오군 했다. 관린은 그 어디를 가든 선생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일해왔으며 특히 선생님을 모시고 다닐 때에는 그이의 신변호위에 각별히 관심을 돌리군 하였었다.

그렇게 선생님을 받들어진 자기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렇게 엄동설한에 날저무는 수림속 험한 길로 병석에 드신 그이를 모시고 가지 않으면 안되는가...

생각할수록 박사령네가 패씼했다.

선생님께서 가끔 기침을 하실 때마다 그 소리는 가슴속에 파고들어 심장을 한조박한조박 저미여내는듯 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면서 날씨는 점점 뭉뚝졌다. 관린은 송곳으로 찌르는듯 하던 얼굴이 갑자기 뻗뻗해와 한손으로 얼핏 이마와 볼을 쓰다듬었다. 이마와 광불 그리고 턱이 나무판대기를 붙여놓은듯 평평 얼었다. 관린은 당황하여 선생님을 돌아보았다. 선생님의 신상이 몹시 걱정스러웠다.

《선생님, 이제라도 돌아갑시다. 예?》

기침을 몹시 꺾던 선생님께서 한손을 내저으시었다.

《안되오. 어서 가자구.》

《선생님! 그럼 불이라도 좀 쪼이고 갑시다. 전 정말 이대로는... 더는 못가겠습니다.》

리관린이 울음섞인 소리로 애원하며 제잡담 말파리를 멈추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어쩔수 없으신듯 《그럼 잠깐 불을 쪼이고 가자구.》하며 수궁하시었다.

관린은 어두운 수림속을 뛰어다니며 삭정이들을 그러 모았다.

잠시후 길옆 수림속에서는 모닥불이 타오르기 시작 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타오르는 모닥불앞에 앉으시여 삭정이를 한가치 한가치 집어넣는 리관린을 물끄러미 바라보시었다. 연기를 피하느라 손으로 눈을 가리우기도 하며 불을 돈구느라 애쓰는 그를 보시느라니 가슴이 찢릿해오시었다.

삭주에서 여러 정보의 땅과 산림과 초가이기는 하나 10칸이나 되는 집을 쓰고 자작농사를 하는 중산층의 가정에서 태어난 처녀... 이 관린이기도 재산이나 배경을 보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수 있었다. 그러나 글공부나 했다는 처녀들이 개화바람이 나서 신녀성행세를 하며 돌아가는 이때 이 관린이는 남북에 룽혈포를 차고 독립운동에 나섰다. 저처럼 예쁘고 사랑스러운 처녀, 꿈무늬를 따라다니는 총각들을 때버리느라 애를 먹으면서도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호강할수 있는 길이 아니라 총소리 우뢰치는 전장을 종횡무진하며 오로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이리도 애타게 뛰어다니는 열혈의 투사... 모두가 이 관린이처럼 애국의 길에 한몸을 깡그리 바쳐 나신다면 나라의 독립도 빨리 되련만...

선생님의 눈길을 느낀듯 관린은 얼핏 고개를 돌리더니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선생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껏 선생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왔다는 제가 제구실을 못해서 선생님께서 이런 힘든 걸음을 하시게 하였으니...》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 저으시었다.

《관린이, 내 지금껏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아오?》

《예?》

리관린이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관린이가 올려놓은 삭정이에 불이 달리는것을 보며 나직이 말씀을 이으시었다.

《모두가 관린이처럼 독립운동에 한몸을 그대로 바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생각을 했소. 개개의 삭정이를 헤쳐놓은채로 불붙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모아 놓고 불을 달면 쉽게 모닥불을 피울수 있거든. 여기에 나무가지를 넣으면 넣을수록 불길은 점점 더 세차게 타오르고... 불길이 세차지면 쉽게 끌수도 없지. 리치는 단순한데... 어째서 사람들은 그걸 리해하지 못할가?》

《선생님!》

관린은 무엇인가 심중한것이 안겨오는듯 잠시 불

무지를 바라보다가 큰숨을 내쉬었다.

《선생님 말씀은 정말… 생각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 박사령네 <형제애> 같은 것들은 도저히 불을 붙일 수 없는, 썩은 물에 푹 젖은…》

선생님께서는 고개를 가로 저으시었다.

《불길만 세다면 젖은 나무도 쉽게 불이 당기는 법이지…》

《예?》

관린은 놀란 눈길로 선생님을 쳐다보았다. 선생님께서는 손등으로 입을 가리운 채 기침을 몇 번 짓고 나서 의미 심장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어쨌든 박사령네 <형제애> 들도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저 총을 들고 나선 사람들이 아니겠소.》

관린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는 기색이더니 이어 진저리를 치듯 몸을 으시시 떨었다.

《선생님, 그 사람들은 이제 안됩니다. 이제 완전히 비적이나 같습니다. 유종삼이가 어떤 훌륭한 청년입니까. 그런 사람을 눈 깜빡하지 않고 살해한 그들이 과연… 선생님, 그 유종삼씨가 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저주했겠습니까. 난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리관린의 완강한 말을 들으시자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또다시 한숨을 지으시며 불무지에 다른 작정을 더 없으시었다.

《유종삼청년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랐겠는가…》 하고 되뇌이시다가 흐린 눈길을 드시었다.

《참, 지금 그 청년의 시신이 살해된 그 언덕에 있다고 했지?》

리관린은 목이 꺾 메여올라 먼저 머리를 끄덕이고 서야 겨우 말씀드렸다.

《그렇습니다. 박사령은 그 습격자들을 내놓기 전에는 시신도 찾아가랄 수 없다면서… 정말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더는 참으실 수가 없어 자리에서 일어서시었다.

《갑시다.》

리관린이 당황해서 일어서며 그이의 앞을 막았다. 울먹이며 말씀드렸다.

《선생님, 이 밤엔… 안됩니다. 날이나 밝은 다음에…》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그의 어깨에 한손을 얹으시며 갈린 어조로 안타까이 말씀하시었다.

《관린이, 이러지 마오. 우린 가야 하오. 유종삼이가 우리를 기다리고있단 말이요》

《선생님!》

관린은 목메인 소리를 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더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 5

관린은 김형직선생님께서 량권의 총구가 다같이 겨누고있는 그 언덕으로 가실 줄은 정말 몰랐었다. 날이 희분해오고있는 새벽, 그 언덕으로 곧장 가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유종삼의 시신 앞에 이르시자

억이 막히신 듯 아무 말씀도 못하시었다.

새벽빛속에 지팡이를 짚으시고 두루마기자락을 바람에 날리시며 이윽도록 유종삼의 시신을 내려다 보시는 김형직선생님의 안광에는 비분과 증오의 번개가 번뜩이고있었다.

리관린은 가슴을 조이며 그이의 폭탄선언을 기다렸다.

아, 사랑하는 동지, 것처럼 아끼고 키우려던 사랑 하는 전우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던 말인가.

징벌을 내리시리라, 벼락을 내리시리라. 우리 배달민족의 허울을 쓴 이런 원수들을 그래 내 한두놈만 보아왔던가, 저 섬나라오랑캐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반역의 무리들을… 관린은 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쥐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무릎을 꿇으시고 고인을 품에 안으시었다. 그러시는 그이의 랑볼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리관린은 가슴이 터지는 듯 했다. 선생님을 모셔오면서 처음 보는 눈물이기 때문이었다. 것처럼 강의하신분,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비판이나 눈물을 모르시던분…

아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관린에게 푹 갈린 어조로 나직이 이르시었다.

《관린이, 박사령에게 가서 이르라구. 빨리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오라구.》

《예?》

관린이 자기 귀를 의심하며 눈을 크게 떴다.

《저… 박사령에게 말입니까?》 하고 조심히 되물었다.

《그때… 빨리 갔다오우. 우리 종삼이가 그간 얼마나 추웠겠소.》

순간 관린은 코허리가 찡하고 매워오는 것을 느꼈다. 눈물을 삼키며 돌아섰다. 허둥지둥 언덕을 내려다가 놀라서 주춤 멈춰섰다.

뜻밖에도 그 텅석부리를 비롯하여 자기를 추격해 왔던 박사령네 독립군대원들이 앞에 서있었기 때문이었다. 관린은 분노에 찬 눈길로 그들을 쏘아보았다.

《당신들은… 당신들은 뭐예요?》

텅석부리가 울분을 터뜨리듯 맞받아웨쳤다.

《우리는 당신을 놓아준 덕분에… 밤새… 저 사람보초를 섰단 말이요. 이 추운 밤에… 얼고 떨면서…》

그 말은 마침내 리관린의 분격을 터뜨렸다.

《뭐예요? 저 사람보초? 시신도 안장 안하고… 당신들도 사람이예요? 가자요. 박사령께 가잔 말이예요. 김선생님께서 찾으신단 말이예요. 빨리요.》

김형직선생님께서 오셨다는 말에 텅석부리가 목을 찢끔 움츠렸다.

이윽하여 박사령과 《형제애》를 위시하여 독립군대원들이 언덕위로 우르르 올라왔다.

그때까지도 유종삼을 안고계시던 김형직선생님

게서 얼굴빛이 검검해서 다가온 박사령에게 안타까운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이 청년은 왜놈들을 내쫓고 나라를 독립하는 싸움에 나서겠다고 해서 내가 저 황해도에서 데려온 사람ियो. 그런데 이 청년이 왜놈들의 총이 아니라 제 사람들의 총에 맞아 이렇게 되었소.

박사령, 내 한가지만 물읍시다. 이 청년이 죽을 때 무슨 말을 했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이요?》

박사령이 검검해진 얼굴을 숙이며 더듬거렸다.

《저. 최사령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더러 눈이... 멀었다고...》

《그럼 처음 당신네들을 찾아왔을 때는 무슨 말을 했소?》

또다시 엄하게 울리는 그이의 물으심...

《저... 그때도... 역시 그런 말읍...》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억이 막혀 고개를 돌려 다시 유종삼을 내려다보시었다.

《사람은 다른 때에는 몰라도 죽을 때에만은 진정으로 속에 있는 말을 터쳐놓는다고 했소. 그런데 이 청년은 평시에도 죽을 때에도 한가지 말만을 하지 않았는가. 당신들은 그래도 이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겠소?》

《그렇지만... 그렇지만 저 최가네... 아니 최사령네 아이들이... 우리... 나의 <동생>을 죽이고 군자금을 빼앗았던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죽이 답답해오시여 두루마기의 목깃을 헤쳐놓으시었다.

《당신들은 어떻게 최사령네가 습격했다고 믿는 거요. 그대 당신들은 그 습격자가 했다는 말이 정말인것 같소? 실지로 군자금이 탐나서 습격했다면 자기가 누구네 부대라고 밝힐것 같은가 말이요. 아무리 지난 기간 이런저런 일로 등을 돌려대였었다 하더라도 나라를 독립하자고 독립운동의 한길에 총을 들고 나선 사람들이 서로 죽일대기를 할수 있는가. 당신들은 지금 원썬놈들의 간계에 속아넘어가고있소.》

《예?》

박사령이며 《형제패》들이 눈이 둥그래져서 없이 그이를 쳐다보았다.

《설마... 우리가...》

《그건 이제 머지않아 꼭 밝혀지게 될것ियो. 나는 그렇게 믿소. 그대 그런데도 원썬놈들에게 속아 제 민족끼리 죽일 내기를 한다면 좋아할건 왜놈들뿐이 아니겠소.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푼두푼 군자금을 모아 바치면서 일구월심 나라의 독립만을 기다리던 백성들은 또 얼마나 당신들을 저주하겠소. 용서하지 않을거요.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와 싸워 나라를 독립하자면 우리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요. 모든 개인적감정은 뒤로 미루고 민족이라는 대전제 밑에 일치단 결해야 침략자들과 싸워이길수 있는거요. 바로 이 유종삼청년도 그 길에 한몸을 서슴없이

내댄것이 아니겠소. 그런데도 시신을 이렇게 찬바람부는 언 땅에 그냥 둘수가 있겠는가. 그 삽과 곡괭이를 가져오시오. 나는 이 청년을 고이 안장하고 묘역에 비문을 크게 세우고싶소.》

《김선생님!》

삽자루와 곡괭이자루를 움켜쥔 독립군대원들이 몸을 우들우들 떨며 목메여 그이를 불렀다.

박사령도 《형제패》들도 얼굴색이 질린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박사령, 이 청년이 지금껏 언 땅에 누워있었는데... 불을 피워야겠소. 그리고 관린이, 가서 최사령을 오라고 하요.》

관린은 눈물을 삼키며 달려갔다. 최사령을 데리고 그 눈보라치는 언덕으로 올라오는데 그곳에서는 우등불이 황황 타오르고있었다.

관린은 타래치며 타오르는 우등불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불, 불, 불...

그렇다. 선생님은 정녕 불이시였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온몸을 깡그리 불태우는 불이시였다.

문득 어제밤 모닥불앞에서 하신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을 치며 되살아올랐다.

《...개개의 악정을 헤쳐놓은채로 불붙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모아놓고 불을 달면... 여기에 나무가지를 넣으면 넣을수록 불길은 점점 더 세차게 타오르고... 불길만 세다면 젖은 나무도 쉽게 불이 당기는 법이지...》

관린은 입술을 깨물었다.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가. 자기 감정, 흥분, 분노... 개인적인 그 모든것을 민족이라는 대전제에, 민족단합이라는 그 불길에 왜서 합류시키지 못했던가. 김형직선생님께서 달려가기전에 왜서 이 북대령에서 한몸 서슴없이 바쳐 이 문제를 풀 생각을 못했던가. 나 역시 자기본위적인 사고방식, 오해와 불신... 그 흐린 물에 젖어 민족단합을 먼저 생각지 못했기때문이 아니겠는가. 아 나같은것들때문에 김형직선생님께서 더욱 이 험한 길을 오시게 된것이 아니겠는가. 최사령이나 박사령이 아니라 지금껏 선생님을 모셔왔다는 이 리관린이때문에...

리관린의 눈앞에는 문득 선생님댁을 떠나올 때 어머님께서 누가 불세라 입술을 깨물며 소리없는 울음을 삼키시던 모습이 떠올랐다.

관린은 목메여 속으로 부르짖었다.

《사모님, 이 불민한 처녀를 꾸짖어주세요. 그러나 우리같은것들이 아무리 뛰어도 선생님의 이 한 걸음을 대신할수 없으니 어찌면 좋아요.》

리관린은 눈물이 가득 고인 눈길을 들었다.

언덕우에서는 불이 황황 타오르고있었다.

불, 불, 불...

그 불빛을 타고 아침해가 떠오르려는지 동녘산발에 붉은 노을이 비끼기 시작했다.

## 《지원》

박 두 일

하루일을 끝마친 즐거운 저녁.

나는 옛 성터가 바라보이는 대동강기슭을 따라 퇴근길에 올랐다.

싱그러운 봄바람이 강기슭에 줄지어 늘어선 버드나무의 가지들을 가볍게 흔들며 봄날의 새싹을 움뚾우고 있었다.

선명한 단청으로 고색을 자아내는 련광정주위에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웅성거리고있었다.

무슨 일인가 하여 가보니 평양학생소년궁전 서예소조원들의 붓글쓰기가 한창이었다.

《총대》

《강성대국》

《선군정치》

나 어린 학생들의 숨씨이건만 힘있고 기백넘치는 글획과 거기에 담겨져있는 깊은 뜻으로 하여 보는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나는 한 서예소조원의 붓글쓰는 숨씨에 이끌려 거기에 눈길을 주었다.

자그마한 손에 먹즙을 한껏 머금은 붓을 틀어쥐고 박력있게 휘두를 때마다 금시 물속에서 꿈틀거리며 솟구쳐오르는 룡마냥 힘있는 글발이 종이위에 살아올랐다.

《지원》

나는 나 어린 학생의 단뽕질숨씨도 놀라왔지만 글에 담겨있는 심원한 뜻이 가슴에 스며들어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20세기초,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하여 《지원》의 뜻을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험난한 력사의 새벽길을 헤쳐가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

도탄에 빠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며 싸움에 나섰던 수많은 열혈지사들이 일제의 야수적인 탄압만행에 기가 꺾이여 주저앉아 갈 길 몰라 가슴을 허비며 통탄만 하고있을 때 김형직선생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지원》의 사상, 그것은 개인의 영달이나 립신양명을 녀두에 둔 세속적인 인생교훈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관이며 대를 이어가며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광복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면서 부모님들앞에 이렇게 말씀

올리시였다.

《나라를 독립시키지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내 몸이 찢기여 가루가 될지언정 일본놈들과 싸워이겨야 하겠습니다. 내가 싸우다 쓰러지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싸우다 못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여야 합니다.》

자신께서 싸우다 쓰러지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싸우다 못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이 얼마나 원대하고도 강직한 뜻이 어린 말씀인가.

이것은 자기 한몸의 안락과 행복은 모두 뒤전에 미루고 오로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몸바치기로 결심한 불굴의 혁명투사만이 다지실수 있는 결의인것이다.

하여 순화학교와 명신학교를 비롯하여 김형직선생님께서 가시는 곳마다에는 숭고한 뜻이 어린 《지원》의 글발이 나붙었고 선생님의 소원은 어린 시절부터 《지원》의 원대한 뜻을 안으시고 성장하신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이룩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남기신 《지원》의 숭고한 뜻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계시여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날로 더욱 강화되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강성대국의 휘황한 앞날을 그려보며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지원》!

참으로 새기면 새길수록 그 뜻이 원대하고 바라보면 볼수록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안겨주는 불멸의 글발이다.

년대와 년대를 넘어 이어지는 숭고한 뜻어린 《지원》의 글발!

오늘 우리 혁명은 김형직선생님께서 력사의 새벽길우에 닦아놓으신 《지원》의 터전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기둥으로 세우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선군혁명의 붉은기를 펴벌 날리며 력사의 준엄한 광풍을 맞받아헤치며 강성대국의 찬란한 미래로 확신성있게 전진하고있다.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

오늘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의 기치로 되고

있는 저 구호들에는 김형직선생님께서 높이 드시었던 《지원》의 숭고한 뜻이 어려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수십년간 철창속에 갇혀 갖은 악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혁명적신념을 지키고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비전향장기수들, 타오르는 불길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구호나무들을 구원하고 생을 마친 영웅전사들... 참으로 오늘 우리 인민들이 발휘하고있는 불굴의 투쟁정신도 《지원》의 원대한 뜻에 그 뿌리를 두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붓글씨를 새겨가는 저 나 어린 학생들의 심장속에도 김형직선생님께서 남기신 《지원》의 그 숭고한 정신이 뜨겁게 간직되어있으리.

한줄기 시원한 봄바람에 실려 유보도꼭에서 손풍금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학생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봉화산 기세있게 여기 솟았고  
열과강이 흘러내려 감돌아드는  
우리의 명신학교는 반석우에 터를 닦고  
높이높이 솟아서 영원무궁 지나도록 길이 빛나리

김형직선생님께서 몸소 지으신 《명신학교교가》이다. 나도 학창시절 동무들과 함께 봉화혁명사적지를 찾아가며 이 노래를 자주 불렀었다.

나는 노래소리에 이끌려 대동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성벽으로 다가갔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천연바위를 다듬어 쌓은 성돌들에도 해묵은 이끼가 덮였다.

그러나 세기를 넘긴 오늘에도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으신 노래는 세대를 이어가며 불리워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 우리는 지난날에도 그러했던것처럼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지원》의 뜻으로 보다 휘황한 미래를 확신하며 싸워 승리할것이며 그 찬란한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이 하늘아래 이 땅위에 펼쳐놓을것이다.

나는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가는 하늘가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저녁노을이 하늘을 금빛으로 물들이고있는 그곳에서는 주체사상탑의 봉화가 활활 타오르고있었다.

## 병사와 고향

### 고 남 철

천리길을 달려온 제대병사  
땀젖은 군모를 벗고 잠시 쉰다  
동구길 첫어구  
저녁노을 휘감고 설레는  
한그루 백양나무앞에

김춤을 논두렁에 걸쳐놓은 실참  
젖먹인 아들을 저쯤 세우고  
엄마가 손벽치며 찾을적에  
꼭 꼭 짊어가던 그 시절의 발도장이  
네 뿌리흙우에 생생하게 보여와

우듬지에 걸린 하얀 연을 내리우려  
아들은 무릎살 터치며 오르고  
어머니는 두손으로 가슴쥐고 울려보던 백양나무  
그날처럼 고개젖혀 바라보는 하늘가엔  
오늘도 날리는 하얀 연 하얀 연

어머님과 선생님 그리고 고향사람들  
바래주던 손길은 연무에 녹아들어오  
키를 솟구며 따라오던 백양나무  
오늘은 병사를 기다려 서있은듯  
마중하여 동구길에 나온듯

철갑모에 불린 허연 성에를 툭 툭 털고  
새날을 총창으로 들어올린 새벽마다

저 멀리 고향을 바라볼 때면  
푸른 하늘 파악 채우며 날아오던 하얀 연  
백양아 네 아지에 정히 매여진  
병사의 마음의 연줄은 길었던가 짧았던가

어머니대지의 숨결을 안고오던 하얀 연이어  
병사의 군공을 신고가던 푸른 잎새여  
심장에 뿌리박아 락엽진적 없는 병사의 백양은  
전호가에 눈오는 밤이면 눈가려 아지 설레고...  
비오는 새벽이면 비가려 푸른 잎새 펼치고

기어이 때려눕혀야 하는 원쑤 미제앞에  
무자비한 총성만이 말을 하는 최전연  
원쑤의 무리들 불질하며 달려드는 그 밤  
총대를 비껴들고 전호가에 나설 때  
병사와 함께 백양나무 너는  
고향의 모습으로 함께 일어섰거니  
병사는 푸른 백양  
푸른 백양과 한모습

동그란 은빛잎새 천만잎새  
머리에 잔등에 하염없이 내리고...  
병사는 금벌이 절렁이는 가슴을 맞대인다  
아름이 넘고 넘은 백양을 두팔벌려 안는다  
아, 병사- 고향!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제일이며 사회주의를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라는것을 절대적진리로 간직하여야 한다.

공동사설에서

평론

## 선군 소설문학의 매력

김선일

선군시대 소설문학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읽으면 다시 또 보게 되고 두고두고 생각하게 되는 작품, 성격과 생활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심오한 생활의 진리를 강렬한 정서적흥분속에 받아안게 되는 작품은 어떤것인가.

지난해 《조선문학》잡지에 실린 단편소설들을 두고 이 문제에 대해 말해 보려고 한다.

### 위인적품모에 대한 형상과 생활묘사

지난해 《조선문학》잡지에는 수령형상 단편소설들이 적지 않게 실렸다.

아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한 단편소설 《타격》(7호 박운), 《두번째 보고서》(1호 오광철), 《새날의 축복》(5호 박혜란), 《원정대 1번수》(9호 김청수), 《유서깊은 골짜기》(4호 문상봉) 등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품모를 형상한 단편소설 《눈부신 해돋이》(10호 리한호), 《오늘이 가면》(12호 박운) 《자남산은 노래한다》(6호 박일명), 《세월의 언덕넘어》(2호 배경휘) 등은 작가의 시점과 등장인물의 시점을 교차시키면서 위대성형상창조에서 일련의 창작성과를 이룩한 작품들이다.

이외에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품모를 형상한 단편소설 《래일》(12호 조삼호)과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의 품모를 형상한 단편소설 《력사의 메아리》(3호 박두일) 등은 주로 상대인물의 체험세계를 위주로 하면서 위대성형상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절세의 위인들의 형상창조에 바쳐진 이와 같은 작품들은 우리 혁명의 개척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역사적기간에 있었던 잊지 못할 사실들을 취급하면서 선군혁명의 역사적뿌리를 밝히고 우리 당 선군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 그 위력의 원천을 다양한 각도에서 예술적으로 해명하고있다.

이러한 창작태도와 자세는 수령형상문학을 기본으로 하는 선군혁명문학건설에서 적극 살려나가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작품들에서 수령의 위인적품모를 격이 있게 그리지 못하고 수령형상이 격

식화의 경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수령의 위인적품모를 그 위대성에 어울리게 무게 있게 그리면서도 현실에서 살아 숨쉬고 활동하는 인간적품모를 다같이 생동하게 보여 주겠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작가는 수령이 개인이 아니라는 사상의 본질을 똑바로 알고 작품에서 수령을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중심으로, 력사발전과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특출한 위인으로 형상의 중심에 내세우고 그의 탁월한 령도자로서의 위대한 품모와 현실에서 살아 숨쉬고 활동하는 위인으로서의 인간적품모를 다같이 생동하게 그려내야 한다.》

탁월한 령도자로서의 수령의 위인적품모와 현실에서 살아 숨쉬고 활동하는 수령의 인간적품모의 유기적결합.

여기에 수령형상문학에서 해결해야 할 근본문제가 있으며 그 매력을 담보하는 요인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단편소설 《타격》의 창작성과를 분석해 보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대미와 지성도가 결합된 기름진 형상화폭을 펼쳐놓은 이 소설은 감칠맛이 있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품모를 단편적인 형식에 훌륭히 담아낸것이다.

소설에서 형상의 기본선은 심오한 사색과 백두의 담력으로 조국해방전쟁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전략전술적방침을 내놓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품모를 보여주는데로 지향하고있다.

작품에 등장인물은 많지 않다.

위대한 수령님과 정전담판 우리 측 수석대표인 남일과의 관계가 기본이다. 여기에 보위상 최용건, 부관장 리을설 그리고 공정수 등이 등장한다.

작품에는 그 어떤 비상한 사건도 없다.

정전담판장과 최고사령부에서 벌어진 평범한 생활에 대한 묘사가 전부이다.

하지만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심오한 사색의 세계를 깊이있게 펼쳐보이면서 탁월한 군사전략가로서의 위인적품모를 숭고한 인간적품모와의 조화로운 결합속에서 훌륭히 보여주고있다.



아무런 결실도 없이 공회전만 거듭하는 정전담판, 전쟁의 결속을 위한 똑똑한 타결책을 찾지 못한 남일의 심중은 무겁기만 하다.

조선전쟁의 운명을 두고 세계는 정전담판장을 숨죽이고 지켜보면서 제나름대로의 방안을 내놓기도 한다.

북조선의 한결음의 물러섬은 미국의 두걸음, 세걸음의 양보를 가져올 것이며 그 즉시로 전쟁의 마차는 멎을것이라고 하는 서방통신들, 우리측의 약간한 양보 기색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권고하거나 전쟁의 운명을 두고 초조와 불안감에 빠진 주변나라들...

우리 내부의 견해도 각이하다.

미국놈들이 전쟁에서 맥이 빠질때로 빠진만큼 이제 머리를 수그릴것이라고 보는 락관주의, 조금도 양보없는 강한 인내성이 필요하다는 주장, 이와는 좀 다르게 형제국가들의 의견대로 일종의 양보분위를 보이는것이 적합할것이라는 목소리...

파연 전쟁의 결속을 위한 방도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 력사적과제는 비상한 사색과 탐구, 강철의 의지와 담력이 요구되는것이였으니 그것은 오직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해결할수 있는 것이였다.

작품은 여기에 형상의 초점을 두고 수령의 위인적 풍모를 격식화하거나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풍부한 생활화폭속에서 진실하게 그려내였다.

사실 지난해 창작된 일부 작품들에서는 수령의 위대성을 생활적으로 깊이 파지 못하여 형상이 단조롭고 딱딱한 편향도 없지 않았다.

단편소설 《유서깊은 골짜기》, 《자남산은 노래한다》 등은 력사적사실에 충실하려고 한 의도는 좋았으나 아직 인간학적으로 형상이 무르익지 못하다 보니 풍부한 생활적체험과 정서적감흥속에 위인적풍모가 안겨오지 못하는 부족점도 나타났다. 흔히 수령형상작품이 딱딱하고 격식화되는 경우를 보면 수령을 주위 인물들과의 공식적인 관계에서만 그리고 생동한 생활세부를 찾아 그리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정황속에서 숨쉬고 사고하는 위인의 형상을 그리지 못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이것은 수령형상작품에서 위인적풍모에 어울리는 세부묘사, 생활묘사에 힘을 넣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위인의 품격에 어울리는 세부나 생활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같은 현상, 같은 대상을 놓고도 여느 사람이 미처 보지 못하고 생각못하는 세계를 위인은 보고 느낀다. 바로 이것을 옳바로 그리는데 수령형상작품에서 세부묘사, 생활묘사의 특성이 있는것이다.

단편소설 《타격》에는 《개미전쟁》세부와 배구경기 장면에 대한 묘사가 있다.

장마비에 허물어진 굴을 수리하던 작은 개미들이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침범하려고 달려든 말개미떼들과 싸운다.

어느새 《개미성》주변에는 작은 개미들의 두배가 넘을만큼 큰 말개미떼들이 무수히 죽어넘어졌다.

산책을 하하던 위대한 수령님의 시점에 비껴든 이 흥미있는 세부는 단순한 자연현상에 대한 묘사가 아니다. 이 세부는 전쟁의 승리적결속을 위한 사색의 세계와 하나로 이어진다.

남의 집에 뛰어들어 제편에서 뻔뻔스러운 요구를 들고 나오는 미국놈들과 벌리는 치열한 전쟁과 개미들의 싸움은 의미상 공통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놓고 볼 때 《개미전쟁》은 스쳐지나칠수 없는 소중한 세부이다.

하여 이 세부는 위인의 시점에서는 매우 흥미있는것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작품에서는 배구경기장면 역시 생동하면서도 심오하게 묘사하고있다.

일요일을 리용해서 최고사령부 통신결속소 녀성군인들과 직속구분대 남성 군관들과의 배구경기는 아예 처음부터 승부가 갈라진 셈이였다.

전쟁전 전문선수단 생활경력을 가진 군관들이 들썩이나 있는 남성군인들이 녀성군인들을 이기리라는것은 볼보듯 명백한것이다.

그런데... 경기결과는 정반대였다.

최고사령관동지의 가르치심대로 녀성군인들이 련속 강타를 안기자 직속구분대 군관들은 당황한 나머지 혼란에 빠져 패하고 만다.

이 장면에 대한 묘사 역시 단순한 생활묘사가 아니다. 배구경기장면은 전쟁의 전반적국면을 헤아려보시며 전쟁에 립하는 혁명가들의 참된 립장과 자세를 다시금 정립하시고 승리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사색을 거듭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내면세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고있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의 내면세계와 잇닿아지면서 심오한 상징적의미, 철학적의미를 가진 생활세부를 탐구하여 수령님의 풍모를 인상깊게 묘사하였다. 하여 커다란 공감속에 력사의 진리를 받아안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말씀하신다.

《전쟁의 승리는 오직 정의의 힘, 강력한 혁명무력의 의지와 담력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이건 이 전쟁을 대하는 우리 일군들의 투쟁관, 혁명관문제입니다.

나의 결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지난번의 두차례의 타격전에 이어 전 전선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강력한 타격을 가하자는것을 제기합니다.》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 혁명무력의 강력한 타격에 질겁한 미제는 드디어 손을 들고 정전담판회의장에 나왔던것이다.

이처럼 전쟁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

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수령님의 형상을 통해 심오한 철학적해답을 주었다는데 소설의 성과가 있다.

이러한 작품의 성과는 단편적인 구성과 묘사기교와도 관련된다.

실재한 역사적사건과 인물을 취급하면서도 작가의 사상미학적의도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구성을 치밀하게 조직하고 독특한 묘사기교를 활용한것은 작품의 중요한 특성으로 된다.

공회전만 거듭하는 정전담판장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최후승리를 확인하는 정전담판장으로 끝나게 조직한 소설의 줄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밝히는데서 효과적이었다.

특히 남일대장과 해리슨사이의 《눈의 전쟁》에 대한 묘사는 매우 깊이가 있고 인상적이다.

처음 두시간나마 벌어진 정전담판장에서의 《눈의 전쟁》과 순간적으로 벌어진 마지막 정전담판장에서의 《눈의 전쟁》을 작품에서는 대담한 생략으로 특이하게 형상하였다.

이러한 수법은 천만마디의 말로써도 다 설명할수 없는 정의와 부정의, 승리자와 패배자의 첨예한 대립과 투쟁, 그 결과를 의미심장하면서도 예리하게 밝혀냄으로써 작품의 종자해명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비약의 수법을 대담하게 적용하여 단 두개의 문장으로 된 6절은 형상을 고도로 집약화하면서 그 논리적연관을 빈틈없이 맞물리게 하는데서 매우 시사적이다.

소설이 가지는 매력과 여운은 결코 형상 그 자체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작품은 비록 50여년전의 역사적사실을 취급하였지만 선군시대의 지향과 요구를 훌륭히 구현하였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제격인것처럼 오직 무자비한 타격만이 침략자들의 무릎을 꿇게 하는 유일한 방도로 된다는 작품의 사상적 주장은 오늘 선군시대 혁명의 진리로 안겨온다.

하여 우리는 작품을 통해 단순히 지나간 역사적 현실을 생동한 화폭속에 인식하는것만이 아니라 제국주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대국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비결을 다시금 새겨 안았다는 커다란 흥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작품의 매력을 담보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 시대적성격과 의의있는 문제성

지난해에 《조선문학》잡지에는 선군시대를 반영한 단편소설들이 적지 않게 발표되었다. 많은 작품들이 선군시대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시대가 제기하는 의의있는 사회적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시대와 숨결을 같이하는 새로운 인간성격을 창조하는데 힘을 넣어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아진다.

단편소설 《한생의 밀천》(6호 최영학), 《대하

시간》(8호 오광철), 《이 땅의 아들》(7호 백명길), 《강반의 달밤》(10호 장선홍), 《가을하늘》(11호 팽문희), 《우리 시절의 노래》(11호 리령철) 등은 선군시대현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현실을 반영하면서 새롭게 성장발전하는 인간성격을 창조하는데 힘을 넣은 작품들이다.

이것은 선군시대 인간의 성격발전과정을 단편적인 형식에 담아 밝혀냄으로써 우리 인민의 생활과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는데 이바지하려는 작가들의 진지한 탐구의 결과라고 말할수 있다.

또한 《산화석》(3호 김홍익), 《퇴성나무》(12호 이정옥) 등은 급속히 변화 발전하는 현실에 자기를 따라 세우지 못하여 종당에는 시대의 락오자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인물들의 운명선을 기본으로 하면서 오늘 정보산업시대가 제기하는 사회적 문제를 심각한 교훈속에 밝혀낸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형상에서 일부 부족점들이 있다해도 오늘 선군시대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새시대 인간류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예리하게 밝혀낸데 그 주되는 성과가 있다고 볼수 있다.

단편소설 《나의 시어머니》(10호 장기성), 《어머니의 당부》(6호 장호진)와 같은 작품들은 이 나라 녀성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꾸밈없이 진실하게 그려냄으로써 조국보위초소와 강성대국건설장에서 이룩된 위훈과 기적에는 이 땅의 어머니들의 간절한 념원과 헌신적노력이 깃들어있음을 예술적으로 밝히고있다.

물론 발표된 작품들의 형상수준이 하나같지는 않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찾아보게 되는것은 선군시대의 특징을 생활적으로 파악하고 시대의 높이에 올라선 인간성격을 발견하려는 진지한 탐구적태도이다.

여기서 우선 지적해야 할 작품은 단편소설 《한생의 밀천》이라고 본다.

작품은 오늘의 시대가 제기하는 심각한 문제성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시대의 지향을 체현한 새 인간의 성장과정을 극적정황속에서 밝혀낸것으로써 독자들의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긍정인물을 현실에서와 같이 진실하게 보여주려면 생활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고 단련하여 나가는 그의 성격발전과정을 실감있게 그려내야 한다.》**

긍정적전형을 그리는 경우 그의 형상을 긍정일면만 보여주는데 치우치거나 리상화하려는 경향은 우리의 소설문학이 극복해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사실 결함이 없는 사람이 없으며 다만 누가 그것을 빨리 고쳐나가는가 못나가는가 하는데서 차이가

있을뿐이다. 그러므로 인간성격의 긍정적측면을 쉽게 살피고 그속에서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는데 인간학적품격을 가진 소설을 창작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단편소설 《한생의 밀천》에서 주인공의 성격에 내재하는 두 측면은 매우 예리하게 대립되어있다. 집단과 동지, 조국앞에 가장 깨끗하고 떳떳하게 살려는 공민적량심과 아버지가 먼지를 쓸어모아 얻어낸것에 대한 어지러운 유혹.

여기에는 시대가 제기하는 심각한 운명문제, 사회적문제성이 있다.

노래에도 있듯이 얼마나 준엄한 날들이 이 땅우에 흘러왔는가.

《원수들의 고립압살책동으로 굶으면서 공장을 돌리고 사회주의를 지켜야 하는 어려운 <고난의 행군> 시기》였다.

《매일 매끼 평범하게만 보던 쌀이, 그 한알한알이 얼마나 귀중한가》하는것을 푹푹히 깨닫게 해준 나날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한생을 바쳐 얻어낸것이 한끼한끼가 어려웠던 그 눈물겨운 시기 금석의 한생의 밀천으로 될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그것을 나라에 보탠대야 바다에 물 한방울 떨군 격이겠는데...

하지만 그것보다 깨끗하고 훌륭하게 산 아버지의 량심이, 청년돌격대원들과 집단앞에 떳떳하게 살려는 강렬한 지향이 또한 금석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이전에는 어스듯비슷하던 사람들의 금새가 날날이 갈라지는 시기, 참담고 고귀한 인격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오늘 금석의 내부에 대립되어있는 이 두 세계는 참으로 심각하고 예리한 심리적고충과정을 겪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은 생활발전의 법칙, 성격발전의 합법칙적과정으로 된다.

작품에서는 다만 그 《법칙》을 따를뿐이었다.

행복만을 알고 자라난 주인공이 《갑자기 부닥친 고난의 시기에 주춤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뒤걸음치기도》하지만 종당에는 자신을 이겨내고 선군시대의 높이에 올라선 새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낸 여기에 형상적의의가 있는것이다.

작품의 이러한 창작적성고는 단편적인 기교를 재치있게 살린 측면을 떠나서 결코 생각할수 없다.

장편소설과 달리 생활의 한 단면을 통해 인간과 생활을 보여주어야 할 단편소설에서 이야기를 재치있게 꾸미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이런 생활도 있고 저런 생활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산만하게 늘어놓으면 형상의 초점이 흐려지는것은 물론 단편의 매력을 살릴수도 없다.

그러므로 단편소설창작에서 작가의 높은 창작기교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정황을 잘 설정하는것이다.

지난 시기 창작경험을 보아도 인상적인 정황의

설정을 떠나 단편소설의 성공에 대하여 말하기 곤난하다.

조국해방전쟁시기의 단편소설 《불타는 섬》이나 천리마시대의 단편소설 《길동무들》 등의 실패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정황은 사건을 전개시킬수 있는 구체적조건이며 성격이 뚜렷이 드러나게 하는 실제적인 생활바탕이다.

창작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성격발전의 결정적계기를 지어주는 생활마당을 옳바로 설정하는것이다. 흘러온 생활과 사건이 고도로 집약화되어 성격이 새로운 질적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되는 극적정황을 설정하고 거기에서 체험하는 인물의 심리와 감정의 변화를 그 미세한 색깔까지 섬세하게 그려내야 감명깊은 예술적형상을 창조할수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단편소설 《한생의 밀천》에서는 바로 삶과 죽음이라는 비상한 정황속에 주인공을 세워놓았다.

...

《썩!》

첫 발파가 터졌다.

이어 연방 폭음이 울린다.

고속도로건설장에서 50만산 발파가 진행되고있다.

그런데 한방이 터지지 않았다.

불발?!

그렇게도 가슴 조이고 기다리는데 금석의 갱에서 불발이 생기고야 말았다.

이제 온 돌격대가 손발을 묶이운채 불발이 자연 해제되기를 기다리자면 웅근 열일곱시간이나 기다려야 한다.

하늘땅과 사람이 얼어붙은 정적속에 금석은 숨이 막혀버렸다....

이것은 소설에 설정된 정황이다.

참으로 극적인 정황이 아닐수 없다.

돌격대의 전진을 가로막느냐 아니면 열어나가느냐 하는 이 정황에서 금석은 《숫구치는 비장한 충동》에 온 몸을 떨며 《폭풍에 뿌려지듯 뛰쳐나갔다.》

그때 금석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의 심중에는 과연 어떤것이 소용돌이쳤을까.

작품은 그 한순간에 체험하는 금석의 내면세계, 그의 짧은 인생을 속속들이 파헤쳤던것이다.

흔히 사람은 최후의 순간에 한생의 체험을 다 한다는 말이 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긴장한 정황에서 인물의 체험 세계를 현재와 과거와의 교차속에 다면적으로 파고 들으로써 형상을 고도로 압축시킨 단편적인 기교는 자신을 이겨내고 역센 새 인간으로 태어나는 시대적성격을 그려내는 과정과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다시말해서 조국을 위해 가장 순결한 량심을 바

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기의 모든것 지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쳐 가려는 선군시대 새 인간의 탄생과정에 대한 환희에 찬 노래이다.

그 어떤 선언적인 설명이나 도식적인 논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아숨쉬는 인간성격을 통해 사생결단의 각오를 지닌 선군시대 인간들의 진실한 모습을 그려 낸데 이 작품의 매력이 있다.

깊은 감동과 여운을 주는 작품들가운데는 단편소설 《대학시간》(오광철)도 있다.

작품은 한 처녀과학자의 대학시절을 펼쳐보이면서 오늘 우리의 청년대학생들의 과학탐구의 리상과 목표는 어디에 세워야 하며 지식인들의 도덕윤리관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밝히고있다.

작품은 대조되는 성격과 인상적인 세부를 파고들면서 시대적으로 의의가 있게 문제를 심화시키고있다.

과학은 시간이 다르게 전진하고있는데 아직도 일부 대학생들속에서 대학에서 배워준 학문의 높이에 도달했다는 《만족감》과 스승에 대한 맹목적인 《존경》에 사로잡혀있는 현실을 시대의 높이에서 펼쳐보인데 작품의 문제성이 있다.

의문과 불만족이 없는 고정불변한 대학시간, 전진이 없는 대학시간은 천시간이 흘러갔다고 해도 무의미한것이다.

대학졸업이라는 인생의 출발시간을 과거가 아니라 오늘, 아니 미래의 과학에 맞추어나가는것이 강성대국 건설의 《시간표》이다.

그러니 대학생은 스승에게서 배울뿐만아니라 스승을 따라앞서고 롱가해야 한다. 그것은 죄스러운것이 아니라 법도로, 긍지로 되는것이다.

작품의 문제성은 이렇게 선다.

하여 주인공 정옥은 스승의 지도밑에 완성하였던 학위논문을 포기하고 대학에서 배우지 못한 첨단과학분야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 분발한다.

이처럼 시대의 창공높이 푸른 깃을 활짝 펴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선군시대의 지향과 요구를 구현한 여기에 작품의 성과가 있다.

시대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하기 위한 작가들의 탐구정신은 단편소설 《공채아바이》(10호, 김영근)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작품은 인민생활공채구매사업에 비낀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 공민적자각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 하는것을 형상적으로 밝히면서 사람들이 준엄한 시련의 시기 애국자와 반역자로 갈라지는 그 바탕에는 바로 평화로운 나날 자기 조국, 자기 제도를 위해 얼마나 헌신적이였는가 하는것과 관련된다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반세기전의 《공채아바이》 권오복과 오늘의 《공채아바이》 고삼덕의 성격은 참다운 공민적자각이라는 사회적문제를 두고 대조되면서도 하나로 통일된다.

바로 이러한 형상세계를 통하여 시대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를 예리하게 밝혀낸데 작품의 성과가 있다.

소설에서 비교적 오랜 역사적기간의 인물들의 운명선을 취급하면서도 작품의 기본문제해명에 필요한 생활들만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대담한 비약과 함축의 수법을 리용함으로써 단편적인 특성을 원만히 살려낸 측면 역시 작품의 성과를 담보한 요인으로 된다.

이외에도 토지정리전투장에서 아버지가 지은 죄를 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정력과 노력을 다 바쳐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극적흥미속에 보여준 단편소설 《이 땅의 아들》(백명길) 담담한 필치와 섬세한 묘사기교로 한알의 난알도 허실없이 나라의 쌀독을 채우기 위해 애쓰는 선군시대 농업근로자들의 깨끗한 량심을 진실하게 보여준 단편소설 《가을하늘》(평문희) 등도 선군 시대의 숨결을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있게 담은 작품들이다.

아직도 우리의 눈앞에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선하게 안겨온다. 그들의 얼굴은 각각이다. 하지만 심장박동소리는 하나같다.

시대와 호흡하는 그 심장의 박동소리가 뚜렷한 작품을 독자들은 오래오래 잊지 못해한다.

## 명언해설

《한 나라, 한 민족의 예술의 높이는 그 나라, 그 민족의 정치와 경제, 사상과 도덕의 높이를 짚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나라와 민족의 발전수준과 문명정도가 예술작품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뜻이 담겨져있다.

예술은 형상을 통하여 인간과 그 생활을 전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사회적의식의 한 형태이다. 예술작품에는 그 당시 나라와 민족이 이룩한 모든 성과들이 그대로 반영되며 정치생활과 경제생활, 사상생활과 문화도덕생활 그리고 세태풍속에 이르기까지 인간생활의 전모가 집약적으로 반영된다. 바로 여기에 한 나라, 한 민족의 예술의 높이가 그 나라, 그 민족의 정치와 경제, 사상과 도덕의 높이를 짚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 되는 근거가 있다.

자신보다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서로 돕고 위하는 아름다운 집단주의적소행이 우리 사회에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공동시설에서

단편소설

## 백일홍

권정웅

락석감시원 현우혁은 털모자를 푹 눌러쓰고 눈이 잔뜩 묻은 숨신을 털썩거리며 철쭉길을 걷고있었다. 눈보라는 점점 더 기승을 부린다.

하루 한낮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더니 저녁때에는 난데없이 서북풍이 터지면서 온 꼴안을 발각 뒤집어 놓는다.

전선줄이 몸부림치고 강가에서는 얼음이 쨍쨍 얼어 터진다. 사위는 캄캄하고 눈보라는 촌보를 가릴 수 없이 앞을 흐려놓는다.

현우혁은 선로에 지꽃게 들이쑤이는 눈을 치다가 밤 한시가 실히 넘어서야 일손을 땀다.

7역에서 3키로메터나 상거한 높은 산우에는 눈이 많이도 온다.

장자강과 청천강의 분수령을 이루는 이 높은령마루로 모진 바람이 거슬러올라서는 철길이 뻗은 손가락뿔같은 산골짜기로 용을 쓰면서 냇다 빠져나가곤 한다. 그러면 온 천지가 뒤흔들리는듯 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숲이 흔들리고 산봉우리의 눈은 한알도 남지 않게 언덕진 이 철쭉으로 들이몰리곤 한다.

그중에도 현우혁이가 배치된 0제표지점은 좀 심한 편이었다.

겨울이면 눈보라와 싸워야 하며 여름이면 물과 사래와 싸워야 한다.

예전에 모진 장마가 젖을 때 산이 뭉청 끊어져 내리밀리다가 중간에 걸렸다는 《홀려온 산》 지점은 전쟁때 폭격을 심히 받아 락석사고를 일으키곤 하는 곳이었다.

현우혁은 오늘도 두사람뭇을 하느라고 모진 고생을 했다.

X제표지점을 담당한 감시원이 병으로 강제에 가서 보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기때문이다.

현우혁은 밤12시 평양행려객열차를 통과시키고도 한 시간은 실히 눈을 쳤다. 천메터가 넘는 구간을 몇번이나 왕복하면서 걸싸게 해제끼였지만 워낙 바람이 심해서 돌아만 서면 또 제도루메기되곤 한다. 굴간의 얼음까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우혁은 밤이 들면서부터 더 기운차게 눈을 쳤다. 그바람에 눈보라도 어지간히 기운이 늘렸는지 좀 뜸직해졌다.

철길이 흰히 트이었다.

이쯤하면 서너시간은 실히 견디여냄직했다.

현우혁은 어깨가 느슨하고 속이 출출해나서야 그만 일손을 놓았다.

목덜미가 척척하고 얼굴과 손발이 핫핫 달아난다. 그중에도 오른 다리가 뿌듯하고 오금이 쭉쭉 쑤시어서 견디기 빠근하다. 조국해방전쟁때 파편이 관통한 다리인데 겨울이 되고 또 이렇게 고되게 다루면 아픔이 도져나곤 하였다.

그는 절뚝거리며 징검다리를 건넜다.

그리하여 풀어놓은 땀기오리처럼 오불꼬불한 물줄기를 따라 산 모퉁이 집으로 향하고있었다.

한겨울인데도 장자강상류인 이 강물은 얼지 않고 야무진 소리를 내면서 흘러내린다.

들판우로 난 오솔길은 발을 붙일수 없이 쭈쭈 미끄러진다.

그는 저려나는 다리를 겨우 옮겨놓으면서 한참 걸고있느라니 무심중 집이 너무 멀다는것과 어차피 두일이가 돌아오지 않을바에는 아예 O-X두 제표지점의 중간인 바위굴어구로 집을 옮겨오면 한결 험하게 되리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꼼꼼히 생각하면 이 눈속에 어디다 솔을 붙이며 또 안해가 선뜻 찬성해나설것 같지도 않거니와 두일이가 되돌아올 희망이 없지도 않은것이어서 이사에 대한 생각은 곧 흐리마리해 지고 말았다.

마당에서 발을 탁탁 굴러 눈을 터는 소리가 나자 부엌문이 방싯 열리더니 감장치마저고리를 입은 안해 금녀가 사뿐사뿐 걸어나왔다. 그는 눈가래와 지레대 그리고 연장망태를 받아들면서 어깨의 눈을 털어준다.

《아유, 이 날씨두 온... 왜 이리 늦었어요?》

《아직 기다렸소? 영호가 학교갔다 혼썰났겠는걸.》

《혼썰이 다 뭐예요. 방금까지 아버지 오시는 걸을 친다고 가래를 들고 야단이었는데. 이 마당을 개가 다쳤다우.》

《허허, 참 자식두.》

방안으로 들어간 현우혁은 등잔불부터 뜯구어놓았다. 불줄이 쭉 늘어나자 도배를 한 벽이 눈부시게 희여지고 방안은 한결 더 아늑해진것 같았다.

뒤벽에는 금녀가 손수 수를 놓은 흰 옷보가 걸렸다. 흰바탕에 백일홍이 활짝 피었는데 꽃송이우에는 범나비 한쌍이 나래를 펼치고있다.

옷보에는 잔잔하고 섬세한 금녀의 숨씨가 잘 드러났고 그것으로 하여 방안은 언제나 따뜻한 봄날처럼 아늑하게 느껴졌다.

그래 그런지 현우혁은 어느새 백일홍을 무척 좋아하게 되었고 선반에 없어둔 백일홍씨 봉투를 며칠에 한번씩은 의례히 내려보는 버릇까지 생기었다.

그럴적마다 간절하게 봄이 그리웠다.

아궁에서는 우직우직 뚝나무장작이 타고 솔이 벌렁 벌렁 뚫는다. 금녀는 재빨리 저녁상을 놓았다.

두리반에 두부찌개. 도라지무침, 고사리, 갓김치 그리고 국, 송농들이 챙겨졌다. 현우혁은 한걸음 나앉아 국대접부터 들이마시려 하였다. 그때 금녀는

《여보! 이거...》

하면서 두장의 봉투편지를 상우에 올려놓았다.

현우혁은 국사발을 놓고 봉투를 뜯었다.

한장은 영호담임선생님한테서 온것인데 성적이 좋고 품행도 모범인데 지각이 좀 잦다는 통지고 또한 장은 두일이한테서 온 통사정이었다.

《...고질인 위병이 도졌는데 좀 오랜 치료가 요구된답니다. 그렇게도 극진히 도와주었지만 은혜에 보답 못해 미안합니다. 더구나 나에게 아침저녁을 끓여주셨고 신변을 보살펴주신 아주머니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옷방에 있는 내 트렁크와 책들은 아무때든 내가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나의 후임에 대해서는 선로반장에게 부탁...》

다음은 보나마나였다.

현우혁은 딱한 얼굴을 짓고 입맛만 쩔쩔 다시다가 이윽해서 국대접을 든다.

의아쩍게 보고있던 금녀가

《두일동무가 앓는대요?》

하고 물으니 현우혁은 입이 쓰거운지 국만 후후 불고있다.

현우혁은 두일의 눈치를 벌써부터 알고있었다. X제표지점에 온지 석달도 못되어 한다는 소리가 늘 불평뿐이었다. 감시원은 백년가야 더 발전할수 없다, 초소근무는 한달에 한번씩 료번제로 해야 한다 등 오래지 않아 어디로 뺄소니칠 기미가 보였던 것이다.

상을 물리고 금녀가 부엌에서 올라오는것을 기다려 현우혁은

《여보!》

하고 심중한 어조로 부르더니

《당신과 좀 의논할 일이 있소.》 하였다.

이때 현우혁은 집을 옮겨볼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던것이다.

금녀는 행주치마를 벗어서 말코지에 걸더니 방긋 웃으며 옆에 와앉는다.

《다름이 아니라 두일동무가 못오게 되니 대책을 세우자는거요.》 하자 금녀는

《아유, 그게 무슨 의논할 일이에요. 래일쯤 선로반에 나가서 대신으로 누굴 보내달라면 되잖아요? 그리구 반에서도 어렵히 대책을 세우고 있잖을라구요.》 하면서 망궁망궁 웃는다.

금녀는 남편의 심산을 벌써부터 알고있었다. 그 래 미리부터 짐작해 오던차에 아니나다를까 딱 들어맞았다.

《그런것이 아니라 당신의 결심이 있어야 하는건데... 똑 짝어 말한다면 X제표 중간바위골에 이사를 하자는거요.》

《에구 망측해...》

금녀는 벌써 어지간히 기분이 처졌다.

《내 그럴줄 알았어요. 까놓고 말해서 밥 한그릇을 제 눈 감추듯 하는 사람이 위병은 무슨 위병이에요. 피병이지. 좀 어루만지지 말고 툭툭히 비판을 하세요. 머리를 바로 잡아줘야 하잖아요. 하긴 당신 같은이나 자원해서 무기한으로 이 산중에서 살 작정을 하지. 이 세상에 하늘로 머리둔 사람이 누가 이런데서 한평생 살겠다고 하겠어요.》

금녀는 귀뿌리까지 새빨개지고 어깨가 달싹거린다.

《이사야 당신 결심이면 그만이지요. 의논은 무슨 의논이요. 강게서 두군데나 굴러온 신세에 이제 십리 아니라 게서 더한덴들 못들어가겠나요.》

어지간히 속이 비틀렸다.

현우혁은 금녀한테서 대번에 시원시원한 대답이 나오리라곤는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금녀의 웅고집이 이렇게까지 뿔을 세우고 일어날줄은 몰랐다.

현우혁은 너무 어처구니없어 하하 웃고나서 예쁘장 하니 끝이 들린 잠직한 코를 호되게 튕겨주려고 손을 슬며시 턱밑으로 가져갔다.

금녀는 눈치를 채자 넋큼 한자리 물러앉으며 고개를 돌리었다.

그바람에 돌이서 한바탕 웃었다.

한참 있다가 금녀가 입을 열었다.

《락석감시원은 당신이니까 당신맘대로 해요. 그러나 영호가 몇리를 걸어야 하는지 알아두세요. 25리예요. 두일이 편지만 생각지 말고 학교에서 온 편지도 고려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낳은 자식이라면 25리 아니라 그보다 더 멀어도 난 반대않겠어요...》

뜨뜻한 구들아래목에 포근히 누워자던 영호가 깡하고 몸을 뒤채면서 발길로 이불을 걷어찬다.

금녀는 얼른 이불을 여미여주고 머리말에 놓았던 책들을 집어 한쪽으로 밀어놓는다.

《여보! 영호도 영호려니와 당신 몸도 생각해야지요. 당신의 그 다리로써 하루에 몇리를 걸을수 있어요... 당신이 정 못가면 나라도 선로반에 가서 두일

이대신 누굴 보내달라고 하리다.》

금녀는 남편의 성격이 소탈하고 너그럽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하지만 그런 성격으로 하여 전달땡이 두일리와 같은 사람의 뒀을 맡아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니 그 어떤 억울한 생각이 치밀었다.

그러나 짐짓 성을 누르며 은근히 남편을 타이르는것이였다.

사업도 사업이려니와 건강도 돌봐야 할게 아니라는것이다.

현우혁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전쟁때 파편에 부상당했던 오른다리) 나오자 물적 분이 치밀었다.

《그게 날 위해서 하는 소리요?》

《...》

금녀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고름끝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들은 작년에 결혼한 신희부부다.

현우혁은 삼십을 갓 넘은 생김새부터 의젓하고 틀이 잡힌 건장한 청년이다.

금녀는 바야흐로 활짝 핀 꽃처럼 온몸에서 젊고 생신한 기운이 풍기였다.

언제 보나 옷매무시가 단정하고 깨끗한것을 좋아한다. 남들 보건대도 그럼직하거니와 금녀자신도 이런 젊은 나이에 이 심심산중에 묻혔다는것은 참기 어려운 노릇이라고 생각하였다.

허나 금녀는 영예군인인 남편에 대해서 더없이 극진하였으며 그를 위해서라면 산속이건 물속이건 가릴바가 아니였다.

그러길래 결혼한지 한달이 되나마나해서 강계에서 7억으로 자원해 이동하게 되었을 때도 아무말없이 남편을 따라 선뜻 나섰던것이다.

하긴 강계에서 떠날 때 의견이 없었던것은 아니였다. 살림을 차리자 바람으로 집을 찌단다는것도 문제려니와 강계보선구에서도 천리마도 타고 혁신도 일으키고 창고고안도 얼마든지 할수 있었다. 또 성한 사람도 많은데 하필 다리를 상한 영예군인이 걸음을 많이 걸어야 하는 산중으로 자청해 갈 필요가 무어나고 트집을 걸수 있었다. 그러나 내색을 끝내 보이지 않고 속을 썩이고말았었다.

그런데 7억에 와서 이사집을 부린지 한달도 채 못되어 다시 도로리에 이사집을 싣고 온다는게 아흔아홉굽이 비탈을 에돌아 바위벽이 이마에 맞부딪칠듯 한 벼랑사이에 초막을 치고 술을 걸게 되었다. 그때는 막 배알이 뒤틀리고 목구멍까지 울화가 치미는것을 겨우 눌러버렸었다. 더구나 이렇게 끌고 오는 남편의 속심도 알수 없거니와 몸이 편치 않은 그가 부득부득 어깨를 들이밀고 고생을 맡아 나서는것을 도무지 리해할수가 없었다.

그래도 살아가면 고향이라더니 0제표지점에 와서 한 철을 지내는 동안 박우물도 파고 빨래터도 만들었다.

한 5리쯤 내려가 인가가 서너집 있는데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사귀어도 놓았다. 그래 차츰 정이 들만 하니 또 자리를 뜨자는것이다.

그렇잖아도 한달 가도 인기척 하나 볼수 없는 여가서 가면 어디로 간단 말인가?

바람소리, 물소리에도 밤마다 소쩍새소리만 들리고 마당가에는 산짐승이 어슬렁댄다. 그러다 하루 몇번씩 기적소리를 듣는것이 락이였다.

얼마쯤은 그 단조로운 소리나마 무엇인가 새 소식과 환희를 가져오는듯 하더니 차차 역겨워 나고 이제는 오히려 더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어놓는다.

산 모퉁이로 썰차가 꼬리를 감추고 길고 요란한 기적소리가 메아리를 일구었다가 차차 여음이 사라질때면 왜 그런지 가슴이 허전하고 텅 비는것 같다. 가슴속에서 무엇이 왈칵왈칵 무너져내리는것 같다. 이럴 때면 돌우에 혼자 앉아 하염없이 그 무엇을 더듬어 생각하게 된다.

왜 남들처럼 변화한데서 보람있게 살지 못하고 온 세상을 다 들추어봐도 단 하나밖에 없을 이런 산중의 길목지기를 한단 말인가?

남편은 철길에서 사철 살다싶이 하고 자기는 텅 빈 방안만 지키고 앉았어야 한다. 이것이 무슨 락인가? 꿈꾸어오던 행복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는 눈에 뻘히 보이고 손끝에 가치가치하는 그 무엇을 알지 못하고 애타게 헤매는것 같았다.

역장이였던 아버지를 따라 수없이 이사도 했지만 그래도 가는 곳마다 비록 한적하기는 하지만 언제나 자그마한 거리가 있었다. 그래 고중도 순순히 나올수 있었으며 거리생활은 거의 타고난것처럼 느껴졌었다.

한데 일년도 못되는 동안 갑자기 신세가 거꾸로 서는듯 하였다.

금녀는 영호의 통학거리를 내걸기는 했지만 실은 이제 더 물에 뜬 나무잎처럼 정처없이 밀려다니기가 딱 싫어났던것이다.

남편은 야속하게 이쪽 사정을 통 몰라주는듯 했다.

광부의 아들이며 포병생활 일곱해 그리고 선로원 생활을 시작한 그는 너무나 생각이 단순하고 고지식한것 같다.

방안에 침묵이 흐른다.

...현우혁은 구들이 뜨거워 나서 두세번 자리를 고쳐앉으며 안해의 심정을 그려보고있다.

옆에 누운 이마가 번듯하고 안장코인 영호가 팔을 내저으면서 잠꼬대를 한다.

영호를 보고있노라니 옛일이 물밀듯 떠오른다.

영호 아버지는 전쟁때 이 지점의 선로감시원이였다.

시한탄을 제거하다가 폭발되어 순직하였다. 그러나 현우혁이 호송하던 포탄렬차는 무사히 통과했다.

그뒤 제대되어 선로감시원의 가족을 찾았다. 그리하여 3년만에 폭격에 어머니마저 잃고 초등학교에 가있는 영호를 찾아내고야 말았던것이다.

그뒤 현우혁은 되도록 영호를 제 아버지의 뜻을 이은 믿음직한 철도일꾼으로 키울 결심을 했다.

(영호의 통학거리를 연장시키고 내가 험하게 일해서는 안되지.)

이렇게 생각한 현우혁은 모든것을 다 잊어버리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바람이 분다. 모래알 같은 눈이 창문을 후려갈긴다.

《여보, 먼저 자오. 난 X지점을 좀 순회하고 오겠소.》

현우혁은 움쭉 일어나며 모자를 집어든다. 그리고 결따라 일어서려는 금녀의 어깨를 눌러앉히고 밖으로 나섰다.

눈보라가 얼굴에 뿌려진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금녀는 며칠동안 눈치를 봐가다가 하루는 영호를 불러 앉히고 지각하는 까닭을 캐기 시작했다.

《조반이 늦나?》

《...》

《그럼 다리가 아파 가다 쉬니?》

《...》

이래도 저래도 도리질뿐이다. 금녀는 우습기도 했지만 한편 속이 상해 얼굴이 발그레해 지며 별의 별 수단을 다 쓴다.

그런데도 마구답답이로 영호는 빙글빙글 웃기만 한다.

《그럼 너 중간에서 장난하는구나!》

《아니래두요.》

금녀는 안타까웠다. 그러다가 문득 좋은 꾀를 생각해냈는데 그 이튿날 아침 일찌감치 밥을 해주고 영호의 뒤를 밟아 학교까지 가보리라 생각했다.

이튿날 아침이 왔다.

《지각하지 않게 장난말구 빨리 가거라.》

《네. 갔다오겠습니다.》

영호는 모자를 벗어 꾸벅 절을 하고는 엉덩이에서 책가방이 툭툭툭썩 뛰게 달음박질을 쳐 산모퉁이로 사라지는것이 었다.

금녀는 길차비를 하고 바빠 뒤를 따랐다.

한 5리쯤 가서 이팔나무숲을 빠져나서였다. 영호는 곧은 길을 버리고 철쭉길로 올라서는것이였다. 신바람이 나는지 목청을 돋구어 노래도 뽑는다.

《웁지. 저랬구나...》

금녀는 영호가 뒤를 돌아다볼까 조마조마해서 바위뒤에 가섰다. 영호가 철길에 들어서서 레루에 올라 줄타기를 하듯 팔을 벌리고 뒤뚱거리며 재주를 피운다. 금녀는 웃음이 턱 터질것 같아 입을 싸쥐고 흠이 진 웅덩이로 슬쩍 내려섰다.

(저 감쪽한 장난꾸러길 어쩌면 좋아.)

금녀는 숨박꼭질이라도 하듯 마음이 간질간질하고 궁금하기도 했다.

아니다나를가 책가방을 벗어놓더니 돌레돌레 사방을 살피다가 큼직한 돌을 집어서 레루에 대고 팡팡 두드린다.

(네가 못하는것이 없구나. 곧은 길로 가지 않고 철길로 5리나 에돌면서 게다가 장난이야. 그리고도 아니라고 도리질이지. 요 감쪽한것...)

어느새 50미터거리에 다가갔다.

한데 영호는 허리를 꼬부리고 한참 땅바닥을 굵적 거리다가 닝큼 일어나 가방을 집어들더니 뿌르르 달아난다. 짧은 다리가 어떻게 빨리 침목을 번갈아디디는지 마치 재봉바늘이 오르내리는것 같다. 잠시동안 산굽인돌이에 사라졌다가 다시 저쪽 산모퉁이에 나타났다.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아까처럼 가방을 벗고 돌을 집어든다.

금녀는 차차 알긋기도 하고 수상한 생각도 들어 영호가 앉았던 자리로 달려갔다.

금녀는 영호가 앉아서 돌을 부서뜨리던 장소에 이르자 그만 굳어진듯 그 자리에 서 버리고 말았다.

철장에 대고 돌을 두드린것은 끝이 뻐죽한것을 얻기 위해서였다. 돌을 깨뜨려 그중 모가 나고 뻐죽한 놈을 골라 그것으로 산에서 흐르다가 밤사이에 얼어붙은 얼음버캐를 깨낸것이다.

철길을 향해 밀려든 얼음을 돌로 쪼아내고 물이 흐르다가 굽으로 빠져나가도록 움푹하게 도랑을 짚 놓았는데 손으로 얼음을 긁어낸 자리가 력력하다. 이것을 보고섰던 금녀는 온몸이 오싹해졌다.

(손이 오죽 시렸으랴!)

남편이 여름에 타온 면장갑 한켄레를 내주고는 한 해겨울이 지났다. 그런데도 그 장갑은 새것대로 있다. 장갑이 어지러위질가봐 맨손으로 얼음을 긁는것이 분명하다.

금녀는 두손을 모두어 가슴에 대고 한참 섰다가 영호가 앉은쪽을 다시 바라보았다.

영호는 침목을 밟으며 아까처럼 달아난다.

(네가 지각을 할가봐 그러는구나.)

금녀는 코마루가 찌르르 저리고 눈굽이 뜨거워졌다. 눈앞은 안개가 낀듯이 차차 흐려진다.

(뛰기는 왜 뛰나, 저러다 넘어질라구.)

금녀는 그렇게도 기특한 영호를 믿지 않았던 자신이 너무 웅졸하고 미련하였다는 생각이 울컥 치밀었다.

영호는 5리나 더 먼 길을 에돌면서 아버지가 관리하는 선로를 손수 보살피고있는것이다.

지각이 좀 있었던들 무슨 상관이라!

그는 벌써 코흘리개 장난꾼이 아니다. 철도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아버지의 넋을 이어받은 믿음직한



아들이다.

그날 저녁 세 식구가 마주앉은 밥상머리에서 금녀는 영호의 이야기를 했다.

그런 다음 우선 학생은 지각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타일렀다.

《넌 이제부터 철길을 돌아다니지 말고 직발 지름길로 가라.》

현우혁은 머리를 쓸어주며 포동포동한 그의 볼을 들여다본다.

《괜찮아요. 아버지가 거기까지 돌아오시자면 다리가 아프지 않아요? 전 다리가 튼튼해요... 래일부터 좀 더 빨리 뛰어갈래요. 그럼 돼요.》

이 말을 듣자 금녀는 눈곱이 뜨거워졌다. 다리를 절고있는 아버지를 도우려는거다 그런데 안해진 자신은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있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금녀는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지 못해 물사발을 들고 얼른 부엌으로 나가버렸다. 통학거리를 코에 걸고 바위골로 이사하는것을 반대하는것이 얼마나 우직했던가 후회된다.

이런 일이 있은뒤 금녀는 팔을 부르짖고 이사차비에 나섰다. 그리하여 따뜻한 날을 택해 짐을 옮기기로 했다.

현우혁은 바위골에 가서 초소를 손질했다. 이미 지었던 집에다가 온돌을 놓고 부엌을 붙이고 불을 땀다.

이제 천반이나 흙매질같은것은 우선 옮겨놓고 할작정이다.

현우혁은 지게에 농작을 올려놓고 뒤에 따라섰고 그 앞에는 금녀가 고리짜과 트렁크를 겹쳐 이고 보따리를 손에 들었다. 영호는 털모자를 제껴 쓰고 책가방과 배낭을 메고 달랑달랑 앞서서 걸어간다.

따뜻한 날씨다.

눈에 덮이었던 철쭉이 군데군데 드러났고 아늑한 바위벽에는 밤새에 유리알같은 얼음이 얼었다. 양쪽에는 나무가지들에 아이들 손가락같은 고드름이 달리였다. 어치떼는 알록달록한 날개들을 펴고 산허리를 에둘면서 한가롭게 지저킨다.

산봉우리위에 해가 쑥 올리밀었다. 눈에 덮인 산발은 은백색빛을 뿌린다. 골짜기에서는 신선한 아침공기가 흘러오면서 코가 찡하니 시려나게 한다. 사위는 깜빡 조울듯 한 정적이 깃들었다.

《영호야! 너 선반에서 꽃씨를 거뒀니?》

저만치 앞서나간 영호에게 현우혁이 소리를 지르면서 지게를 추슬러올린다.

《꽃씨 웬거예요?》

금녀가 받으니

《저 강계에서 받아든 백일홍 있잖아?》

영호는 징검다리를 다 건느고나서 손에 쥔 꽃씨 봉투를 내흔든다.

《여기 있어요!》

그런뒤 얼마동안 말없이 걸어가다가

《백일홍이 어느달에 피지요?》

하고 금녀가 방긋 웃으며 물었다.

《아마 6월에 가야 필걸!》

《그럼 그 꽃을 보려나요? 호호...》

《여보, 생각해보요. 그래두 크나작으나 집이라구 꾸러놓은 사람이 단 몇해두 안살구 집어치우는 법이 어디있소. 암만 허술해두 삼사년이야 살아봐요지. 하하...》

금녀는 억지로 웃기는 하지만 더는 대꾸를 하지 않는다.

《어때? 응?》

《백보 양보해서 내 이사는 하지만요 두고보세요.

5. 1절 지나면 내가 가서 도로릴 끌고 오지 않나.》

《잔소리 말구 저기나 좀 봐.》

현우혁은 짐짓 판전을 보려고 작대기를 들어 분지나무가지를 가리켰다.

메새 한쌍이 울긋불긋한 가슴을 쑥 내밀고 부리를 맞비빈다. 그러다가 인기척에 놀랐는지 말뚝말뚝한 눈으로 금녀를 의아쩍게 쳐다본다.

장수봉우 활짝 트인 군청색하늘에 수리개 한쌍이 빙 빙 원을 그리며 돌아간다.

금녀는 짐을 내려놓고 소녀처럼 황홀해져서 맑은 하늘을 쳐다본다.

《참, 하늘도 곱네!》

금녀는 고개를 젓히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는데 영호는 허리를 굽히며 눈을 움키고있다.

금녀는 대야에 뽕수를 떠다가 수건을 짜서 남편의 머리에 얹었다.

현우혁은 얼굴이 벌겋게 돼서 가슴을 들먹이며 누워있다. 감기가 온 모양이다.

눕고보니 잔소리가 심한 축이다.

어느 모퉁이의 물도랑을 가보라, 어느 비탈에 메부리가 돌이 걸렸었는데 떨어지지 않았나 보라, 상호등에 불이 잘 켜지는가 미리 손질하라, 이런 따위로 사람을 들볶으면서 하라는 몸간수는 통하지 않는다.

머칠전부터 몸이 찌뿌드드할 때 좀 누웠다면 얼마나 좋았으랴.

금녀는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이틀째 뜬눈으로 밤을 샌다.

그러니 메였던 물목이 터진듯 금녀는 아무 소리나 막 내뱉게 되었다.

《예구, 속상해죽겠네. 병원이 있나, 오리나 십리가 돼서 업고라도 어딜 가겠나...》

허를 쫓쫓 차면서 남편이 들고있는 책을 뺏는다.

《책을 놓고 머리를 좀 쉬우세요. 락석감사원이 뭐 박사가 되겠나요. 밤낮 책만 들구. 초소근무기한이 얼마나 넘은지나 아세요. 게다가 두사람몹을 하면서 6월이 다 가는데도 꿈쩍않고있다가 이게 뭐에

요. 몸이 건강해야 사회주의건설두 하고 혁명두 할 수 있는게 아니예요.》

아닌게 아니라 현우혁은 요새 무척 과로를 했다.

선로를 감시하는데는 눈보라치는 겨울도 어지간 하지만 눈석임때와 장마철도 그보다 못지 않게 힘이 든다.

산에는 가을이 빨리 온 벌충으로 봄은 한량없이 늦잡는다. 그러나 산의 몸도 역시 들에서처럼 몰래 오는 버릇이 있다.

양지바른쪽에 이미 다 곰삭아버린 묵은 쪽새그루 밑에서 노르끼레하고 야들야들한 싹이 돌아오르면 골짜기 마다에는 시뻘건 눈석임물이 사태를 일군다. 이럴 때면 삽과 팽이를 메고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 도랑을 찌고 툇을 치고 웅덩이를 메우기도 해야 한다.

어느새 메세들이 파스한 봄벌이 내려쪼이는 양지 바른 가지에서 조올게 되고 까치란놈이 삭정이 가지를 물고 콩지를 까불면서 마올로 드나들게 된다. 그러면 산봉우리들에 오르내리며 산불을 봐야 한다. 구배가 심한 이 대목에서는 기관차에서 불꽃이 튀기고 그것이 날려서 먼산에 불을 일구는수가 있기 때문이다.

산에서 산으로 덩불을 헤치고 가지를 휘어잡으면서 기여오른다. 벼랑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지는수도 있다. 부상당했던 다리는 못견디게 쑤신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어서어석 눈을 밟으며 룡선을 따라 나아간다. 몸이 노곤해난다. 그러면 따뜻한 양지쪽에 앉아 다리를 쉬며 담배를 한대 피우는 맛이란 천하일미라고 할수 있다. 그런 뒤에는 바위에 기대여 깜빡 조은다.

얼마쯤 쪽잠이 가물가물 깊어갈무렵 머리우에서 궁상맞은 빠꾸기우는 소리가 나면 놀라서 눈을 뻗쩍 뜨게 된다.

먼 산비탈에 불을 본다. 소스라쳐 일어나 눈을 비비면 그것은 불이 아니라 진달래다.

산허리 양지쪽에 붉은 띠를 휘감은듯 한 진달래, 그 건너에 해를 묵은 눈, 그우에 푸르러 가는 이갈 나무숲, 발밑에 군청색 땡기오리같은 장자강물줄기, 흘러가는 묵화송이 같은 구름때... 이것들이 절경을 이룬다.

연장망태를 거느적이 절머메고 산에서 산으로 오르내린다. 산에서 자고 산에서 먹으며 몇순 지내는 동안 진달래에서 철쭉꽃으로 봄은 옮겨가고 미구에 장마철이 온다.

이때면 벼랑과 병풍바위를 톱아오르내려야 한다. 억수로 쏟아지는 비, 굴러내리는 돌과 전투를 한다.

그러다가 맥이 빠지고 다리가 쑤시면 돌우에 앉아 무릎을 주무른다.

《내 다리야, 너는 내 사정을 잘 알지? 참아다오,

참 아야 해. 미체가 조국강토에 발을 붙이고있는 한 우리 전투는 끝나지 않았어. 너는 전쟁시기의 여기 늙은 감시원을 기억하고있지? 폭탄을 안고 걸어나간 그 사람의 다리를 알지? 참아다오...》

그는 다리를 물끄러미 들여다보며 이렇게 타이른다. 그리고는 잔디밭에 드러누워 맑게 개인 하늘을 쳐다보며 통일된 조국의 앞날을 그려본다.

저주로운 분계선 패말을 탕탕 찍어 던지고 무너지고 쑥대가 길로 자란 철쭉을 다시 쌓아올려 끊어졌던 철길을 맞추어놓을제 언덕에 선뜻 올라 푸른 신호기를 번쩍 쳐들면 만포발-부산행렬차가 막 쓴 살갈이 달려나가리라....

그는 후터워진 가슴을 만져보며 일어나 않는다.

회상기를 두어제목 읽는다. 그러면 한결 기운이 난다.

옷은 갈기갈기 찢기였고 신발은 형체를 알기 어렵게 해졌다. 그래도 그는 벼랑에 기여올라 돌을 까낸다.

이렇게 며칠동안 지내며 비를 맞고 밤을 새우더니 그만 몸살이 온것이다.

《여보! 잔소리 뵈다 하고 불이나 좀 돋우오. 잠을 이룰수 없군 그래. 자 한제목 더 읽어주오. 응!》

현우혁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집어들고 싱긋 웃으며 눈짓을 한다.

금너는 다시 읽기 시작한다.

벌써 몇번인지 모르게 《돈화의 수림속에서》를 일어 허두만 때면 줄줄 내려간다. 금너는 어느덧 감동되어 눈물이 앞을 가려 글줄을 잘 가리지 못한다.

자꾸 눈물을 흘린다.

더는 글줄을 잊지 못한다.

방안은 물뿌린듯 조용한데 도란도란 울리는 금너의 말소리는 자꾸 끊어진다.

창밖에서는 구성진 반새소리가 손에 잡힐듯이 들려오고 바로 문턱너머 백일홍씨를 뿌린 꽃밭에서 귀뚜라미소리가 다정스럽게 울려온다.

그 이튿날 한낮이 되어 7억 선로반 반장이 뜻밖에 나타났다. 1주일에 한번씩 순회하는 계획대로면 사흘은 더 있어야 할것이였다. 그래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해서 금너는 매우 마음이 조급해났다.

본래 말수가 많은 반장은 그간 선로반에서 있는 일부터 두서없이 늘어놓기 시작했다.

국에서 부국장이 왔다간 이야기, 직맹반장네 쌍둥이 난 이야기, 상점에 뉴퉁치마감이 잔뜩 온 이야기, 선전차가 왔는데 영화가 무척 재미있더라란것, 앞으로 비가 많이 올 기상통보가 있다는것 등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보태서 강선보선구에서 곧 선로원 회의가 있다는것과 반에서 강연회가 있다는 말도 하였다.

반장은 병에서 물쏟듯 내리워었다.

다음은 가져온 보따리를 풀었다.

신문이며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선동원》, 《천리마》 그밖에 소설책들이 수십권 쏟아져나왔다.

현우혁은 앓은체도 하지 않고 일어나앉아 신이 나서 맛장구를 쳤다.

듣고 앉았던 금녀는 가슴이 알찌근하고 어지간히 기분이 상했다.

영화가 오면 뿔하며 상점에 물건이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불는 불에 키질이라고 사람을 무작정하고 이 산중에 두면서 그런 말이나 전해 무엇하랴! 언제 한번 보란듯이 차리고 나서서 구경인들 하며 구색이 맞게 물건을 사들여 방치장도 하고 집안을 닭알노란 자위처럼 알뜰히 꾸리고 살아본단 말인가? 한달이 멀다 하게 숨을 띠이고 초소막을 찾아다니는 형편에...

게다가 박달나무갈던 몸에 병까지 들고...

화가 나는데로 한다면 모두 앓은자리에서 사실이 여차여차하여 몸도 약해졌고 앞으로든 계속 두사람 몫을 할수 없을뿐더러 더구나 초소근무 기한이 6개월이나 지났으니 당장 후임을 정해 보내달라고 들이대고싶었다.

그러나 남편안인지라 꼭 참았다.

한바탕 이야기를 주고받은 다음 선로반장은 부시럭 부시럭 종이꾸레미를 펼치더니 도라지색 뉴통치마감을 하나 꺼냈다.

《자, 이걸 반의 동무들이 아주머니에게 보내는 선물이웨다. 어땡소? 이걸 척 해입고 인젠 역전으로 이살 나와야겠는데... 하하...》

현우혁은 담배를 붙이고 금녀는 어리둥절하여 반장의 얼굴만 쳐다본다.

《아주머니, 안됐습니다. 벌써 교대두 하고 두일이 대신두 보내야 했을건데... 현동무!》

반장은 지금 금녀에게가 아니라 현우혁에게 말할 꼭지를 따고있는셈이었다.

벌써 몇달째 초소근무교대를 하자고 사람을 여러번 보냈는데 번번이 현우혁이 거절해버렸던것이다. 두일이 대신도 보내지 말라고 완강하니 뱉쳤다.

《현동무! 오늘은 회답을 해줘야겠소. 난 동무때문에 보선구장한테 갈적마다 꾸중을 듣는데 더는 나도 참을수 없소. 동무 몸도 몸이려니와 아주머니와 영호생각두 해알게 아니요. 모든것을 다 참작해서 당과 행정에서는 초소근무 기한을 정했고 로력기준도 만들어놓은건데... 이삼일내루 교대할 준비를 해주오.》

선로반장은 차차 엄격한 어조로 말을 한다.

금녀는 가슴이 확 트이는것 같았다. 아무렴 그렇지, 당에서야 산중에다 사람을 이렇게 오래 두라고는 하지 않을거니까...

그는 남편이 얼른 《종수다.》 하고 시원히 대답을 하든지, 정 대답이 내키지 않으면 고개라도 끄떡

이였으면 했다.

금녀는 속이 조마조마해서 치마감을 펼쳐보는체 하면서 남편의 눈치를 슬슬 살폈다.

현우혁은 묵묵히 앉아 담배만 빨다가 입을 열었다.

《걱정해주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난 자릴 뜰 생각이 없습니다. 더 권하지 말아주십시오.》

《하하, 이런 고집 봤나.》

반장이 큰소리를 치는데 금녀는 너무도 놀라 들었던 치마감을 떨어뜨리고 만다.

금녀는 눈물이 짙끔 쏟아질 지경으로 속이 타고 가슴이 얼얼하였다. 이 자리에 반장이 없었던들 남편에게 와락 달려들어 한바탕 행패라도 부리고싶었다.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북받쳤다.

반장은 더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말해봤대야 듣지 않을것이 뻔하다. 그래 강제보선구에서 있을 모범 선로원회의에 꼭 참가해달라는 부탁과 토론준비도 잘해야겠다고 다짐을 두고 저녁무렵에 떠났다.

금녀는 굴 근처까지 따라나가서 속에 땀뻘던 울화를 종시 다 쏟아 놓고야 말았다.

《며칠후에 도로리를 들여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억지를 써서라도 짐을 싸게 할테니까요.》

반장도 더는 방법이 없으니 이번에 강제회의에 가도록 하고 회의하는 동안 보선구장한테 연락을 해서 아예 명령으로 강계에 물러앉게 짜놓자는것이였다.

듣고보니 그렇게 하여 강계에 있게 되면 더욱 좋을것이였다. 그래 쌍수를 들었다.

머리를 짓누르던 짐은 구름에 차차 금이 가고 방석이 트인 짬으로 해살이 내리비치는것 같았다.

금녀는 기쁘다고 할가 괴롭다고 할가 어쨌든 종잡을수 없는 어수선한 감정에 휩싸여 하루를 지냈다.

하염없이 밤은 깊어가는데 금녀는 시름없이 앉아 남편이 하라는대로 책을 읽고있었다.

책장우에는 반장의 얼굴이 자꾸 얼른거린다. 글줄이 오락가락한다.

그럴적에 벽시계가 열한시를 땡땡 쳤다.

《좀 나가보오.》

현우혁은 몸을 일궈세울수가 없어 안해더러 11시 55분 평양행열차를 봐달라고 하였다.

금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감시초소로 나갔다.

상호등에 불을 켜서 현우혁의 모자가 걸린 벽에 가지런히 걸어놓고 감시창을 향해 쯤그리고 앉았다. 기차가 산모퉁이를 돌아 기적을 울리면 얼른 나가려는것이였다.

안개비가 뿌려지고 뿌연게 달무리가 낀 축축한 밤은 을씨년스럽기 그지없다.

금녀는 눈썹이 꼳꼳하고 눈이 자꾸 내리감기였다. 눈을 거슴츠레하고 앉아있으려니까 오늘 낮에 반장

이 왔던 일이 물밀듯이 떠오른다. 왜 그런지 어떤 불길한 예감마저 머리를 짓누른다.

그는 기껏해야 한 보름 있다가 이사집을 꾸러가지고 이 골짜기를 아예 훌쩍 떠나리라 굳게 다짐을 했다.

그리고 보니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고 몸이 허공에 둥둥 뜨는것 같았다.

그러다가 그는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기적소리가 귀청을 때려 화닥닥 일어난 그는 열결에 벽에 걸어놓은 상호등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가 팔을 쳐들었다.

렬차는 차고 눅눅한 바람을 금녀의 온몸에 들뜨우면서 쿵당쿵당 땅을 구르며 지나간다.

금녀는 뉘엿이 팔을 들고 서있다.

그때 방안에 누웠던 현우혁이 문을 열어제끼더니 다급한 소리를 지르며 달려나왔다.

《어떻게 됐소! 무슨 사고요? 왜 응답신호가 없이 통과하오?》

렬차는 의례히 통과신호를 받으면 응답기적을 울리게 되어 있는것이다.

그때야 금녀는 정신을 차리었다.

《신호를 했는데두...》

《상호등이 어디 있소?》

《이거...》

금녀는 손에 든것을 내들었다.

그것은 상호등이 아니라 모자였다.

열결에 금녀는 상호등과 가지런히 걸렸던 남편의 모자를 집어들고 나온것이었다.

현우혁은 나는듯이 감시초소로 달려가더니 벽에 걸린 상호등을 들고 나와 발을 돌우며 팔을 높이 쳐들어 휘두르는것이었다.

정거하려고 서서히 속력을 죽이던 렬차는 늦게야 신호를 받고 숨가쁜 기적소리를 길게 뿜으면서 다시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기적소리는 침침한 밤하늘을 울려놓으면서 오래 오래 여음을 끝었다.

내의바람에 맨발로 뛰어나왔던 현우혁은 고개를 떨구고 방안으로 들어와 안해를 불러들이었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인민앞에 죄를 지었소. 규률을 위반했소 사회주의건설을 위해 달리는 렬차에 내가 제동기를 걸었소...》

현우혁은 무릎을 꿇고 다소곳이 숙인 안해의 어깨를 주시하면서 엄격히 말을 이었다.

《우리에게 말긴 일이 비록 적고 보잘것없고 벽찬 일이 아니라 합시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한것이고 따라서 중요한것이요. 렬차가 1초 더디게 달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속도가 지연된다는것이나 다름없소. 그렇다면 초소가 산이건 물이건 지어는 바다속이건 가릴것이 없소... 그런데 당

신은 줄고있었다니... 당신은 감시원의 안해답지 않소. 로동당원의 안해답지 못하단 말이요.》

그는 잠시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당신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는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오...》

듣고 앉았던 금녀는 샷바닥에 털썩 엎드려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로동당원의 안해답지 못하다》는 말도 말이지니와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는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오.》라는 말이 그의 가슴을 모질게 들이찔렀던것이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것 같다.

그래도 그는 여태까지 당원인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극진히 공대를 해왔다. 그렇길래 그 어떤 피로움도 참을수 있었고 울어야 할 때도 웃으며 지내왔었다. 자신으로서는 모든것을 고스란히 영예군인이며 감시원이며 당원인 남편에게 바쳐 온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것만은 남편도 그렇게 믿고 있었을것이며 또 바랄것은 오직 그뿐이라고 생각해왔었다. 더구나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에 보답하려고 주관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던가!

허나 지금에 와서는 공들인 모든것이 졸지에 산산이 부서져 허공에 날아나는것 같았다. 앓은자리가 꺼져내리는것 같다.

(감시원의 안해답지 못하다, 로동당원의 안해답지 못하다, 사회주의건설을 더디게 한다...)

금녀는 이 말마디를 열번 스무번 곱씹어 외우면서 울고 또 울었다.

울수밖에 없었다...

방안은 물을 뿌린듯 고요하다.

강물소리가 들려온다.

장수봉쪽에서 담담한 밤공기를 흔들며 소쩍새우는 소리가 흘러온다.

돌담우에 후둑후둑 비방울이 듣는다.

현우혁이가 7역으로 떠나게 된 전날은 6월 하순 어느 일요일이 었다.

그는 해가 뜰무렵에 금녀와 영호를 데리고 차굴이 있는데로 갔다.

그는 지게에다 세멘트와 석회를 지고 금녀는 점심 그릇과 물통을 이었으며 영호는 삽을 메고 활개를 치며 걷는다.

현우혁은 뒤를 따라가며 끝없이 뻗어나간 두줄기 레루를 보고있노라니 전쟁때 일이 같피같피 회상된다.

그는 다리를 걸면서 이 길을 수없이 걸었다. 그러나 그 어느 한때도 전쟁시기 바로 이곳에서 있는 일을 잊은적이 없다. 3년동안이나 초등학교마다 죄다 찾아다니면서 기어이 영호를 만나고야 만 일이며 또 자청해서 이 감시초소로 오게 된것도 다 전쟁때문이다.

현우혁은 가슴에 서리서리 영킨 사연을 가족들에게 낱알이 이야기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그는 가족을 데리고 바로 그 이야기가 깃들어있는 차굴로 걸어들었다.

차굴입구에는 전쟁시기에 입은 상처가 많았다. 로켓포에 맞은 바가지만큼한 구멍, 기총사격에 맞은 크고작은 구멍들 그리고 폭탄파편에 맞아서 모서리가 떨어진것들이 보기 흉하게 한벌 널리였다. 물을 길어다가 세멘트와 모래를 섞어 이기고 그것으로 구멍을 메운 다음 그우에 회칠을 한다.

현우혁은 다 준비를 해놓고 영호더러 구멍을 메우라고 하였다. 영호는 세멘트로 보기 흉하게 뚫린 구멍을 바른다. 사다리가 모자라는 높은데는 현우혁의 어깨에 목발을 타고 바른다. 수십개소의 전쟁상처가 어린것의 손으로 하나하나 지워져나간다.

한낮이 되어서는 벌써 세멘트를 다 바르고 비자루에 석회를 묻혀 칠을 했다.

세사람은 모두 온몸이 석회투성이가되었고 땀을 콥콥 흘리며 회칠을 했다.

굴문은 눈부시게 희어서 새로 준공한것처럼 생생하다. 일이 끝난 다음 그들은 잔디가 포근한 철쭉에 둘러 앉아 점심을 먹었다.

현우혁은 담배를 한대 피우고나서 영호와 금너를 가까이 불러 앉히고 입을 열었다.

《영호야! 나는 이미부터 너한테 말해오기는 했지만 너는 너의 아버지가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자세히 모를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한번 자세히 말한다는것이 그럭저럭 밀려왔댔소. 아다싶이 ,바로 10년전 6월 25일은 일요일이었소. 나는 장산에 있었는데 일을 끝내고 돌아와 잠들고있었소. 날이 밝으면 개울에 물고기잡으러 갈 작정이었던것이요. 한데 바로 그날 아침 미제는 조선에 불을 질렀소. 때문에 모든 조선 사람이 불행을 겪게 되었고 영호도 역시 그렇게 되어 부모를 잃었소...》

현우혁은 목이 메어 말을 중단하고 기침을 몇번 하더니 그때 있던 일이 눈에 선히 보이듯이 말하였다.

1951년 무더운 여름날 새벽녘에 현우혁은 포탄을 실은 유개차에 앉아 순천을 향해 만포를 떠났다. 기관단총을 멘 그는 호송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진 애를 켜며 차칸에서 밤을 새웠다. 렬차는 강계를 지나 7역을 거쳐 2키로지점을 달리였다. 그 대목에서 갑자기 한방의 총소리가 나더니 렬차는 급정거를 하였다. 현우혁은 렬차에서 뛰어내렸다. 만포에서부터 줄곧 강계까지 적기가 쫘무니를 따랐으나 여기 좁은 산골짜기와 굴이 많은데 접어들어서는 정황에 별로 위험이 있는것 같지도 않았다. 선로에서 50미터 좀 떨어진 벼랑밑에 선로감시초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신호총을 쏘았던것이다. 달려가보니 50살가량 되는 아바이와 20살 되나마나한 젊은

선로감시원이 있었다.

50미터 전방에 30분전에 시한탄이 수십발 떨어졌다는것이다.

감시원아바이는 손으로 곱방대를 가리우고 담배를 피우고있었는데 불그레한 낮에 큼직한 코가 류달리 눈을 끌었고 진한 눈썹이 하늘로 치켜오른것으로 보아 성미가 좀 사납게 생긴 장대한 늙은이였다.

《아바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좋은수가 없습니까?》

현우혁은 바쁜 소리를 쳤다.

《글쎄...》

시간은 10분, 20분, 30분 급히 흘렀다.

동건이 흰히 트인다. 차차 산봉우리들이 드러난다. 산굽이를 에돈 철길이 유난히 잘 나타났다.

시간은 없다. 차굴은 바로 앞에 있는데 전진할수가 없다. 퇴행을 하해도 경사가 급해 위험하고 모험을 한다해도 뒤에는 20차량이나 되는 긴 렬차를 은폐할만 한 차굴이 없다.

원썬들도 바로 이런 대목을 노렸던것이다.

현우혁은 기관사더러 10분내에 뒤로 물러나서 두개소의 차굴에 분산은폐시키자고 요구했다.

시간이 얼마 흘러서였다.

기관차가 기적을 울리며 뒤로 움직이려 하자 감시소에서는 또 뒤로도 물러서지 말라는 신호총소리가 야무지게 울렸다.

감시소에서 뒤로 물러나는것을 보고 아바이가 또 쏜것이다. 한결음도 뒤로 물러서서는 안된다고 생각한것이다.

이윽고 아바이는 철길에 나섰다. 터벅터벅 침묵을 밟으며 시한탄이 있는데로 다가갔다. 시한탄이 여기저기 널린 곳에 이르자 아바이는 한숨을 크게 몇번 내쉬면서 잠시 침묵하고있더니 드디어 허리를 굽히였다.

아바이는 불이 이글거리는 눈을 치켜뜨면서 시한탄을 그려안고 허리를 폈다.

그리고는 저벅저벅 철쭉을 넘어 절벽낭떠러지까지 이르자 깡하고 안간힘을 쓰면서 시한탄을 언덕에 내리 굴렸다.

하나... 또 하나...

아바이는 비칠거린다. 떨어는 다리로 겨우 몸을 지탱하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현우혁이도 기관사도 아바이의 뒤를 따라나섰다. 열한개째자 마지막이 였다

마지막폭탄을 안고 아바이가 철쭉을 넘어섰을 때다.

《짱!》

폭탄이 그만 폭발하고 말았다.

요란한 폭음은 마치 아바이가 그 어떤 어마어마하게 큰 총으로, 렬차통과신호라도 내리는것 같았

다.

렬차는 순식간에 차굴로 달리였다.

《아바이는 이렇게 싸우다 돌아가셨고 나는 그때 파편이 관통되어 피가 흐르는 다리를 싸매고 포탄 차에 앉아 원산으로 갔고…

영호야, 바로 그 아바이가 너의 친아버지였더라. 나는 제대되면 이 만포선으로 올것을 언제나 생각했었다. 그리하여 제대후 3년만에 돌도 못돼 어머니마저 폭격에 잃은 영호 너를 내가 만났고 또 너와 함께 내가 이 초소에 너의 아버지의 뜻을 이어 서있는거란다. 이 굴이 바로 그 굴이다!》

현우혁은 담배를 붙여 물고 깊숙이 빨아들이면서 감시소에서 곰방대를 빨고 앉았던 아바이를 그려보았다. 시한탄을 안고 저벅저벅 발걸음을 옮겨놓던 아바이의 모습이 삼삼히 떠오른다.

말을 끝내고 우두커니 먼산을 바라보던 현우혁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을수가 없었다. 금녀도 영호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있다. 그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씻으며 혼자소리로 웅얼거린다.

《석회가 눈에 들어가더니만 고약하게 쓰러구만…아!》

그때 고개를 든 영호는 눈물을 떨구는 현우혁을 보자 와락 가슴에 안기며 《아버지!》 하고 소리를 지른다. 얼굴을 가슴에 비비며 목을 꼭 그러안는다. 가느다란 발목이 바르르 떨렸다.

《아버지!》

현우혁은 눈물을 터뜨린 영호의 잔등을 쓸어주었다.

금녀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돌아앉는다.

여직껏 현우혁에게서 영호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다. 그러나 이렇게 뼈에 사무치는 심정을 이해하지는 못했었다.

그는 가슴의 아픈 상처를 할퀴운듯 하여 높이 들먹이는 앞가슴을 움켜잡고 눈을 내려감는다.

왜 이다지도 어리석었는지 알수 없다.

남편은 다리를 절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철길을 걷고있지 않는가!

영호는 손끝이 얼어드는것을 참으면서 학교가던 길에 열음을 까낸다. 한데 내가 선로원의 안해답게 한 일이 무엇인가! 더구나 로동당원의 안해다운 점이 나에게 바늘끝만치라도 있었는가! 그는 영호를 그러안고 실컷 울었으면 좋을것 같았다. 그래서 지난날의 잘못들을 모두 사과하고싶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사랑을 이다지도 생각못하고 있던 딸인가!…

금녀는 밤이 깊었는데도 바느질감을 무릎에 놓은 채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앉았다. 래일 길을 떠날 남편의 옷을 손질하고있었다. 바느질감은 보이지 않는데 눈물만 자꾸 쏟아진다.

그는 낮에 《아버지》하고 소리를 지르며 목에

매여달리던 영호를 생각했다.

누운 그의 얼굴과 석회를 다루어서 손끝이 빨갛게 된것을 보고있노라니 목이 꼭 매여왔다. 지각을 하지 말라고 한번 타이른 다음부터는 통학거리가 5리나 멀어졌으나 한번도 지각해 본 일이 없는 기록한 아이다. 아버지의 넋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바늘을 든 금녀의 손이 바르르 떨린다. 눈물은 바느질감에 철새없이 떨어 진다.

자던 남편이 깡하고 돌아누우면서 앓음소리를 한다. 얼굴을 가리웠던 책이 미끄러져 툭 떨어진다.

금녀는 깜짝 놀라 눈물을 훔치고 밀려나간 이불을 끌어다 덮어준다. 남편은 이불을 젖히면서 손을 자꾸 내두른다.

금녀는 남편의 손을 얼른 잡아보았다. 손바닥은 돌에 긁히고 찢어져서 만신창이다. 피가 터진 자리에 검은 딱지가 앉았는데 그것이 죄여드는 모양이다.

그리고 보니 저녁상을 받고 얼른 숟가락을 들지 못하던 일이며 밥을 몇술 뜨다가 숟가락을 덜렁 떨어뜨리던 까닭을 이제야 알수 있었다.

현우혁은 오전중에 차굴에 회를 바르고 오후에는 강습갈 차비를 하느라고 고되게 일을 했다. 강습가 있는 동안 사고를 내지 않게 하자면 많은 일을 미리 해놓아야 했다. 떨어질만한 돌을 찾아내어 미리 떨구어 치워야 했다.

그는 망태에다 썰기감, 방치, 바줄, 뿔끼통들을 넣어지고 벼랑턱을 기어올랐다. 드노는 돌에다가는 썰기를 쳐놓고 미타한놈은 지레대로 미리 떨구어버린다. 균렬이 간 벼랑에다가는 뿔끼를 칠해서 먼데서도 알아 보게 해둔다. 발을 붙일수 없는데는 허리에 바줄을 매고 허공에 데롱데롱 달리며 돌을 까낸다. 여러 봉우리들을 오르내리는동안 장갑은 거덜이 나고 손은 굵히여 피가 터졌다.

이렇게 하루를 보낸 현우혁은 지금 깊이 잠이 들었다.

금녀는 남편의 손을 쥐고 몸을 떨었다.

왜 내가 벌써부터 도와나서지 못했는가! 내가 남편을 사랑했고 그를 위한다는것이 과연 무엇이었던가! 밥을 짓고 옷을 손질하고 그저 고스란히 남편이 하는 일을 구경한것밖에 더 무엇이 있었는가! 영예군인이고 선로감시원이며 당원인 그를 위한것이 무엇이었던가! 생각하니 제손은 너무나 희고 부드럽다. 한 일이 너무 없다.

금녀는 남편의 손을 끌어다가 가슴에 대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여보! 차라리 이 주먹으로 나를 꼭 때려주구려! 이 미련하고 우둔한것이 정신을 버쩍 차리게… 네?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우? 언제까지 버려두시려우? 당신은 너무 야속해요. 내가 왜 당신의 팔다리가 될수 없겠어요! 너무 약한가요? 내 손은 너무 가늘고 희지요. 하나 나는 살이 찢기고 뼈가 가루가

되어도 좋아요. 당신을 도울수 있어요... 종이장도 맛들면 낫다지 않아요...

그는 지나온 모든것이 후회되었으며 부끄러워졌다.

바위골로 이사할것을 반대한 어리석은 짓이며 들떠서 거리생활만 바라보고 선로반장에게 한 불평이며, 초소근무기한만 따지던 일들이 단꺼번에 떠올랐다. 더구나 가슴을 오려내는듯 아프게 한것은 저녁상을 받은 남편이

《거 무슨 천조박이 좀 없겠소? 굴러내림직한 돌 째에다가 먼데서도 알아볼수 있게 기발을 만들어 쫓았으면 좋겠는데. 뽕끼로 짬을 바르기는 했어두 이제 색이 날고 풀이 무성하면야 알아볼수 있어야지. 생각해보니 대를 해서 기발을 쫓으면 돌이 기울어 들자 자연 기울거야. 그럼 소경막대질하듯 아무데나 벼랑을 기어오르지 않아두 미리 알수 있거던...》

했을 때 금녀는 탐탁히 듣지도 않았거니와 오래 생각지도 않고 얼른

《그런 천이 어디 있나요.-》

해버린것이다.

금녀는 얼굴을 싸쥐고 돌아앉았다.

몸이 부르르 떨린다. 그는 녀없이 앉았다가 정신이 들자 농문을 열고 옷가지를 꺼내기 시작했다. 양복, 내의, 치마 저고리 그밖의 광복과 비단천도 나왔다. 어느 하나 기발이 뒹진것인 없다. 흰것, 검은것, 초록 모두 수풀속에서 잘 나타나기 어려운 빛갈들이다.

그는 재빨리 일어나 선반에서 고리짝을 내리었다. 거기에는 백지에 쓴 다홍치마가 있었다. 시집올 때 어머니가 입었다는것을 대를 물린다면서 넣어준것이다.

《그래, 이게 어디서나 잘 뵈거야.》

금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다홍치마의 폭을 잘라 활짝 방바닥에 펼쳐놓았다.

(어머니도 그런데 썼다면 오히려 기뻐하실거야.》

금녀는 가위를 들고 숨을 기껏 들이마셨다가 후내쉬었다.

한결 가슴이 가벼워지는것 같았다. 가위는 다홍치마 한복판을 사박사박 가르며 나간다. 가로 자르고 세로 자르니 책장만큼씩한 기폭이 되었다. 금녀는 가슴이 환히 트이는것 같았다. 애지중지 건사해오던 치마폭이다. 그러면 어쩌랴! 폭탄을 안고 걸어나간 영호의 친아버지의 녀이 이 철길에 깃들었고 명호의 원한의 눈물이 찾아든 이 철길을 지키는 것이라면 아까울것이 무엇이랴! 이것으로 3년간이나 초등학교를 돌아다니며 영호를 기어이 찾아낸 남편의 지성에 대한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쁠것 같았다.

목숨으로 지켜낸 철길이다. 휘황한 사회주의 래일을 향해 온 나라가 이 길로 뒹굴고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리를 절며 이 길을 걷는것은 한로동당원이 이 선로를 떠받들고있는것을 의미한다. 아니 영호 친아버지는 가슴으로 이 철길을 받들고 있는것이다. 거기에서 나도 침묵밑에 깔린 자그마한 한개 돌처럼 되어야 한다.

금녀는 벌써 치마가 아니고 붉은 기폭으로 된것을 집어들었다. 붉은 빛이 윤이 돌고 눈이 부시다.

금녀의 가슴은 높이 들먹이었다. 눈물이 불을 적시며 치마폭에 굴러떨어진다.

그는 다시 가위를 든다.

반나마 열어놓은 창문으로는 교묘한 달빛이 흘러든다. 마치 흰 명주필을 엇가로 내리드린듯 하다.

그 이튿날 현우혁은 회의에 떠나게 되었다.

금녀와 영호는 멀리까지 따라나왔다.

《영호야, 너 백일홍을 잘 가꾸어라, 이제 곧 필게다.》

《네!》

현우혁은 영호의 손을 잡고 흔들어주었다.

넋직한 마당가에는 키가 한뼘이나 자란 백일홍들이 한벌 깔리었다. 백일홍은 도톰하고 아들아들한 잎을 몇개씩 달았고 봉긋한 망울들을 모두 하늘로 쳐들었다.

《여보! 그동안 잘 부탁하오. 그리고 이 백일홍을 철길가에 옮기면 어때?》

《넌려마세요.》

《그리고 또 숙제가 있는데 몇번이고 짬이 있는데로 읽소, 응?》

이렇게 말을 하며 옆주머니에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꺼내준다. 금녀는 하도 여러번 읽어 이제는 줄줄 외우다싶이 한것이지만 몇번이고 더 읽어 보리라고 싱긋 웃어 보이며 책을 받아든다.

현우혁은 시물 웃으며 금녀의 어깨를 두드린다.

《읽고 또 읽어야 하는거야, 몸에 폭 배게. 그리고 내가 없는동안 반에서 누굴 보내게 하지...》

《네?》

금녀는 흠칫 놀라며 한걸음 뒤로 물러선다.

《그럼 당신은 나를 아직... 믿지 못...》

현우혁은 껄껄 웃어보며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룡담을 했다고 얼른 둘러대고나서 손을 내저으며 성큼 성큼 내쳐 걸기 시작한다.

금녀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다. 그러면서 그는 감시원의 안해답게 로동당원의 안해가 초소를 지킬터이니 넘려말고 다녀오라고 말하려 하였으나 막상 마음뿐이지 입을 열수가 없었다.

현우혁이 떠나간뒤 금녀는 곧 집으로 돌아와 집안을 치우고 싸리를 꺾으려 산으로 올라갔다. 치마

를 오린 기폭에다가 대를 만들자는것이다.

싸리로 대를 만들어가지고 로동화를 단단히 죄어 신은 다음 《홀러온 산》 쪽으로 갔다.

거기에는 석축을 쌓고 콩크리트도 했지만 워낙 락석이 심해서 어제 하루 현우혁이 무진 애를 쓴 곳이다. 뽕끼칠을 해놨다고 하지만 물이 흐르면서 색이 벌써 날아져서 철길에서는 알아볼수가 없게 되었다.

날씨는 마뜩지 않다. 동쪽하늘에서 구름때가 몰려 온다. 날은 무덥고 침침하다. 필경 비가 올 징조다.

금녀는 벼랑밑에 가섰다. 거의 90도의 절벽인데 군데군데 불쑥불쑥 내민 바위불이 있고 진달래가 바위쥬에 검질기게 뿌리를 박았다. 그 새쥬으로는 질척질척 하니 물이 흐르고 돌우에는 이끼가 한벌 내돌았다.

금녀는 벼랑에 기여오르기로 결심했다.

바위불을 든든히 잡고 조심조심 한번씩 옮겨디딘다. 한걸음한걸음 절벽을 정복해나간다. 올려다보면 구름이 흐르면서 하늘이 빙빙 도는것 같고 발밑을 굽어보면 허공에 뜬것처럼 아찔하다. 벌써 두길이나 올라왔다.

그럴 때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굴러떨어졌다. 몇번 기여올랐지만 거둬 미끄러져내렸다. 그는 다시 일어나 이를 악물고 벼랑에 달라붙었다.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기발을 쫓아야 한다.)

그는 아슬아슬한 벼랑턱을 기여올랐다. 이번에는 곧추 오르지 않고 엇가로 질러올라 가기로 했다. 아차 발을 빗디디면 또 허방 떨어질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입술을 깨물면서 팔에 힘을 주어 몸을 추어올랐다.

영호 아버지가 목숨으로 지킨 철길을 위한다고 생각하니 못할 일이 없었다.

《금녀! 용감하라! 굴하지 말라!》

(그렇다... 굴하지 말아야 한다. 저 산에 오르자. 그래서 기를 쫓자.)

금녀는 열결에 가슴을 만져보았다. 가슴에는 싸리로 대를 만든 붉은 기발들이 그냥 꽃혀있다. 금녀는 팔을 벌리고 바위벽에 든든히 달라붙었다.

그는 머리를 쳐들어 산봉우리 한끝을 주시하며 발을 옮겼다.

그는 무서울것이 없고 오르지 못할 벼랑이 없을것 같았다.

금녀는 드디어 《홀러온 산》 높은 봉우리에 올라섰다. 그리하여 현우혁이 뽕끼를 칠한 위험개소에 붉은기를 쫓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에 만분의 하나라도 보답하게 될것을 바라며 금녀는 해가 저물도록 절벽을 기여올라 서른군데나 기발을 쫓았다.

산을 내려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장수봉에는 철

쫓꽃이 붉게 피었고 왁새봉에는 개나리가 누렇게 깔렸다. 그런데도 유묘하게 눈이 부시게 붉고 나불거리는 금녀의 다홍치마폭기발은 어디에서나 잘 보이었다.

금녀는 무거운 발길을 천천히 옮겨 디디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날이 어두워지자 안개비가 굽어지더니 차차 비발이 서기 시작하였다.

집에 오니 영호가 비를 맞으며 철둑가장자리에 백일홍을 옮겨심고있다.

줄을 지어 가지런히 심어놓은 어린 백일홍은 봉긋한 망울을 일제히 하늘로 쳐들었다. 해만 나면 금방이라도 아이들 손바닥같은 꽃송이가 활짝 퍼질것 같다. 비방울이 봉오리에 떨어지면 한들한들 흔들리면서 진주알같은 물방울을 뽐어놓는다.

영호는 손에 진흙을 잔뜩 발라가지고 성수가 나돌아간다.

《래일아침이면 피겠지요?》

《그래.》

《어째 이 꽃이름이 백일홍이냐요?》

《오래오래 백날두 더 붉게붉게 피어 있다고 해서 백일홍이란다.》

《난 새빨간 빛이 참 좋아!》

금녀는 영호를 도와 백여포기나 되는 꽃을 다 옮기고 저녁을 했다.

밤이 들자 비는 대줄기처럼 쏟아지고 바람은 사납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금녀는 자리에 누울수 없었다.

그는 등불을 들고 철길에 나섰다.

먹물을 부은듯이 밤은 캄캄하다.

얼마 가지 않아 비웃은 흠뻑 젖었고 옷을 꿰뚫고 물이 스며든다. 등골로, 허리로 찬물이 흘러내린다. 게다가 온몸은 노그라지고 무릎은 잘 눌러지지 않는다. 몇걸음 나가다가 침묵에 발부리를 걸쳐여 엎드려진다. 그러면 등불은 어딘가 굴러떨어진다. 먹물속처럼 사방은 캄캄한데 손더듬을 해서 상호등을 찾아낸다.

골짜기에서는 와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어디선가 와르르 돌담 무너지는 소리도 난다.

금녀는 줄음을 쫓느라고 벼랑에서 떨어지는 물에다가 머리를 들이댄다. 그러면 얼음처럼 찬물이 머리를 식혀주어 한결 기운이 솟는다. 그리고는 또 걷는다. 돌을 안아낸다. 물도랑을 친다.

비바람은 지긋게 기승을 부리면서 밤을 지새는 금녀를 철길에 자빠뜨리길라도 하려는것 같더니 먼동이 흰히 트이면서 차차 머리를 숙이려들었다.

지쳐버린 금녀는 집에 돌아와 아무렇게나 몸을 던졌다가 첫 새벽에 다시 일어났다.

날씨는 동전하늘이 푸르스름해지고 선들바람이 불면서부터 가랑비로 바뀌었다.



그러나 재빨리 손을 써야 했다. 골짜기마다에서는 차차 더 물이 쏟아졌고 돌이 굴렀다. 6시 평양형 러객렬차시간도 박두해온다.

금녀는 급히 서둘러서 지레대를 메고 철길에 나섰다. 학교갈 시간이 멀었다면서 영호도 씩씩거리며 뒤따라나섰다.

금녀는 언제나 위험감시지점으로 되어있는 《홀려온 산》 쪽으로 달려갔다.

철길에는 여기저기 너저분하니 돌이 굴러떨어져 있었다. 골짜기에서는 벌건 흙탕물이 몰려내려와 철썩을 뚫다 떠받고는 빙그르르 돌면서 침묵밀을 들이파면서 요란한 소리를 낸다. 금녀는 나는듯이 달려들어 돌을 넣어 준비해 두었던 비상용가마니를 물이 고인 웅덩이에다 들어박았다.

이렇게 네댓군대를 손질하면서 계속 X제표지점을 향해서 달리였다.

눈치빠른 영호는 금녀를 따라오지 않고 그의 반대 쪽인 0제표지점으로 달려갔다.

한참 나가다가 금녀는 서말들이 독만한 돌과 맞다들었다. 그는 지레대를 돌 밑에 들이박고 어깨로 추어올렸다. 독처럼 둥글게 생긴 이놈은 앉은 자리에서 끄떡하지도 않는다.

그때 벌써 산너머에서는 들릴락말락한 기적소리가 울려온다. 레루는 렬차바퀴에 울리어 가롱가롱 울기 시작한다.

금녀는 초조하고 불안해했다. 팔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 서둘러 그런지 지레대는 자국에 박히지 않고 힘을 쓸 때마다 자꾸 벗어져나간다.

또한번 기적소리가 울린다. 이번에는 확연히 차굴을 넘어서는 신호같다. 이쯤 되면 3분 아니면 기껏해야 5분이면 여기에 와닿는다.

금녀는 온몸의 힘을 모아 지레대를 떠메고 일어섰다. 돌은 움푹하더니 도랑으로 미끄러져내린다.

금녀는 안도의 숨을 후 내쉬면서 허리에 찼던 신호기발을 뽑아들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반대방향인 0제표지점 쪽에서 영호가

《엄마!》 하고 다급한 소리를 지른다. 고개를 펴 푹 돌린 금녀는 철길 한복판에 엎드려서 돌을 안고 빙빙 돌아가는 영호를 보았다.

(아! 늦었구나!)

하는 순간 금녀는 허리춤에 넣고 온 비상용정차 신호퇴관을 생각했다. 퇴관을 레루우에 놓으려다 말고 금녀는 영호있는데로 달려갔다. 위험하다고 소리치며 엎드린 영호의 허리를 안아일으킨다.

영호는 돌을 그러안고 땀 들어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영호야! 차가 온다!》

《엄마!》

영호는 울상이 되어 쳐다본다.

금녀는 이 순간에 영호가 무엇을 생각하고있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다. 폭탄을 안고 철썩을 걸어 나간 친아버지며 다리를 절며 밤낮을 철길에서 지내는 양아버지를 생각하는것이라!

하지만 이제는 벌써 때가 늦었다.

그는 다급히 허리춤에서 퇴관을 꺼냈다. 이것을 레루에 놓기만 하면 렬차가 통과하다가 신호를 받게 된다. 그러면 렬차는 멎는다.

금녀가 레루를 향해 허리를 굽히려는데 영호의 고함소리가 또 들려왔다.

《엄마! 빨리-》

금녀는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 언젠가 조올다가 상호등 대신에 모자를 들고 나왔을 때 남편이 하던 말이 귀에 쟁쟁히 울려왔다.

금녀는 나는듯이 달려가서 영호와 한덩어리가 되어 돌을 그러안았다. 굴릴수도 없고 들수도 없는 뿔이나고 밀이 넘적한놈이 철길 복판에 들이박히었다. 두사람이 기를 써야 한켠 귀가 뻑뻑히 들렸다가는 또 털썩 주저앉곤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차를 세워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니 눈앞에서 불이 이글거리고 수십 개의 영호의 얼굴과 그 아버지의 얼굴이 번갈아 빙글빙글 돌아간다. 남편의 얼굴도 나타난다.

금녀는 눈을 질끔 내리감고 돌을 안았다. 두팔을 레루에 번디디고 안간힘을 썼다. 돌은 한바퀴 뒤져졌다.

다시 《옥》 소리를 지르며 금녀와 영호는 허리를 폈다. 돌이 한바퀴 굴었다.

두사람은 돌을 따라 데굴데굴 도랑밑으로 굴러내리었다.

그때에 산굽이를 돌아선 렬차는 기적소리를 요란히 울리며 쓴살같이 다가왔다.

금녀는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그리고 허리에 찼던 신호기발을 뽑아들었다. 고개를 돌려 질주해오는 렬차를 주시하면서 금녀는 푸른 기발을 내들었다. 그리고 발을 돌으며 팔을 흔드는것이였다.

렬차는 산이 쟁쟁 울리게 길고 요란스러운 기적소리를 울리었다. 통과신호응답이다.

렬차는 질풍처럼 내달리면서 남녀와 영호에게 거센 바람을 들썩운다.

기적소리는 오래오래 여음을 끝면서 장차강물줄기가 감기며 풀리며 흘러내리는 산골짜기들을 울려놓는다.

마치 은은한 복소리가 오래지 않아 닥쳐올 렬명을 알리기라도 하는것 같다.

금녀는 가슴에 회열이 넘쳐흘렀다. 팔다리는 마냥 진정할길없이 쭈뼛다. 그의 눈에서는 두줄기 눈물이 주르르 불을 적시며 흘러내린다. 그래도 그는 렬차가 사라진 산굽이를 뚫어 지게 바라보았다.

이때 문득 언젠가 남편이 들려준 한마디 말이 떠올랐다.

《분계선패말을 찍어던지고 끊어졌던 철길을 다

시 이을 때 거기에 가서 우리 이 푸른 기발을 쳐들  
시다. 우리가 다음 이사갈 곳은 거기요.》

또다시 앞산너머에서 기적소리가 울린다. 둔중한  
그 음향은 온 천지를 진감시키면서 끝없이 메아리  
를 일구며 멀리멀리 울려 퍼진다.

금녀는 팔을 더 높이 쳐들며 발을 뚫는다.

대가 꺾일듯이 기발이 나뭇긴다.

금녀의 옷자락과 치마폭도 물결친다.

활짝 들어올린 렬차차창으로 사람들이 얼굴들을  
내밀었다.

철쭉에서는 치마저고리가 물에 흠뻑 젖고 온몸에  
흙투성이가 된 한 젊은 여인과 또 그와 마찬가지로  
불꽃없이 어지러워진 어린 소년이 팔을 내젓는다.

이윽고 소년은 발을 모으고 오른팔을 들어 소년  
단경례를 한다.

동쪽 산봉우리에는 일년감빛 아침해가 솟아오른  
다. 비가 오다 멎은 초여름의 산골짜기에서 싱그러  
운 바람이 불어온다.

사람들은 바로 이것들-랑림산맥의 아아한 렬봉  
들과 운무가 흐르는 이 산협에서의 해돋이에 매혹  
되었을수도 있고 철쭉꽃이 만발한 장자강기슭 살뜰  
한 봄향기에 취했을수도 있었으리라 하지만 철쭉에  
나선 이 사람들이 누구며 그들의 생애에는 과연 어  
떤 사연이 깃들어있으며 더구나 달리는 렬차를 바  
라보는 그들의 얼굴에는 왜 그렇게도 희열이 넘쳐  
흐르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

더구나 달리고있는 렬차밑에 끝없이 뻗어나간 레  
루들이며 그것을 떠받들고있는 침묵이 얼마인지 그  
리고 그밑에 자그마한 한개한개의 돌들이 그 육중  
하고도 또 질풍처럼 달리는 렬차의 고임돌이 되고  
있음을 누구나 다 이때 알고있지 못했으리라!

철쭉에 이슬을 담뿍 머금은 한떨기 백일홍이 피  
었다.

바람에 꽃잎이 흔들린다. 춤을 춘다.

(1961년)

## 나는 산골마을 분교에서 자랐네

채 동 규

철없던 소학교시절

나는 산골마을 분교에서 자랐네

회가루칠 하얗게 눈부신 교실에선

산나리꽃처럼 수집은 처녀교원

교작해야 열댓명 철부지들을 가르쳤네

아침이면 오복한 산촌에 울려가던

정겨운 수업종소리

저녁이면 분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반겨

청맑게 퍼져가던 어머니들 부름소리

그 시절 내 무엇을 알았으랴만

조국이며 그대 모습

스스럼없이 어린 가슴속에 깃들었네

수령님 주신 선물옷 쌍둥이들처럼 차려입고

분교뜨락이 비좁도록 하냥 좋아라 뛰놀 땀

어이하여 선생님 눈가에 더운것이 고이군 했던가

색깔고운 교과서 한아름 안고 오면

어이하여 아버지 어머니 온밤 잠 못 이루며

그리도 정성껏 결표지를 씌워주군 했던가

어이하여 분교창가에 비껴드는 해빛은

그리도 티없이 깨끗했던가

어이하여 어이하여

함박꽃 도라지꽃 피어웃던 분교꽃밭은

지금도 내 가슴속에 향기로이 설레고

애들과 때없이 나뉘먹던 깨잎이며 군밤맛은

한생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는것인가

산그늘 깊은 교장이건만

아이들 얼굴에 그늘 한점 질세라

다심한 사랑 기울여준 어머니조국이며

정녕 산골마을 분교는

내 아이에 새겨진 그대의 첫 모습이었네

칠판우에 새겨지는 하얀 글자들속에선

그대의 살뜰한 목소리 울려나왔고

학습장의 또렷한 줄칸들에도

그대의 티없는 눈빛이 어려있었네

학교라 하기엔 너무도 작았던 분교

허나 그것은 어릴적 나의 크나큰 조국의

세계였나니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자식

후더운 한품에 안아 차별없이 키워준 조국

이렇듯 정이 가고 사랑이 가며

이렇듯 눈물겹도록 고마운 품 잇는다면

내 생애에 과연 무엇이 남으랴

명절이면 분교지붕우에 공화국이 띄우며

수령님노래 목메여부르던 그 시절처럼

추적으로 사랑으로 한생을 불태우며

장군님 이끄시는 선군조국 받들어가려니

아 나는 산골마을 분교에서 자랐네

## 대흥단사람들

엄성영

얼마전 나는 대흥단군에 다녀온 일이 있다.

정에서 노여움이 난다고 김창민연구사를 찾아가는 내 마음은 가볍지 못했었다. 글썄 우리 나라 북부고산지대의 기후조건과 토양조건에 맞는 우량한 감자품종연구사업에 골몰하던 그가 갑자기 연구소를 훌쩍 떠나 어느 농장으로 내려갔다지 않는가. 지금쯤 학위논문이 완성되어 학계에 과문을 던지고 조국의 축복을 받으리라고 여겼던 그가 왜 그렇게 돌변하였는지 영문을 알수 없었다. 실패? 책벌? 인편으로 얻어들은 소리지만 섭섭하기 이틀데 없었다.

그로 말하면 지금 내가 쓰고있는 작품의 주요인물의 원형인물이기전에 소학시절부터 배꼽을 드러내놓고 강가에서 함께 미역을 감던 소꿉동무였다. 농업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는 당의 감자농사혁명 방침관철에 한생을 바치겠노라며 혼연히 북부고산지대로 배낭을 메고 떠나와서 대흥단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런 소꿉동무를 곁에 두고있는 걸 은근히 자랑으로 여겨왔다.

(헛참, 믿는 나무 거꾸러진다더니...)

부지중 나의 머리속에는 지금 내가 쓰고있는 작품이 어지간히 고충을 겪게 되리라는 위구가 갈마들었다.

혜산역에서 내린 나는 마침 대흥단군으로 가는 차편이 있어 제창 자리를 옮겨앉았다. 도에서 조직한 회의에 참가했다가 돌아가는 대흥단군경영위원회 일군은 다변가였다.

《작품을 쓰러 간다지요? 쓰십시오. 대흥단사람들에 대해 써주십시오. 감자꽃을 무척 사랑한답니다. 왜냐구요?》

그는 감자꽃을 피워주시려 우리 장군님께서 걷고 걸으신 사랑의 역사를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령님어 산넘어 굽이굽이 거룩한 자옥을 남기시며 북방멀리 대흥단군에 찾아오실적마다 감자농사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세심히 밝혀주시고 그것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좋은 종자, 물거름, 정성, 이 세가지를 감자농사의 만능묘술로 가르쳐주신것이다.

자동차는 눈속에 묻힌, 곧게 뻗은 길을 따라 힘차게 달리고있었다. 성냥개비처럼 이빨나무들이 뻑뻑하게 늘어선 울울창창한 밀림의 바다, 저 멀리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장엄한 모습이 숭엄하게 안겨온

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은 아로새긴 명제비, 표식비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내 나라, 내 조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가를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는 글밭이다.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하여 한치한치의 땅을 선혈로 물들인 항일혁명투사들의 숨결이 뜨겁게 느껴지는 땅 장엄하게 물결쳐 간 밀림의 바다를 누비며 달리던 자동차가 무봉등판에 오르니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진 감자밭들이 정겹게 안겨왔다. 바람막이술사이로 바라보이는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을 지나 얼마쯤 기세 좋게 달리던 자동차가 홍암에서 멈춰섰다.

경영위원회일군이 미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관리위원장동무를 만나 토론할 일이 있어서 그러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홍암땅을 밟아보고 싶던 점니다.》

《그럼 이곳 녀성작업반장동무부터 만나보십시오.》

나는 아직 한번도 만나본적 없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었다.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대흥단에 3대혁명소조원으로 파견되었던 그, 대흥단의 감자농사에 심신을 불태우며 남들보다 모범적으로 소조기간을 마친 그, 변화한 도시로 되돌아갈수 있었지만 한생을 감자농사에 바치기로 결심하고 홍암땅에 떨어져 작업반장으로 일하고있는 그였다.

나는 그를 감자저장고 선별장에서 만났다. 혈색이 좋은 40대의 건강한 녀성이었다.

《지난해 감자농사에서 장훈을 불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요?》

《우리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시대로 좋은 종자를 골라 심었기때문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대흥단군에 찾아오시여 몸소 우리 작업반 감자포전까지 돌아보시였답니다. 감자수확기로 감자를 수확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며 앞으로 좋은 종자를 골라 심어 해마다 감자대풍을 마련하라고 저희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녀성작업반장은 위대한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였던 그날의 환희와 감격이 되살아나는듯 얼굴에 밝은 웃음을 지었다.

나는 작업장을 다시한번 둘러보았다. 여러명의

작업반원들이 서로 마주앉아 감자종자를 선별하고 있는데 그들의 일손은 날개라도 돌친듯 싶었다.

《모두 신바람이 났군요.》

《올해에 더 큰 감자대풍을 마련해야지요.》

밖에서는 눈보라가 일고있지만 작업반원들의 가슴속에서는 봄이 태동하고있었다. 아니, 풍작을 안아올 그날에 살고있었다.

《대흥이 엄마. 뭘해요? 선별된 감자를 빨리 옮기세요.》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젊은 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감자상자를 안고 해빛처리장으로 향한다.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의 뒤를 따랐다. 알세가 균일한 종자감자들이 덕대우에 주런이 널린 모양을 지켜 보느라니 자연히 생각이 깊어졌다. 그전날 불을 지펴 감자밭을 일구고 감자눈을 따서 땅에 묻으면 감자농사가 되는것으로 알고있던 화전민의 농사법이 아니라 최신과학기술의 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운 감자농사 방법이었다.

《통알감자를 심으면 결주를 막는다지요?》

《예, 감자씨를 자래우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보장받을수 있어요. 그리고 한포기에서만도 추중으로 수십알의 감자가 좌락좌락 달려요.》

대흥이 엄마의 대답이었다.

《대흥단감자는 맛도 별맛이라지요?》

《그래요. 대흥단감자에는 농마, 단백질, 기름,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요. 감자는 사람의 정상적인 발육과 성장을 좋게 하는 동시에 항암제로도 널리 쓰이지요. 감지를 공업적으로 가공하면 국수용감자가루, 만두, 파자류 등 여러가지 가공제품을 만들수 있습니다. 뿔스카와 도이칠란드, 핀란드, 스웨리예, 아일랜드, 프랑스와 같은 유럽나라들에서는 감자를 주식으로 하고있고 로씨야사람들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사람이 1년동안에 평균 120키로그램의 감자를 먹 고있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사람들은 해마다 6~7월의 어느 하루를 감자절로 정하고 감자를 주식으로 귀빈을 환대하며 오락회도 연다고 합니다.》

젊은 녀인은 내가 길손이란것을 느꼈는지 감자자랑에 시간가는줄 몰랐다.

《농업대학을 졸업했는가요?》

《피복기능공학교를 나왔습니다.》

나는 젊은 녀인을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알고보니 그는 성천강피복공장에서 재봉공으로 일하다가 당의 부름을 받들고 이곳으로 자원진출했는데 대흥단에 집단진출 한 제대군인총각과 가정을 이루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있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감자박사>가 되였는가요?》

《저녁마다 <과학기술지식보급실>에서 기술강의

를 받는데요워.》

《누가 강사로 출연하는가요?》

《기본강사는 연구사동지랍니다. 감자연구소에 있던 김창민이라고...》

나는 대뜸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럼 김창민이 홍암에? 초빙강의때문에? 뭔가 석연치 않아 머리를 긁적거리고있는데 대흥이 엄마가 소리쳤다.

《연구사동지가 저기 오는구만요.》

《아니 이게 누군가? 현실체험을 나왔나?》

나를 먼저 알아본 김창민이 반색을 하며 달려와 두 팔을 잡아흔든다. 나는 머리를 끄덕이고나서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여기로 아주 내려왔나?》

《그렇네》

《영문을 모르겠구만. 난 지금쯤 자네의 창조물이 학위논문으로 발표되고 조국의 축복을 받으리라 믿었는데...》

《미안하네. 창조물이라고 다 호평을 받는건 아니지 않나? 난 서둘러 만세를 부르는 빈소리군이 되고 싶지 않네.》

《그건 무슨 소리인가?》

《이것 보라구. 생물공학과 같은 최첨단 과학적 성과를 감자농사에 적용하도록 하신분은 우리 장군님이시네 감자재배연구를 일생 전문으로 하는 로박사도 밝혀내지 못한 과학기술적요리를 비범한 예지로 해명을 주신분도 우리 장군님이시지 감자농사혁명은 최신과학기술로 안받침하여야 하는 사업일세. 그럼 누가 우리 장군님의 의도를 과학기술적으로, 실천적성으로 받들겠나? 나는 실험실의 연구성과를 현장 실천에서 직접 확증하기전엔 학위론문을 쓸수 없네. 그래서 여기 홍암으로 내려왔지.》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김 안나는 승냥이 뜨겁다고 김동무야말로 얼마나 진실하고 웅심깊은 사람인가! 그 어떤 학위우에 연구사의 가치가 있는것이 아니라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드리는 높은 실적을 쌓을 때만이 인간의 참된 삶이 빛난다고 생각하는 김동무, 연구사의 삶의 높이는 명예의 높이가 아니라 내 조국앞에 바친 실적의 높이라는 그의 심장의 고백!-

자기의 한생을 조국과 결부시킬줄 알고 당과 수령을 위한 충성의 한길에서 삶의 보람을 찾을줄 아는 이것이 어찌 내가 만난 김동무나 여성작업반장, 대흥이 엄마의 소박한 마음뿐이라! 대흥단사람들 모두의 하나같은 심정이 아니겠는가!

나는 점점 가슴이 뜨거워올랐다. 백두산을 안고 사는 마음, 인생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선 사람들!-

나는 자신을 채찍질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대흥단 사람들의 높은 정신세계까지 뚫아오르기 위한 《고충》을 달개 꺾으리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군인품성을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사설에서

단편소설

## 나의 모습

송출언

### 1

군소채지 중심거리를 지나던 나는 어느 한 속보판 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속보판에서 나의 기억에 남아있는 이름이 눈에 비쳐들었던것이다.

《국화리 6작업반 농장원 석화순》

순간 나는 저도 모르게 이름우에 붙어있는 사진에 눈길을 박았다. 햇빛에 감실감실 탄듯한 가름한 얼굴, 우로 휘여 올라간 가는 살눈섭아래 흑진주같이 예쁘장한 두눈...

이 처녀가 석화순이란 말인가, 석화순...

그러나 다음 순간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는 이미 이 고장을 떠나지 않았는가.

그렇지만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내가 알고있는 석화순이란 처녀는 이 고장에 아름다운 꿈을 안고 왔다가 아픈 추억을 남기고 떠나갔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내가 그 처녀를 알게 된것은 몇해전 일이었다.

그날 나는 방학을 마치고 대학으로 가는 길에 군소채지를 지나가게 되었다.

빠스가 오기를 기다리던 나는 도로옆에 크게 세워 놓은 속보판앞으로 다가갔다.

그러던 나는 문득 어느 한 속보판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국화리농장원이 소개 된것이다.

나는 한해전까지만 하여도 그곳에서 일했었다.

그러니 내가 살던 리가 대문짝같은 속보판에 소개되었는데 어찌 반갑지 않으랴.

내용 또한 이만저만한것이 아니었다.

《언니의 뒤를 이어!》

그아래에는 1년전에 국화협동농장에 진출하였던 언니가 큰물에 희생되자 피복공장에 다니던 동생이 언니가 썼던 초소에 또다시 썼다는 이야기였다.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해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기사가 되었다.

나는 첫 기사의 주인공으로 석화순이를 택하였다.

《아니 이게 누구요? 기사선생이 됐구만.》

관리위원장이 먼저 알아보고 인사했다.

남보다 머리총이 세서 넘기지 못하고 곧추 일어난 머리칼로 하여 예순이 가까와오는데도 훨씬 젊어보인다.

《여기에 석화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석화순이라니? 어느 석화순이 말ियो?》

나는 놀라운 눈으로 그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아직 모르오?》

《무얼 말입니까?》

《석화순인 도루 가버렸소.》

《가다니 어디루 말입니까?》

《헛참, 영 깜빡이군. 그는 종내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지 못한채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고 말았소.》

《뭐라고요?》

나는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앞에서 한순간 굳어지고 말았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가 아름다운 인간에게도 그런 무서운 변절이 있단 말인가.

그는 오히려 이곳에 오지 않았던것만도 못하지 않는가 물론 지금은 어렵다. 어려운 사정을 하나하나 꼽자면 어찌 그 수를 헤아릴것인가.

모든것이 실패다. 아름다운 꿈을 안고 왔던 석화순이도 그것을 지켜주지 못한 관리위원장도 그에 대한 글을 쓰자던 나의 생각도...

그후 나는 한번도 국화리에 나가보지 못하였다. 또 나갈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속보판에서 그의 이름과 맞다든것이 아닌가. 혹시 그가 돌아온것이나 아닌가? 그러나 나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러면 이 처녀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 작업반에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처녀들이 교대로 나타나는가? 만약 그렇다면 석화순이란 이름을 가진 후배는 선배가 남겨놓은 불명예스러운 일 때문에 얼마나 얼굴이 뜨거울것인가.

아니... 이 처녀는 앞서간 석화순이 아니다.

또 되어서도 안되는것이다.

### 2

그러나 생활에는 예상을 뒤집는 일이 너무도 많다. 내가 아니라고 머리를 가로 처은 그 처녀가 바로 내가 이미 기억하였던 석화순이었다.

그곳 관리위원장이 말해주었다.

나는 너무도 놀라운 현실앞에서 입을 딱 벌렸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기에 필경 곡절이 있다. 사람이 생활에서 어찌 탈선이 없겠는가. 더우기 그것은 준엄한 나날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

어찌보면 인생의 교훈을 찾으며 자기를 완성하려

고 애쓰는 그자체가 더 아름다운 소행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그 이야기를 쓰자.

그리하여 나는 바삐 길떠날 차비를 갖추었다.

내가 국화리에 도착한것은 해가 중천에 걸려있는 때였다. 그리 높지 않은 산등성이에 올라서니 마을 전경이 한눈에 바라보였다.

푸른 강이 산변두리로 흐르고 그앞에는 넓은 벌이 시원히 펼쳐져있다. 산기슭에는 이 마을의 표적인 양 큰 정자나무가 서있는데 그쪽 끝짜기에는 새로 저수지가 생겨나고 소형발전소까지 세워졌다. 그아래로 양어장도 있다.

나는 저녁무렵에야 일을 끝내고 들어오는 석화순이를 강변에서 만났다. 군속보관에서 사진으로 보았던 그 처녀가 였었다.

《반갑소, 화순동무 동무에 대해 글을 써볼가 해서 왔소.》

《저를요?》

처녀는 금시 눈이 둥그래지더니 앞가슴에 두손을 모은채 두세걸음 물러섰다.

《선생님, 저에겐 당치 않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처녀라는걸 대충 알고계시겠지요?》

《그렇소. 그렇기때문에 써보자는거요.》

《어떻게 말입니까. <변절자>라고 말입니까?》

순간 나는 찢쩍 소리내어 웃었다. 그렇지만 그것 역시 가슴아픈 웃음이었다. 그의 생활에서 곡절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웃음도 없을것이다.

늑늑한 안개와 함께 물비린내가 흠씬 풍겨왔다.

처녀는 잠잠히 걸다가 돌아섰다.

《어떤 이야기를 쓰시려고 합니까?》

《그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면 되오.》

처녀는 걸음을 옮겼다. 발에 밟히우는 자갈과 모래소리만이 조용히 들릴뿐...

처녀는 다소곳이 숙였던 머리를 쳐들었다. 그리고는 오한이라도 난듯 가볍게 몸을 떨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긴 이야기랍니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우선 우리 언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것입니다. 우리 언니의 이름은 석화라고 합니다. 두 글자이지요. 언니는 그 이름을 좋아했습니다. 언니는 도시에서 태여났지만 여기 농촌에 진출하게 된것은 군대에서 제대될 때에 이미 결심한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나라가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하던 시기여서 누구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 때였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때 언니가 집으로 오게 된것이 나에게는 몹시 기뻐했습니다. 기동이 생겼으니 앞으로 생활도 좀 편해질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농촌에 진출하겠다는것이었습니다.

<너 그게 정말이냐?>

어머니는 놀라운 눈으로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나 나로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언닌 군대에까지 나갔다 왔는데 이제 또 힘든 곳으로 나가야 돼? 이제야...>

<화순아, 나는 비록 제대되었어도 계속 군대시절처럼 살고파.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자면 쌀이 많아야 해. 그것을 풀어야 할게 아니야.>

<그렇지만 언니가 떠나가면 내 힘으로 가정을 지키기 힘들기때문에 그래. 어머니의 마음도 생각해 야지.>

나는 고개를 외로 돌리며 흐느끼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딸자식 둘밖에 없는 우리 집에서는 언니가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딸이 제대되어 오면 좋은 혼처를 정해주려고 은근히 마음을 써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화순아, 우리 네 언니를 농촌에 보내자. 쌀이 많아야 나라가 허리를 편다. 석화야, 용타. 쌀로써 장군님을 받들겠다는 네 마음을 내가 왜 막겠니.>

나는 놀라운 눈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심정으로 말하면 도저히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수 없었던 나였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나의 주장은 과연 리기심에서 출발한것인가? 지금처럼 준엄한 시기가 아니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것입니다.

그리하여 한달후에는 시안의 여러 청년들과 중학교 졸업생들로 농촌진출자 대오가 무어졌습니다. 물론 책임자는 발기자인 언니였습니다.

그들의 머리우에는 붉은 기발이 휘날렸습니다.

나는 뺄스에 오르는 언니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언니, 정말 대장일을 할수 있어? 호미질이란 낫질이랑 배우지 못했는데.>

언니는 나의 코등을 꼭 눌러주었습니다.

<일은 손으로만 하는게 아니야.>

그리고는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호호... 언닌 무슨 결사전에 나가는 용사갈네. 어마어마하게. 그렇지요, 어머니?>

어머니는 빙그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언니도 웃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본 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몇달이 지나서 언니와 함께 농촌진출에 나갔던 금옥이라는 처녀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둥그랗고 오목눈이였는데 나와 동갑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내앞에서 소리내어 울면서 언니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 물... 온 들판이 물천지였다.

그해 여름은 다른 때에 비해 모질게도 비가 많이 내렸다. 땅이 팔죽처럼 물렁물렁해지고 도랑이 두길씩이나 패여졌다.

작업반의 웃논이 패여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때 군병원에 갔다오던 석화가 먼저 이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함께 오던 금옥이와 같이 그곳으로

달려 갔다. 논판의 벼들이 온통 물에 잠기고 논쪽이 여기 저기 패여져나가기 시작하였다.

《이게 어떻게 돼서 물이 이곳으로만 쏠릴까? 눈을 다 쓸어버릴것 같애.》

《언니, 저기...》

금옥이가 얼굴에 흘러내리는 비물을 손바닥으로 문대며 옷골짜기를 가리켰다.

순간 석화는 깜짝 놀랐다. 그곳에 있는 저수지물이 제방의 한쪽 귀퉁이를 패우며 넘어나기 시작하였다.

봄에 가물어 애를 말릴 때에는 한방울이 것처럼 귀하던 물이 지금은 무서운 재난으로 되었다.

저수지의 물을 뽑지 못하면 모든것이 끝장이다.

수문을 열어 물을 수로쪽으로 뽑아야 한다.

《금옥아, 넌 빨리 가서 반원들에게 알려 삽과 곡괭이를 들고 나오라구 나는 수문을 열겠어.》

《언니, 위험해요. 저수지가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러게 빨리 알려라는데.》

《언니, 그럼 함께 하자요.》

《야, 너 정 말을 안듣겠니?》

《죽는다는데.》

순간 석화는 금옥의 귀뺨을 철썩 때렸다.

금옥이는 뺨에 손을 올려댄채 눈물을 흘리며 석화를 바라보았다.

《언니!》

《금옥아!... 내 걱정은 말구 어서...》

《언니!》

금옥이는 할수없이 작업반쪽으로 뛴다 달렸다.

둔덕에 오를무렵 그는 뒤를 돌아다보았다.

순간 《악!》 하고 비명소리를 질렀다.

석화가 긴 쇠장대를 쥐고 저수지수문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아직 언제를 다 쌓지 못했으니 수문둘리개장치가 없다.

그리 크지 않은 저수지여서 수문에는 두터운 판자가 림시로 물을 막고있었다.

그것을 쇠장대로 뜯어버리려는 모양이다.

그 좁은 구멍안에서 물이 쏟아져나오는 경우 바람은 피할새 없다. 석화가 그것을 모를리 없다.

《언니-》

금옥이는 도로 뛰어가면서 석화를 불렀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하기전에 수문에서 물이 쏟아져나왔다.

《언니- 언니-...》

금옥이는 수로를 뛰어나며 부르고 또 불렀다.

그러나 석화는 다시 솟구쳐오르지 못했다.

범람한 물만이 와- 와- 소리치며 흘러갈뿐이다. 하늘에서는 검은 구름이 계속 내리덮이고 비줄기는 더욱 기승을 부린다.

세상천지가 온통 울부짖음만이 팍 찬듯 하였다.

《내가 공장을 그만두고 언니가 일하던 농장에 오게 된 동기는 언니의 묘앞에서였습니다.》

작업반에서 진행하는 장례식이었지만 리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다 왔습니다. 누구나 다 언니의 회생을 두고 슬퍼 했습니다.

한 청년은 언니의 묘앞에서 무릎을 꿇고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석화동무, 이를 어쩌면 좋소. 나때문에 동무가 가다니... 아...>

그는 문일이라는 동무였습니다. 그가 얼마전에 운전기술을 배운다고 하면서 작업반 트랙트르를 몰다가 가슴에 타박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가 그를 군병원에 입원시키고 오다가 잘못되었던것입니다.

금옥이는 금시 실성할것만 같았습니다.

<언니야, 일어나라 책임자라는게... 우릴 이끌고 이곳에 온 대장이 가면 어떻게 해. 꿈이 많던 언니... 그 꿈이 이제... 언니->

그 소리에 반원들이 더욱 흐느끼었습니다.

정말 언니는 대장이면서도 집단의 살림을 책임진 어머니였고 동무들을 손잡아 이끌어주는 생활의 스승이었습니다. 꽃속에 묻힌 묘앞에 있는 작은 액틀에는 군복입은 언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실 언니의 사진들중에는 사복을 입고 찍은것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동무들이 군복을 입은 사진을 선택하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언니는 결코 헛살지 않았다는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가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언니의 고결한 뜻도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니 저절로 슬퍼지고 눈물이 앞섰습니다. 나는 땅에 주저앉으며 언니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언니의 동무들이 나를 불렀고 함께 울었습니다.

순간 나는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울면 그들도 더욱 슬퍼할것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잡으며 일어섰습니다.

언니의 묘를 보느라니 문득 생각되는것이 있었습니다. 언니를 대신하여 내가 이곳에 다시 서면 어떻게?

사실 그것은 마음의 준비가 되었거나 어떤 굳건한 바탕을 계기점으로 하여 다져진 그런 결심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언니의 뜻이 꺾이었다는 분통함, 그의 동무들과 농장원들의 애석해 하는 모습에서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옆에 있는 어머니에게 귀속말로 내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더니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딸자식 하나를 잃더니 더는 이곳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까지 보낼 의향이 없는것이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집에 돌아왔어도 며칠동안 잠을 이룰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언니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고 아름다운 소행을 안고 나섰던 그의 뜻이 미처 펴보일 사이도 없이 사라진것이 분했습니다.

과연 언니의 녀은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가?

나는 도리머리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언니의 녀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돼. 언니는 많은 청년들을 당이 부르는 곳으로 이끈 아름다운 소행의 선구자였고 인생의 끝도 영웅적으로 마무리한 제대군인이야.

언니의 녀은 끝나면 안돼.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니 내가 언니를 대신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언니의 작업반동무들이 내 손을 붙잡고 하던 말이 귀에 쟁쟁히 울려왔습니다.

<화순아, 자주 여기로 놀러 와. 너를 보게 되면 우린 석화언니를 생각하게 될거야.>

내가 이제 놀러 가는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려 가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바로 그런것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는것이 아닐까. 그런데 어머니는?...

나는 그것이 제일 가슴에 걸렸습니다.

언니를 잃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나까지 또 농촌에 내보낸다는것은 어머니로서는 너무도 뼈근한 일이 아닐수 없기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꼭 리해해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며칠후 나는 과견장을 어머니앞에 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나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눈물은 보이지 않으나 속으로 운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나도 고개를 숙인채 조용히 어깨를 떨었습니다.

다음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시원히 넓게 트인 도로옆으로 즐비하게 늘어선 고층살림집들과 그사이 공간마다 놀이터와 휴식장소들이 꾸려진 공원, 거리를 메운 시민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밝은 웃음소리...

어릴적부터 눈익혀온 도시의 모습이었으나 이 순간에는 별스레 새로운 눈으로 오래도록 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이 정다운 도시를 두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공연히 즉흥적인 감정으로 어머니를 괴롭히고 내자신도 성공을 기약할수 없는 험한 길을 택한것이 아닐까?

<결심 품고 나선 길이니 발걸음을 늦추지 말아라.>

내 마음을 넘겨짚고 어머니가 조용히 뇌이었습니다.

나는 놀라운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네 마음은 참으로 기특하다. 그러나 결심은 하루에도 열백번 하기 쉽고 첫 걸음은 즐겁게 땀수 있지만 끝까지 간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다.>

나는 그때 어머니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다는 몰랐습니다. 아직은 내가 인생길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길인가를 알기에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작은 쪽배앞에는 어떤 파도가 밀려오겠는지...

언니를 대신하여 이곳으로 나온 나의 소행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오고 도방송에도 났으며 군속보판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속보를 보았다고 할 때가 바로 그때였을것입니다. 작업반원들과도 인차 친숙해졌습니다. 석화언니의 동생이 왔다고 떠받들었습니다.

내가 농촌에 나가 처음으로 한 일은 풀베기였습니다. 화독처럼 달아오른 대지는 나에게 줄땀을 흘리게 했습니다. 다른 동무들은 모두 실농군이 다 된듯하였습니다.

풀을 툭툭 쳐나가면서 걸싸게 단을 묶어 척척 넘겨놓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음만 앞설뿐 풀단이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갑자기 왼손 등이 찢어지는듯 아파나 나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무도 급해 땀을 쥐였던 손으로 마구 문대니 오히려 아픔이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췌기한테 쓰었구나.>

옆에서 일하던 금옥이가 팔팔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디 내가 한번 봐줄까?>

문득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기겁하여 뒤걸음치면서 돌아보았습니다.

스물네댓 되었을... 술많은 머리가 파도쳐 간 이마아래 철색으로 탄 얼굴과 탄탄한 몸매를 가진 청년!... 언니 장례식때 나의 인상에 깊이 새겨졌던 문일동무였습니다.

나는 손을 뒤로 감추며 뒤걸음을 쳤습니다.

이때 금옥이가 내 손목을 잡아당기더니 문일의 앞으로 내밀어주었습니다.

<치료해준대.>

문일동무는 무슨 풀인가 짓이겨 발라주었습니다. 순간 아픔이 씻은듯이 없어졌습니다. 나는 신기하여 그의 얼굴을 마주보았습니다.

<화순인 참 좋겠네.>

금옥이가 색다른 웃음을 지으며 놀려주었습니다. 순간 나는 얼굴이 달아올라 그에게 눈을 흘겼습니다. 문일동무도 어이가 없는지 허허 웃고는 금옥이에게 주먹을 흔들어보였습니다.

금옥이는 기겁한듯 달아나면서 웃어댔습니다.

<애처롭지요? 그러니 우리가 좀 도와주자요.>

그러자 문일동무는 눈을 부라렸습니다.



<도와준다?... 그렇게 버릇불이면 제힘으로 살  
공리를 못해. 고생도 좀 해봐야 돼.>

순간 나는 얼굴이 확 뜨거워왔습시다.

이렇게 대해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못한 나였습  
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시다.

이곳에 온 첫날부터 언니와 다투었다는 청년...

그때문에 언니가 희생되었다고는 볼수 없지만 그  
때 그가 상하지 않았더라면 언니는 군병원에 가지  
않았을것입시다. 그러면 사전에 저수지에 대한 안  
전대책을 세웠을것이며 언니의 운명도 달리 되었을  
수도 있었습시다. 그렇게 생각되니 그에 대한 감정  
이 좋지 않았습시다.

어느날 금옥이가 개울가에서 나를 찾았습시다.

남동무들의 빨래감을 가지고 나온것 같았습시다.

<화순아, 내 중요한 비밀을 대줄가?>

<무슨 비밀?>

<이건 정말 기막막한거다.>

<무언데?>

<문일동무가 너의 언니가 가지고있던 거울을 건  
사하고있는것 같애.>

나는 그만 눈이 등그래졌습시다. 그가 어떻게 언  
니의 거울을 건사할수 있단 말인가.

언니의 소지품을 돌려주지 못할망정 남이 가지고  
있다는것 자체가 무례한 행동이 아닌가.

<어디 좀 보자.>

금옥이는 나의 손에 빨간 수지로 테를 두른 동그  
란 거울을 올려놓았습시다.

뒤면에 인민군대 모표를 그려넣은 거울!

정말 집에서 보았던 언니의 거울이였습시다.

<문일동무가 너의 언니를 사랑했던 모양이지?>

나는 몸부림치듯 도리머리를 저었습시다.

<아니... 아니야, 그럴수 없어.>

<그건 몰라 사랑이라는거야... 그런 의미에서 자!  
...>

그는 빨래감 하나를 내 손우에 척 얹어놓았습  
시다.

<이건 누구건데?>

<문일동무거야.>

<아니 아니, 싫어 싫어.>

나는 금시 손에 털벌레라도 켜듯이 그것을 개울  
물에 철썩 던졌습시다. 해빛에 반사되어 구슬알처  
럼 명롱하던 개울물이 단번에 이그러졌습시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였습시다.

언젠가 금옥이가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났습  
시다.》

석화를 책임자로 한 일행이 빠스를 타고 리 소재  
지에 도착하였을 때는 벌써 일꾼들이 나와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인원들을 받고 보니 합숙이  
없었다. 제일 먼 6작업반에 가야 하는데 그곳은 아  
직 새로 만든 작업반이라는것이다.

리일꾼들은 토론끝에 당분간 그들을 각 작업반에

분산하여 생활시키기로 하였다.

이때 석화가 나섰다.

《우릴 갈라놓지 말아주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기  
초를 파서 집을 짓고 농사도 하겠습시다. 군대처럼  
말입시다.》

《허어-그 배짱이 마음에 드오.》

허우대가 크고 표정이 변할 때마다 긴 눈썹이 꿈  
틀 거리는 관리위원장의 말이였다. 그는 우선 천막  
을 주겠으니 그것으로 당분간 가설막을 짓고 생활  
하면서 합숙을 짓자고 하였다.

그들은 그 길로 떠났다.

넓은 벌이 무연히 펼쳐진 곳에 살림집이라는건  
고작 네채... 방금 개간한 땅이여서 시뻘겅게 드러  
난 벌이 넓게 펼쳐져있었다.

떠나올 때에는 당장 큰일이라도 칠듯이 흥분되었  
던 그들이였지만 정작 현실에 닥치고 보니 눈앞이  
깜깜했다.

《차, 이거 고생문이 열렸는데.》

《그러게 말이야. 오늘부터 벌을 보며 자게 됐  
어.》

여기저기서 불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예요? 나약한 소리를 하는 동무가...》

석화가 돌아서며 맵싸게 말했다.

이때 남동무들속에서 한명이 나섰다. 아직은 얼  
굴이 말갛고 여물지 못한 몸매를 가진 청년이였다.

《책임자동무, 이거야 너무하지 않습니까. 도착한  
날부터 이런 푸대접이 어디 있습니까. 책임자동무  
때문에...》

그는 그렇지 않느냐는듯 동무들을 둘러보았다.

《동무는 환영받으러 왔나요, 아니면 이곳에서 살  
려고 왔는가요?》

《물론 살려고 왔지요.》

《그럼 됐어요. 여기는 이제부터 영원한 우리의  
터전이예요. 이곳이 우리들의 집이 일어서고 우리  
후대들이 살 곳이에요.》

《후대요?》

《왜 놀라세요. 동무는 이곳에서 장가지지 않겠어  
요?》

《장가요? 거야 뭐...》

몇명의 동무들이 입을 싸쥐고 키득거렸다.

《보라요. 우리가 살고 우리 아이들이 살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해야 해요. 그렇지요, 동무  
들?》

《에-》

《그런데 저 동문 싫은가 봐요.》

와- 하고 웃음이 터졌다.

《이제부터 모든것이 우리의 손에 달렸어요. 자,  
배낭검열을 합시다. 살 준비를 어떻게 해왔는지 보  
잔 말이에요.》

군대식으로 2렬횡대로 서서 모두 배낭을 풀어헤  
쳤다. 절대다수가 내의와 작업복들, 간식이였다. 처

너들에게는 화장품이 더 있었다.

문일의 배낭에서는 주책과 담배 몇팩이 나왔다.

《동문 좀 단단히 틀어쥐어야 할 사람이군요.》

《그건 왜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석화는 모두에게 말했다.

《모두 락제예요. 꼭 손님격으로 왔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작업조직을 하겠어요. 우선 우리가 살 집부터 지어야 합니다.》

석화는 자기의 배낭을 풀어헤쳤다. 그속에서는 목수공구 한조가 나왔다. 모두 눈이 등그래서 마주 보았다.

석화는 작은 손도끼를 문일에게 내밀었다.

《힘든 일을 맡아야지요. 천막기둥을 세우세요.》

문일은 어이가 없어 입을 꾹뾰 다셨다.

《이런것을 생각할 때 문일동문 우리 언니를 사랑했다고 볼수 없었습니다. 아니, 언니가 이곳에서 누구와 사랑할 사이도 없었습니다.

<이 거울은 내가 건사해야 돼. 우리 언니것이니까>

나는 단호히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해 가을부터 우리는 거름생산에 총동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름원천이라야 벼를 탈곡한 짚인데 그것만으로는 어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소재지가까이에 있는 축산반주변에 가서 니란을 채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역시 기름이 문제였습니다. 프락포르에다 실어오면 쉬우려만 그렇게 못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달구지로 나르자니 거리가 멀고 둔덕길이어서 얼마 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고 올 때마다 한짐씩이라도 지고 오곤 하였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거름을 지고 가재풀어구에 들어서고있었습니다.

이때 문일동무가 짐을 내려놓으며 잠깐 쉬어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녀동무들이 저마다 좀더 가서 쉬자고 하였습니다.

순간 나는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언니가 희생적으로 구원한 저수지가 보였습니다. 나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언니를 가슴아프게 추억하곤 하였습니다. 동무들도 아마 그래서 지나가자고 한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일동무가 무조건 쉬자고 하는바람에 어쩔수없이 짐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동지를 추억하는거야 좋은 일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석화동무를 가슴아프게 추억하기만 하지. 우리가 장마철전에 저수지를 완성했더라면 석화동무가 희생되지 않았을텐데.>

동무들은 머리를 숙인채 듣기만 하였습니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일하지 못했기때문이지. 힘든것만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석화동무를 가슴아프게 추억하겠는가. 나는 우

리가 힘들더라도 저수지를 마저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농사일을 켜버리고 저수지를 건설할것이 아니라 야간작업으로 언제를 계속 쌓자는걸 제기하오. 그래야 우리가 석화동무의 희생을 값높은것으로 되게 하고 그의 리상을 꽃피워주는 진정한 동지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오.>

누구나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선뜻 찬성하지 못했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작업까지 한다는것은 벅찬일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모두 말이 없는걸 보니 싫다는 소리데?...>

<싫기는요... 힘드니까 그러지요.>

금옥이가 눈이 울통해서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니 찬성한다?!... 그럼 오늘저녁부터 시작합시다. 힘든것만 생각하면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지 못해. 야간작업구령은 내가 치겠소.>

그날 저녁 문일동문 구령을 치지 않았습니다. 밥술을 놓기 바쁘게 모두 나섰던것입니다.

확실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힘든것이 순간이었습니다. 조금 쉬고나니 또 기운이 솟았고 어느새 저도 모르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설참에는 오락회를 벌리고 저마다 일어나 노래를 불렀습니다.

문일동무도 나섰습니다.

<에- 이 저수지가 완공되면 무엇이 좋은가. 우선 벼농사를 한다는것이요.>

와- 하고 웃었습니다. 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왜 웃는거야? 다 들어보지도 않고... 저수지에서 나오는 물은 어디로 가는가? 금옥동무, 말해보오.>

<거야 논으로 가지요 뭐.>

<저래서 너자는 생각이 짧다는거요. 발전소로 간단 말이야.>

<?>

<수문을 나오는 물압력을 리용하여 거기에 소형 발전소를 건설하자는거요.

그러면 우리 합숙에서는 전기로 조명도 난방도 보장하고 밭도 지을수 있다는거요.>

<야!>

처녀들이 희한해서 환성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물은 어디로 가는가?>

<논으로!>

처녀들이 제격 받아몰았습니다.

<역시 녀자들이란... 수로를 따라간단 말이지요.>

와- 하고 웃었습니다.

수로를 따라 물이 흐른다는건 결국 논으로 간다는 소리가 아닌가요.

문일동무에게는 또 다른 안이 있었습니다.

<수로를 따라가다가 저 아래 둔덕에서 낮은 수로 쪽으로 물을 떨군다는거요.>

<그러면 거기에도 발전소를 건설하지요 뭐>.

<옳소. 그렇지만 거기는 판식타빈이 아니라 물레

방아식타빈을 놓자는거요. 물레방아식타빈은 전기는 적게 나오지만 그대신 그옆에다 분쇄기를 놓고 피대만 편결하면 벼도 찼고 강냉이도 타겔수 있소. 그뿐인가. 타빈축을 길게 뽑아 탈곡기에 편결하면 탈곡도 하게 된다는거요. 요즘 전기사정이 긴장하여 탈곡때마다 애를 먹는데 그렇게만 되면 전기때문에 탈곡이 늦어지는 일이 전혀 없어지게 되요.>

<야!>

동무들은 일제히 환성을 올렸습니다. 품을 크게 들이지 않아도 많은 리득을 얻는 일이였습니다.

<그다음엔 말이요.>

<또 있어요?>

<헛참 물레방아식발전소아래쪽으로 못을 몇개 건설하면 훌륭한 양어장이 되거든. 팔뚝같은 메기, 잉어들을 기르면 우리의 식탁은 얼마나 풍성할것인가!... 그 다음에야 물은 논으로 간단 말이요, 어쩡소, 동무들?>

<좋습니다!>

나는 놀라운 눈으로 문일동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가슴속에 그리도 훌륭한 설계를 안고 있는지... 함께 생활한다고 하여 그는 나와 같은 동무가아니였습니다.

<나는 이 훌륭한 설계를 그림으로 그려 우리 작업반에 붙여놓자는것을 제기하면서 이 분공을 화순동무에게 맡기기로 결심했소.>

순간 나는 끄떡 놀라 그를 마주보았습니다.

<나는 그림을 잘 그릴줄 몰라요. 그리고 꼭 내가 그려야 할 조건이 없지 않나요.>

<있소.>

문일동무는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이윽해서야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이미전에 석화동무가 설계한것이요. 다만 석화동무의 가슴속에 간직했던 래일의 우리 작업반의 모습을 내가 말했을뿐이요. 그러니 동생인 화순동무가 그리는것이 옳다고 생각하오. 동무는 언니의 뒤를 이어 이곳에 나온 동무가 아니요.>

순간 모든 동무들이 박수로써 찬성하였습니다.

나는 눈곱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찌르르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를 잊지 못해 하며 나에게 믿음을 주는 반원들이 고마왔습니다.

정말 문일동문 언니를 사랑한게 아닐까? 그가 어떻게 언니의 가슴속 꿈까지 알고있었을까?

며칠후에 내가 그린 작업반전망도가 함속담벽에 크게 걸렸습니다.

그러나 생활은 단순하지 않았습나다.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날이 흘러가야 하였으며 우리가 겪고있는 현실은 너무도 준엄한 것이였습니다.

이 시기 농촌에서 제일 애를 먹은것은 기름이 부족한것과 전기가 오지 않는것이였습니다.

거기에서 식량난까지 겹쳤습나다.

밥량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저수지공사를 한다는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우선 내자신이 견디여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다 동무들이 지쳐서 주저앉을 때에는 그것이 내탓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언니의 꿈이었고 내가 전망도를 그렸으니 말입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날 나는 문일동무에게 물었습니다.

<...>

<동무들이 다 쓰러질수 있어요.>

<...>

<말 좀 하세요. 병어리가 됐어요?>

<글쎄 나도 모르겠소.>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지휘관이라는게...>

<별수 있소. 프락또르를 쓰면 좋겠지만 기름이 없거든. 없는 기름을 내가 만들수야 없지 않소.>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작업반힘으로는 너무 엄청난 공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때 전망도는 하루에 수십장 그릴수 있어도 그것을 실현하자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어야 하는가를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어쩡든 힘내기를 하는 방법으로는 막연한 일이였습니다.

어느날 관리위원장이 작업장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한 빛이 어려여있었습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 청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된듯 하였습니다.

부지중 나의 머리속에서는 관리위원장에게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방조를 받고싶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 제기라면 들어줄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언니를 대신하여 나왔을 때 그는 눈물까지 머금으며 반가와 하였습니다. 애로되는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라, 화순의 제기만은 꼭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관리위원장이였습니다.

설참에 나는 그에게 정식 제기하였습니다.

<위원장동지, 기름을 좀 주십시오. 프락또르로 흙을 나르자고 하여도 기름이 없습니다.>

관리위원장은 한순간 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소. 지금 당장은 없는데 아무때든 나오기만 하면 동무들에게 먼저 주겠소.>

<우선 소라도 없습니까?>

관리위원장은 허거프게 웃었습니다.

<지금 어느 작업반이나 다 소에 매달려 일하고있는데 선뜻 내놓겠다고 할 반장들이 없거든.>

나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행여나 희망을 가졌던 내가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쯤한것도 풀어주지 못하는 관리위원장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무려면 관리위원장이 그만한 힘도 없을가.

우리는 남보다 다르지 않는가.

나의 제기같은건 귀등으로 들으니까 그렇지...  
다음날 아침 문일동무는 나를 합숙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제먼저 저수지아래에 있는 논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빛이 산기슭에 와닿았지만 아직은 밤새 내린 이슬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벼이파리와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들이 해빛을 받아 반짝거리는것이 구슬 꿰미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바람이 선들선들 불어올 때마다 누런 벼이삭들이 서로 맞비비며 소리를 내군하였습니다.

<여기 벼들이 어떻소?>

<잘되었군요.>

<그렇소. 내 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지.> 》

벌써 여러날째 중복머리처럼 뜨거웠다.

떠약벌이 지글지글 내려찍인다.

어디에 가나 숨이 콕콕 막힌다. 풀대들이 까딱 움직이지 않고 잎들이 후줄근히 늘어졌다.

문일은 오늘 여기 가재골논을 써레질하라는 작업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일찌감치 소잔등에 써레를 얹혀가지고 나왔는데 겨우 옷배미 몇개논에 물이 조금씩 차있을뿐 아래논들은 모두 마른 논이었다. 골짜기로 줄줄 흐르는 여윈 개울물로는 며칠가도 이 많은 논을 적서낼것 같지 못했다.

(할수 없지. 물이 차 때까지 기다릴수밖에.)

문일은 써레를 소잔등에 다시 얹었다. 이때 석화가 나타났다.

《왜 써레질을 안해요?》

《논에 어디 물이 있소?》

석화는 적서진 몇개의 논을 가리켰다.

《이건 물이 아니예요?》

《아니, 그 물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 논을 다 써레질한단 말이요.》

문일은 어이없어 허거픈 웃음을 지었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거예요?》

《어떻게 하긴. 물이 다 차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비가 내릴 때까지 못하...》

《뭐라고요? 걸어치우세요. 못한다는게 어디 있어요. 난 그런 말자체를 몰라요.》

석화의 눈에서 불꽃이 일었다.

《헛참.》 문일은 쓴 입을 다셨다.

《좋아요. 내가 하는걸 보라요.》

석화는 소를 물고 논에 들어섰다.

이때 문일은 써레를 빼앗아쥐었다.

《동무보구 써레질을 하라는게 아니요. 써레질은 내가할테니 어디 물이나 대보오. 만들든지 잡아오든지.》

그가 옷배미를 써레치는 동안 석화는 삽으로 도랑을 내어 내려오는 물을 모두 아래논으로 들이밀기 시작하였다.

써레가 두번째 논에 내려설 때였다.

석화는 재빨리 첫번째 논둑을 몇군데 터뜨려놓았

다. 그러자 방금 옷논에서 써레질에 리용됐던 물이 순간에 아래논으로 쏟아져내렸다. 물이 찌워진 옷논은 이제 내려오는 골짜기물로 다시 잡으면 되는 것이다.

《차, 이것봐라.》

문일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이런 식으로 내리내리 쓸면 마지막논까지 얼마든지 써레질을 할수 있을것 같았다.

《어때요?》

석화가 물었다. 문일은 뒤머리를 굽적거리며 어이가 없어 웃고 말았다. 남자도 아닌 연약한 처녀에게서 그것도 농사경험도 없는 그에게서 어떻게 그런 배짱과 지혜가 생겼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날 써레질을 했던 논이 바로 여기요. 그는 나에게 말했소. 배짱과 지혜는 머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무조건 해야 한다는 각오만 심장에 든든히 자리잡으면 무슨 일이든지 풀려나간다는거요. 자기는 그것을 군대시절에 배웠다고 하였소.>》

나는 그제야 왜 문일동무가 나를 이곳에 데리고 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왜서 인지 변명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석화동문 앞으로 이곳에 저수지를 막자고 하였소. 그래야 물고생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벼농사를 할수 있다고... 그다음엔 발전소를 건설하고 양어장도 건설하자고 하였지요. 그런 꿈이 있었기에 그는 죽음도 맞받아나간것이 아니겠소.>

그는 피로운듯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나는 그가 희생된 다음 그의 소지품에서 군인모표가 그려진 거울을 보고 많은것을 생각하였소. 아마도 그는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았을거요. 군인시절처럼 살고있는가? 그 마음속의 대화는 조국앞에 자기를 세워놓고 어떤 모습인가를 투시해보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오. 결국 조국앞에 비낀 그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것이였소. 그래서 나도 그후에 거울 뒤에 군인모표를 그려넣었었지.>

그리고는 빙그레 웃으며 뒤머리를 굽었습니다.

<석화동무처럼 살자는것이였는데 아직 멀었소.>

순간 나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그런것도 모르고 남의 거울을 언니의것이라고 가지다니...

그러고보면 문일동무가 언니의 리상을 혼자 알게 된것은 결코 서로 사랑하는 과정에 알게 된것이 아니였습니다. 언니와 함께 일하는 과정에 알게 된 앞날의 작업반계획이였습니다.

결국 문일동무는 언니를 사랑한것이 아니라 언니의 정신세계를 사랑한것입니다.

그는 오늘 나에게 언니처럼 살것을 충고하고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관리위원장에게 기쁨을 달라고 한 나를 비판한것이였습니다.

물론 나를 위해 마음써주는 그가 고맙게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락프로로 공사하게 기쁨을 달

라고 제기한것이 왜 언니처럼 살지 못하는것으로만 리해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모지름을 쓰며 등짐으로 흠을 나른것이 적은 량인가.

날자는 또 얼마나 흘렀는가 하지만 언제는 별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런 속도로 언제까지 가야 공사가 끝날수 있단 말인가 모두 지쳤다.

이대로 공사를 하면 모두 쓰러질수 있다. 나는 그것이 두려워 기름을 달라고 제기했을뿐인데.

다른 방도가 있다면 왜 그런 제기를 했겠는가.

<문일동무의 말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힘내기를 할수야 없지 않나요. 저수지 공사뿐인가요. 발전소, 양어장... 이걸 다 등짐으로 할수야 없지 않나요.>

문일동무도 피로온듯 후- 하고 큰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쥐고있던 풀대를 비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할수 없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그 말을 몇번이고 되뇌여보았습니다. 달리는 할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였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손거울을 꺼내 문일동무에게 내밀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언니의것인줄 알고...>

<넣어두오.>

<아니요. 처녀에게 거울이 없겠나요 뭐...>

나는 어줍게 웃어보였습니다.

그의 얼굴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숨털이 까칠해지고 입술이 터지고 말라서 까풀이 일었습니다.

나는 저절로 눈물이 앞섰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동무들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이 <고난의 행군>이 언제가면 끝날수 있을가? 언제면...

이런 생각은 공사기간 무시로 떠오르곤 하였습다. 누구나 일에 지쳐서 주저앉으면 저절로 프락프 소리가 나오고 그것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관리위원장에 대해 원망하곤 하였습니다.

어쨌든 일이 힘들수록 기계의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미련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번은 금옥이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화순아, 내 눈 좀 봐줘.>

<왜, 티가 들어갔니?>

<아니야, 그저 잘 보이지 않아서 그래.>

나는 그의 얼굴에 두손을 가져다대고 한참 들여다 보았습니다.

<왜 그럴가? 다른 증상은 없는데.>

<그만해 이제 닳겠지.>

나는 혹시 그가 건강이 약해져서 그러는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합숙에서는 식량이 긴장하여 대용식료품으로 끼니를 대신할적이 많았습니다.

어느날 작업반 꼬마라고 불리우는 남동무가 허기

져 언제우에서 쓰러졌습니다. 누구인가 주머니에 있던 닭은 통강냉이를 몇알 입에다 넣어주었으나 꼬마는 물고만 있을뿐 입을 놀리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얼굴이 백지장같고 맥박이 알리게 떠졌습니다.

<꼬마가 쓰러졌다.>

문일동무가 기겁하여 소리쳤습니다.

순간 동무들이 울면서 그의 손발을 주물러주었습니다.

리병원도 멀리에 있었고 당장은 어디 가서 미음한 그릇 가져올수 없는 들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무들은 땀을 흘리며 결사적으로 그의 몸을 주물러주었습니다. 한참후에야 꼬마의 얼굴에서 피기가 들더니 숨을 후- 하고 내쉬었습니다.

<꼬마야!>

동무들이 부둥켜안고 울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아 처녀들까지 무릅없이 꼬마라고 부르는 작업반 귀염둥이!

특별히 나타나는데도 없는 그를 통하여 투시하여 본 작업반의 모든 동무들 한명한명이 참으로 귀중한 동지가 아닐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나는 관리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식량을 해결하여야 하였습니다. 식량이 없으면 우리 집단을 유지할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작업반 꼬마가 쓰러지는것을 보고 벌써 겁을 먹는 동무들도 있었습니다. 집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집에 가서 여러날째 오지 않은 동무들도 몇명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한두명 동요하지만 래일은 몇명이 동요하겠는가는 누구도 알수 없었습니다.

나도 쓰러질수 있다, 식량은 적고 일은 힘에 부치지 않는가, 이곳에 나올 때에는 박수도 쳐주고 신문과 방송에서 크게 소개했지만 지금은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 농촌일이란 생각외로 힘들고 고달프다, 이렇게 한평생을 살수 있을까, 지금은 더우기 <고난의 행군> 시기다, 한평생은 고사하고 얼마를 더 견딜것 같지 못하다, 이것은 무서운 일이다, 우선 쌀이 있어야 한다...

관리위원장은 나의 이야기를 들더니 침통한 표정을 지운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안에는 그가 한숨으로 뿔어놓은 담배연기만이 무겁게 떠돌고있었습니다.

<알겠소. 래일 보내주겠소. 그러나 당장은 많이 보내지는 못하고...>

합숙에 돌아온 나는 이 사연을 동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모두 환성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화순이만 내세우면 모든것이 풀릴수 있다고 떠들었습니다.

다음날 관리위원회 창고장이 달구지에 거친 강냉이가루 두마대를 싣고 작업반합숙에 나타났습니다. 모두 아연해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관리위원장이 식량을 보내준다고 했으니 적어도 여러마대는 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겨우...

이것으로 우리 집단이 며칠이나 연명하겠습니까.  
나는 저절로 눈물이 앞섰습니다.

<어쩌면, 이럴수 있습니까, 아무려면 농장에서  
요것밖에...>

그러자 창고장이 주먹으로 달구지채를 팡 때렸습니다.

<동무! 이것이 어떤 식량인지 알거나 하오? 관리  
위원장동지랑 관리위원회일군들의 집에서 퍼내준  
거란말이야. 집...>

순간 나는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식량사정이 긴장하다 해도 관리위원회 창고에는  
그래도 예비가 있을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무들, 우리는 이 식량을 받을수 없소. 이것으  
로 우리의 식량문제가 풀릴수 있는가?>

문일동무가 분격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순동무, 동무는 이곳에서 언제까지  
나 응석받이로 살겠소?>

<뭐라구요?>

차마 이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나였습니다.

나는 저도 모르게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응석받이라구요? 그럼 동무는 식량을 해결할  
재간이 있어요? 이대로 다 쓰러지면 동무가 책임지  
겠어요?>

<...>

그는 얼굴을 이그러뜨린채 입술을 깨물고있었습  
니다. 쥐고있는 낫이 후둘후들 떨고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다음부터 나는 저절로 말이 없어  
졌습니다. 그런 동무들이 날이 갈수록 하나둘 많아  
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나날이 계속 흘렀습니다.

언제높이가 어지간히 올라가자 우리는 돌을 모으  
기 시작하였습니다. 장석을 쌓아야 하였습니다.

돌모으기는 야간작업으로 할수 없었습니다.

채석장이 따로 없었으므로 저마끔 흠어져 돌을  
모았습니다. 머리우에서는 피약별이 내리쬘이고 발  
밑에서는 더운 열기가 확확 올라왔습니다. 이마와  
팔목으로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등에 진 큰 돌이 지지눌러 살갓이 벗겨졌습니다.  
거기에 땀이 흘러들어 소금을 친듯이 아려났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아찔하였습니다.

나는 돌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빈혈이 일어났것입니다. 한참후에야 정신을 가다듬  
은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견딜수 있을가. 농장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도시에 있었으면 이런 고생을 모르겠는  
데. 내가 공연히 이곳에 온것이 아닐가. 왜 어머니  
의 말을 듣지 않았던가. 이제라도 집에 갈수 있다면  
... 그렇지만 어떻게 가나. 나야 언니의 뒤를 이어  
이곳에 오지 않았는가. 내가 되돌아가면 사람들이  
비웃을거야. 아, 나는 어쩌면 좋아. 갑자기 저도 모

르게 눈물이 펑- 돌았습니다.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금옥이가 뒤에 와서 잔등을 팡 때렸습니다.

나는 얼른 눈굽을 닦았습니다.

<우리 달구지로 돌을 나르자.>

<달구지? 소가 어디 있니?>

<일전에 식량을 가져왔던 소가 있지 않니.>

그 소는 방금 멍에를 매운 헛소였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가벼운 짐만 나르라고 관리위원장  
이 다른 작업반의것을 립시로 준것이였습니다.

지금까지 문일동무의 승인없이는 그 소를 마음대  
로 쓸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일동무가 군에  
농업기술일군강습에 가서 없었습니다.

<일없을가?>

<일없어.>

<그럼 쓰자.>

나는 지금처럼 힘든 일에 소를 가지고 돌을 줌  
나른다고 하여 큰일날것이 없겠다고 생각하였습니  
다.

<이라->

달구지에 하나가득 돌을 채우자 회초리를 휘둘렀  
습니다. 아직 짐을 많이 끌어보지 못한 헛소는 처음  
부터 급하게 걸었습니다. 뛰어놀기만 하던 버릇을  
고치지 못한 모양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언덕  
받이에 와서는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이라- 이라.>

나와 금옥이는 연방 소리를 질러대며 채찍을 휘  
둘러댔지만 소는 머리를 쳐든채 요동만 칠뿐 달구  
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  
어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멍에채를 누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요동치던 소가 발통으로 나의 발등을 밟았던것입  
니다. 금시 뼈가 부서지는것 같은 아픔에 순간적으  
로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나는 약이 올라 회초리를  
소대가리에 마구 휘둘러댔습니다. 소는 채찍을 피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엄매-> 하고 울었습니다.  
그래도 채찍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순간 웬 우악스러운 손이 내 팔목을 붙잡았  
습니다. 돌아보니 관리위원장이였습니다. 가뜰이나  
긴 눈썹이 꿈틀거리는 얼굴에 성까지 나서 꺼렇게  
보였습니다.

<정신있어? 소를 죽이자고 그래?>

그는 회초리를 빼앗아냈습니다.

<어린 소를 그렇게 잡자기 혹사하면 목에 붙잡이  
생겨. 그러면 소는 병신이나 같애. 봐라, 목이 빨개  
진걸. 안되겠다. 당장 소를 돌려주던가 해야지.>

<네?>

나는 억이 막혀 관리위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를 돌려주다니, 소가 없으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  
게 일하라는것인가 잘못된 잘못이고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가.

<너무합니다. 관리위원장동진 사람보다 소가 더 귀중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위원장동지가 우리를 도와준게 무엇입니까?>

나는 눈물을 쏟으며 항의했습니다.

어떻게 되어 이런 말이 튀어나왔는지 나 자신도 알수 없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감정이 이 순간에 폭발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순간 관리위원장은 의아한 눈길로 나를 보았습니다.

<너는 여기에 일하러 왔나 아니면 칭찬받으러 왔나. 그렇게 손만 내밀며 어리광을 부리려거든 이제라도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은 백년이 가도 농사꾼 구실을 못해. 지금 사람들이 너만 못해서 말없이 참고 견디는 줄 아느냐. 나라가 겪는 아픔을 함께 나누기때문이야 너처럼 오늘의 시련을 이겨낼 힘이 없으면 싹 걸어가지고 가란 말이다.>

관리위원장은 피로운듯 얼굴을 이그러뜨리더니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나는 굳어진듯 서있었습니다. 볼을 타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내렸습니다.

칭찬을 받으러 왔다고요? 어리광을 부린다구요? 농사꾼구실을 못한다고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언니의 뒤를 이어 나왔다고 하여 남보다 특별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가라면 못갈줄 알아요. 나는 이런 모욕을 받자고 오지 않았어요. 갈테야요...

나는 합숙에 가서 사품을 배낭에 꾸겨넣어가지고 나섰습니다.

<화순아, 너 이게 무슨짓이야. 가면 안돼.>

금옥이가 나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금옥아, 우린 모진 어려움을 이겨내며 일하려고 애썼어. 그런데 관리위원장은... 갈테야, 갈테야.>

나는 금옥이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영영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산한 바람이 나의 옷자락이며 머리를 마구 잡아흔들었습니다. 높이 떠오른 티검불들이 저 멀리로 날아가고있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린 저 멀리서 뽀얗기만 하였습니다.》

#### 4

《집에 돌아온 나는 며칠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전애나 다름없이 대해주었습니다. 딸이 오래간만에 왔다고 무엇을 하나라도 해주지 못해 안타까와하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 내가 돌아온것을 알면 이웃들이 욕할거야. 다시 농장에 가야 하지 않을까? 아니야, 나는 가지 않겠어. 그렇게 몰인정한 관리위원장딸에선 일을 못해.

그러나 다음 순간 가슴에 짙이는것이 있었습니다. 관리위원장때문에 집으로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농촌에서 견디기 힘들어 온것이었습니다. 량심

이 그것을 부인할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겠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누가 나를 불가봐 겁이 났습니다.

어디 다른 고장으로 가는것이 좋지 않을까?

나는 침대에 쓰러진채 배개잇을 적시고 또 적시였습니다.

어느날 웬 녀인이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나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선을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된 바에는 빨리 시집을 가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집에 온 사연을 눈치챈듯 하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장을 꺼내놓았습니다.

남자가 어느 기관에서 일하는데 키도 크고 인물도 잘 났다고, 앞으로 제 집 하나는 온전히 건사할 사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나는 돌아누운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다. 한창 떠들던 녀인은 나의 잔등을 두드려주고는 어머니와 함께 나갔습니다.

똑딱... 똑딱... 소란하던 방안은 조용해지고 벽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나는 이불깃을 내리며 옷몸을 약간 일으켰습니다. 발이 놓인 부분에 총각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살며시 손이 갔습니다. 사진에 손이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가슴이 활랑거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넙죽한 얼굴에 통머리를 넘긴 모습이 첫눈에도 잘 났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문쪽에서 인기척이 나는 순간 나는 사진을 제격 놓고는 이불을 뒤집어썼습니다. 어머니가 나의 행동을 짐작했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일어 나가라.>

어머니가 자리에 앉으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젠 어떻게 하겠니?>

<?...>

나는 어머니의 말뜻을 짐작할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내 앞길인지, 아니면 사진을 놓고 하는 소린지...

<오늘은 말 좀 하자. 암만 봐도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긴것 같구나. 혹시 너 일이 힘들어서 되돌아온것이 아니냐?>

<...>

역시 어머니는 이 딸의 속마음도 환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이라고 변명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못쓴다. 너는 이젠 어린애가 아니다.

농사꾼이 되었으면 자기의 본분을 알아야지 항상

떠받들고 응석만 받아줄줄 알았니? 농사꾼이면 땅을 들어 올리겠다는 배심으로 일을 해야 해. 그래야 난알이 쏴아진다. 그런데 고만한 난관앞에서 도망쳐온단 말이나. 너 언니의 뒷을 어디에 버리고 왔니?>

나는 입술을 깨물며 어깨를 떨었습니다.

<죄중에서 변절보다 더 큰 죄는 없다. 총을 들고 싸우는 싸움판에서만 도망이 있는줄 아니?>

오늘날의 변절은 고난앞에서 겁을 먹고 뒤걸음치는거야. 네 언니는 죽음도 맞받아나갔는데 너는 도망쳐오다니...>

어머니는 눈곱에 맺힌 눈물을 훔치었습니다.

못나게 행동했어도 제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를 안기지만 가슴은 더 아픈 모양이었습니다.

<화순아, 너 나와 같이 농장에 가서 밭자.>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발...>

나는 어머니무릎에 머리를 묻으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죄를 지었던 말입니까.

<아니, 사실 너보다 내 잘못이 크다. 이 어머니가 너를 마음의 준비가 없이 보낸것 같다. 그때 너의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라면...>

<언니요?>

<그래, 너의 언니는 이미 군대때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었다. 사실 나는 너의 언니가 제대되어와서 농촌에 진출하겠다고 할 때 반대했었다.

어려운 때에 그 애를 크게 믿고 기다렸는데... 또 당장 시집도 가야겠는데 무슨 부질없는 생각인가고 욕을 했었지. 그러자 그 애는 눈물을 흘리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것이 아니겠니.>》

중대는 령길을 따라 행군하고있었다. 도로라고 하지만 험한 경사지를 깎아서 넓힌 길이어서 겨우 자동차 한대가 다닐듯 하였다.

여간 급하지 않는 경사에 눈까지 얼어붙어서 발을 자칫 옮기면 미끄러질듯 하였다.

앞에서 누가 미끄러져 내려오는바람에 대오에는 잠시 소동이 일어났다. 석화는 분대원들에게 산경사지에 바짝 붙어 걸으라고 소리쳤다.

반대쪽 경사지 도로턱을 벗어나면 벼랑으로 떨어지게 된다. 내려다보지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살이 떨린다. 골짜기바닥까지는 십리나 될것 같다. 갑자기 대오가 멎어섰다.

휴식구령은 내리지 않았는데 무슨 일인가?

이때 정치지도원이 나섰다.

《동무들, 여기가 얼마전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최전선에 나가시는 도중에 오르지 못하는 야전승용차를 밀고 넘으신 령길입니다.》

순간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이런 위험천만한 곳으로 장군님께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린다.

장군님께서 낮과 밤을 이어 전선과 후방을 찾아가신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어도 차마 이런 곳으로

가질줄은 몰랐다.

미국놈들이 우리에게 불질을 못하는건 장군님께서 계시기때문인데 그이께서 안녕하셔야 조국도 우리의 생명도 있을것이 아닌가.

우리가 초소를 더 잘 지켰더라면...

아! 그날 장군님께서 승용차만 미신것이 아니나 조국의 운명, 사회주의운명을 떠밀어올리시였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사선을 헤쳐가시는 우리의 장군님이시다. 장군님께서 더는 이런 험한 곳으로 가지 않게 우리가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초소를 더 잘 지키는것이다.

장군님께서 하라는 일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 결사옹위! 이것이 나의 최우명으로 되어야 한다.

《<그날 네 언니는 군복을 벗었다고 하여 그때의 맹세를 버릴수 없다고, 지금 장군님께서 제일 근심하시는것이 식량문제인데 자기는 쌀로써 그이를 받들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 마음이 남다르고 기특하여 승인했던것이다.>

어머니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마치었습니다. 더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의 그 다음의 이야기를 듣고있었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되어 죽음도 맞받아나갈수 있었고 나는 왜 뒤걸음쳤는가를 알려주고있었습니다.

그렇다. 언니와 나는 출발점이 서로 달랐어. 언니는 자기의 한목숨이 무엇을 위해 필요한것이리는것을 알았다면 나는 그것을 몰랐어.

언니는 조국이 겪고있는 준엄한 시련을 목숨으로 헤쳐나갈 각오를 가지고 떠났다면 나는 언니의 희생을 두고 가슴아파하는 반원들의 모습에 감동되어 순수 인정으로 떠났어.

그래서 언니는 영웅적인 희생정신을 발휘하였지만 나는 뒤걸음쳤던거야.

아, 얼마나 쉽게 말했던가. 조국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겠다고, 과연 목숨을 바친다는 말의 의미를 알고나 말했던가.

그 순간 나는 심장을 내대는 충신의 모습과 허끝으로 말하는 간신의 모습이 어떤것인가를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러니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나는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고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니 저절로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행동이 참으로 저주스러웠습니다. 관리위원장동지에게, 동무들한테 가서 빌지 않고서는 못견딜것만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나를 받아줄가? 가라고 할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는 빌테야 진심으로... 그러면 그들이 용서할거야.

나는 그날밤 거울뒤면에 군인도표를 그렸습니다. 언니처럼!

다음날 나는 짐을 꾸려가지고 어머니앞에 나섰습



니다. 어머니는 놀라운 눈으로 마주보았습니다.  
 <혼자 가겠느냐?... 심중히 생각해야 한다. 네가 다시 그곳에 간다는것은...>  
 <언니처럼 살기 위해 애쓰겠어요.>  
 <너무 쉽게 말하지 않느냐?>  
 <어머니!>  
 나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맹세였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어머니앞에 거짓이 없는 자식의 맹세를...  
 <화순아!>  
 어머니는 나를 부둥켜안고 울었습니다.  
 합숙에 와서도 동무들과 껴안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나도 모릅니다. 그저 동무들도 나로서로 붙들고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관리위원장도 눈굽을 훔쳤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참으로 인생의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다.  
 나는 말없이 오래도록 걸었다. 발밑에서 서걱거리는 소리...  
 《어떻습니까. 소개할만 한 이야기는 못되지요?》  
 《하, 글썄...》

《그렇지만...》  
 그는 무엇인가 말하려다가 어줍게 웃고 말았다.  
 그리고는 내치 걷기만 했다.  
 청신한 그의 얼굴에 붉은 노을빛이 와닿아 진하게 꽃처럼 채색되었다. 그것은 열정적이고 담찬 그의 모습을 더욱 황홀하게 하였다.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앞으로의 자신을 말하려고 했을것이다.  
 그렇다. 승리한 전쟁에도 락오자는 있었다. 변절자, 배신자도 있었다. 하거늘 하나의 큰 전쟁을 치른것보다 더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어찌 인간들의 운명에 굴곡이 없었겠는가. 하지만 자신을 깨닫고 다시 신심에 넘쳐 나아가는 그의 발걸음에 어찌 주저가있을것인가.  
 그렇다. 그는 혁명적군인정신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수령결사옹위정신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물가에 기러기떼가 날아내린다.  
 노을빛이 빨강게 물들어 지줄대며 흐르는 시내물...  
 풍만하고 정서깊은 저녁이었다.

## 분여지표 말

신 동 원

참먹을 갈아  
 제 이름 석자  
 제 땅의 넓이 새기여  
 분여지마다에 세웠던  
 작은 표말

작은 나무표말이건만  
 세월이 멀리 흐른 오늘이건만  
 때없이 정든 벌 바라볼 때이면  
 불쑥, 농민의 이 가슴에 안겨오나니

분여지표말이여  
 네가 버쩍 들어올린것은 아니더냐  
**김일성**장군님 주신 땅  
 감격의 눈물로 적시던 농민들 머리우에  
 가없이 높푸르던 춘삼월의 그 하늘

너는 정녕 그 하늘만이 아닌  
 이 나라 농민들의 복된 운명도  
 인간존엄의 상상봉에 떠받들어올렸거니  
 나무리벌의 그 농민영웅도  
 피의 락동강 건느던 나의 아버지도  
 언제나 눈에 삼삼 안고살던 사람들이였다  
 까만 먹글씨 생생하던 너의 모습을

어이 잊으랴 나의 어머니  
 아마도 네가 박혔던 그 땅이  
 유복자 이 아들보다 귀했던가  
 아니 떨어지겠다고 발버둥치던 나를  
 백양나무아래 홀로 남겨두고  
 전쟁 3년 보탑잡고 이겨내시던 그 추억

어릴적부터 이 땅과 인연 맺고  
 나도 흙내에 걸어 살아왔거니  
 정녕 분여지표말이여  
 가슴에 간직한 네 모습이 없었다면  
 어이 한생 훈훈한 진정을  
 고향벌 이 땅에 바칠수 있었으랴

분여지표말, 이는  
 땅의 주인임을 알리는 증표와도 같아  
 너를 잊으면  
 이 땅에 삶을 둔 농민이 아니기에  
 한생토록 가슴속에  
 뿌리박고 사는것 아니던가

나의 마음속에  
 이 나라 농민들의 가슴속에

운명의 영원한 기둥으로 솟아있을

오, 분여지표말이어!

시 초

## 어머니와 포

도 명 희

### 포를 기증한다

원쑤의 총구가  
아기를 겨냥한다면  
그앞에 주저없이  
가슴을 내대일 어머니

원쑤의 땅크가  
아기의 요람을 짓밟개려한다면  
그 무한계도앞에  
서슴없이 막아나설 어머니

아이들이 글 배우고 뛰노는 이 땅에  
단 한발의 불발탄이 떨어진대도  
치마폭에 그 포알을 싸안고  
적진에 뛰어들 어머니

포와는 거리가 먼 어머니들이  
화약내와 인연이 없는 어머니들이  
오직 사랑으로 울고웃는 착한 마음들이  
어찌하여 포, 포를 기증하는가

맨 가슴으로는 아기를 지킬수 없어  
맨몸으로는 어머니사랑을 지킬수 없어  
포를 기증한다

봄빛넘치는 저 푸른 잔디우에  
명랑한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  
활짝 편 아이들의 꿈을 지켜  
선군시대어머니들이  
포를 기증한다!

위대한 장군님 서계시는  
선군혁명의 제1참호에  
원쑤격멸의 포  
조국사랑의 포  
이 나라 어머니들이  
포를  
정의의 포를 기증한다

## 어머니와 포

포와 포알처럼  
그렇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여라  
어머니와 포란 말은

집과 가정이란 말속에 따뜻하던 어머니란 말을  
자식들의 부름속에 정겨운 어머니란 말을  
포, 포라는 말과 나란히 놓았다  
어머니와 포

불우물 오목오목 지으며  
캐드득거리는 아기를 품안아 젖먹일 때  
생각해보았으랴 어머니들이  
이 세상에 포라는 무기가 있다는것을

팔랭이를 흔들며  
아장아장 발걸음때는 그 아기가  
원쑤의 한발 포탄에  
몸서리치는 일이 있으리라고

꿈엔들 상상해보았으랴

허나 있었다, 이 땅엔  
아기를 살리자고  
날아오는 원쑤의 포탄을 막았건만  
어머니의 잔등을 뚫고  
어린 생명마저 앗아간 그 흉탄이

있었다, 이 나라엔  
어머니의 사랑 아무리 크고 뜨거웠어도  
총을 든 승냥이들앞에서는 무력했음을  
신천땅이 보여준  
피의 교훈이

세기를 넘어  
력사는 깨우쳐주었다  
어머니의 사랑앞에 포  
포가 있어야 함을

## 따로 결산할것이 있다

이 땅에 쇠가 많아서  
어머니들이 포를 만들었던가  
내 조국에 무기가 모자라  
어머니들이 끈전을 모아 바쳤던가

얼마나 좋으랴  
그 좋은 쇠붙이로 가마를 부었으면...  
쇠 좋은 밥가마를 보면  
이리 쓸고 저리 만져보는 맘을 가진 여성들일진대  
또 얼마나 좋으랴  
아이들의 놀이터에  
그네며 철봉대를 더 놓아주었으면...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노는 소리에  
온갖 피로 다 풀리는 정을 가진 어머니들일진대  
...

허나 더 크고 좋은 가마는 후날에 걸자  
원쑤가 눈앞에 있거니  
청맑은 아이들의 웃음을 뺏기지 않으려  
오늘은 포, 포를 만들잔다  
그래서 무섭게 맘을 먹은 어머니들이다  
딸애의 땀기를 사려다 그만두고  
가마에 안치려던 쌀도 줌으로 덜어냈다

그렇다, 어머니들이 포를 만들었다  
내 조국에 수천문의 포가 있다 해도  
어머니들이 욱버르는 원쑤가 있어  
초소에 총잡은 병사들 많아도  
어머니들이 지켜야 할 세계가 있어  
오늘은 포신을 높이 들었다  
우리 《너맹호》는 미제와 따로 결산할것이 있다!

## 이 포가 불을 뿜는 그날엔

《너맹호》  
이 포가 불을 뿜는 그날엔  
이 세상에  
단 한놈의 원쑤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어머니젖품에서 아기를 떼내어  
돌덩이처럼 내동댕이친 놈들  
정히 비바람은 함함한 머리채를  
터럭손에 감아쥐고 온갖 회룡 다하다  
잔혹하게 죽인놈들  
대를 물려 내려오는 원한의 그 갇음을  
이제 더는 다음대로 미룰수 없다

장장 반세기  
전쟁의 위협이 항시 떠도는 하늘아래서  
긴장이 압축된 땅에서

자식들을 키우며 싸움준비를 하고  
싸움준비를 하며 생활을 꾸려야 했던  
그래서 더 허리띠를 조이고  
그래서 어린 자식에게 배불리 먹이지 못한  
모진 아픔 겪어야 했던 이 나라 어머니들

세기를 넘어 쌓인 분노를  
터쳐야 할 분화구가 이 포에 있다!  
전률하리라 원쑤들은  
이 포앞에 전률하리라  
사랑과 인정많은 가슴들이  
증오와 원한으로 굳어져 포가 되었거니  
자비를 바라지 말라  
어머니들앞에서는  
원쑤들앞에서는 한없이 무자비한 어머니들이다

## 두루미

에르, 감자또브

하수홍 역

나에게는 이따금 생각되더라  
피어린 전장에서 숨진 병사들  
땅을 그러안고 쓰러진것 아니라  
하얀 두루미되어  
날아오른것이라고  
그때부터 저 하늘에  
두루미울음소리  
우리에게 무엇인가 전해주는듯

그래서 우리 자주 마음찌릿해  
말없이 하늘을  
쳐다보는것이리라

두루미떼 힘겹게 날개저으며  
첫 새벽 안개속을 지나가는데  
줄지은 그가운데 빈자리 하나  
나를 위해 남겨둔 자리 아닐까

때가 되면 이 몸도 두루미따라  
푸름한 어둠속을 날아가리니  
땅위에 남아있는 그대들에게  
울음소리 전하리라 하늘아래서

나에게는 이따금 생각되더라  
피어린 전장에서 숨진 병사들  
땅을 그러안고 쓰러진것 아니라

## 희곡

# 사랑의 새 전설

리 기 창

△ 때; 《고난의 행군》 시기와 지금  
 △ 곳; 동해안의 도시와 군인사택마을  
 △ 나오는 사람들  
 금속… 도시처녀 (그후 군관의 안해)  
 최혁… 인민군대대장(금속의 남편)  
 순정… 금속의 어머니  
 금속… 금속의 동생  
 향미… 금속의 딸(유치원생)  
 △ 그외려단장, 영남전사, 분대장, 군관의 안해들  
 △ 주제가와 함께 막이 열리면 최혁대대장의 설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의 빛나는 자욱우에 아로새겨진 어느 한 초소마을에서 있었던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 배경에 제명이 새겨진다.  
 연극

## 사랑의 새 전설

1 경

△ 때; 저녁무렵  
 △ 곳; 소공원  
 △ 무대; 야외등과 버드나무, 긴 결상이 놓여있다.  
 뒤로 도시일각이 보인다.  
 △ 무대 밝아지면 금속 나온다.  
 금속; 어머니, 빨리요.  
 순정; (뒤따라 나오며) 오냐, 덤비긴 원.  
 금속; 어머니, 아저씨와 언니 결혼식 첫날옷감은 제일 좋은걸로 사자요.  
 순정; 여부가 있니? 군관을 사위로 맞는데 남부럽지 않게 내세워주어야지.  
 금속; 그렇지 않구요. 참 어머니, 언니 책갈피에 아저씨가 보낸 이런 편지가 있더군요. (편지를 보인다.)  
 순정; (편지를 읽어본다.) 금속동무, 일전에 동무가 제기한 그 문제에 대해선 19일 소공원 버드나무 밑에서 만나 토론해봅시다…  
 금속; 19일이면 바로 오늘이 아니예요?  
 순정; 그래. 그런데 며칠후면 결혼식을 하겠는데 뭘 또 토론한다는거냐?  
 금속; 글썄요.  
 순정; 그런데 금속인 어데 갔니?  
 금속; 염소새끼를 구해오겠다고 갔어요.

순정; 당장 시집갈 애가 염소새끼 왜?  
 금속; 모르지요 뭐.  
 순정; 상점에나 갔다오자.  
 금속; 네.  
 △ 순정, 금속 나간다.  
 △ 잠시후 금속 염소새끼를 안고 들어온다.  
 금속; (손목시계를 보며)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염소새끼를 안고 나가며) 넌 배고프겠구나.  
 저기서 먹이풀이나 뜯어먹어라.  
 △ 뒤이어 최혁대대장 들어온다.  
 최혁; 아직 안왔는가?  
 △ 금속 다시 들어온다.  
 최혁; 금속동무, 왔구만.  
 금속; 안녕하세요? 그 문제때문에 만나자구 했나요?  
 최혁; 그것도 그렇지만 새로운 정황이 생겨서…  
 금속; 정황이라니요?  
 최혁; 이거 말하기 힘들구만.  
 금속; 어서 말씀하세요. 다 준비되어있으니…  
 최혁; 저, 오늘 우리 부대가 이동하게 됐소.  
 금속; 아니 어디루요?  
 최혁; 저 먼 산간지대로…  
 금속; 그래요?!  
 최혁; 나야 군인이 아니요. 내 이제 자리를 잡고 런락을 할테니 그때 정식 잔치를 하기로.  
 금속; ?!…  
 최혁; 왜, 또 미룬다고 그러오?  
 금속; 저…  
 최혁; 그렇게 하지?  
 금속;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잔치문제는 좀 더 심중히 생각해보지요.  
 최혁; 그럼 끝내 잔치를 그만 두자는거요?  
 금속; 아니 저…  
 최혁; 도시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동무가 흠어머니와 어린 동생의 결을 떠나 먼 산간지대로 간다니 마음이 무거울수도 있을거요.  
 금속; 아이참, 절 그런 너자로 알고 사랑했나요? 사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부대를 찾으시여 병사들의 식생활때문에 그토록 마음을 쓰셨다는 이야기를 들은후에 어쩐지 생각이 깊

어지더군요. 최혁동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침을 관찰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앞장에 서서 온실과 양어장을 건설하구 풀먹는 집짐승들을 구해다기르느라고

얼마나 애쓰고있나요. 더구나 나라형편이 가장 어려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요란스레 잔치상을 차리는것도 그렇구 또 오늘 부대까지 이동한다니 차라리 잔치상을 받지 말자는거지요 뭐.

최혁; 그렇다?...

금숙; 잔치상대신 일가친척들과 동무들의 축복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잔치준비로 마련했던걸로 병사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될걸 장만하자는건데 어때요?

최혁; 그래서 잔치상을 굳이 받지 말자고 했소?

금숙; 그럼요.

△ 이때 새끼염소 울음소리가 들린다.

금숙; 그래서 저렇게 염소를 《지참품》으로 마련했는데 반대없겠지요?

최혁; 아니 어찌면 그런 생각을 다했소?

금숙; 아이참, 저야 이제부터 군관의 안해가 아닌가요. 어마나... 호호호... (수집어 한다.)

최혁; 금숙이, 고맙소. 정말 고맙소. 절대찬성이요. (금숙의 손목을 덥석 잡는다.)

금숙; 어마나, 누가 보겠어요.

최혁; 불테면 보라지. 우리 군관의 안해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금숙의 두손을 잡고 빙그르 돌아간다.)

금숙; 아이참, 호호호... 그런데 그쪽 부모님들이 승낙할가요?

최혁; 우리 부모님들은 이 사실을 알면 오히려 기뻐할거요. 그런데 동무 어머니?

금숙; 우리 어머니 녀름마세요. 내가 군관의 안해가 되는걸 제일 기뻐하신것도 어머니였구 군관이던 아버지가 돌아가신후에도 계속 인민군부대들에 원호물자를 마련해가지고 보내주곤 했는걸요.

최혁; 그러구보니 내가 색시감 하나만은 딱소리나게 골랐거던. 하하하...

금숙; 아이참.

△ 이때 자동차 급정거하는 소리와 함께 분대장 달려나오며 거수경례를 한다.

분대장; 대대장동지, 부대가 출발합니다.

최혁; 알겠소. 금숙동무, 시간이 없어서 어머니를 만나보지 못하고 가누만. 인사를 전하오. 자, 그럼 새집을 마련하고 알릴테니 그때 만나지요

△ 최혁과 분대장 나간다.

금숙; 안녕히 가세요. 저도 뒤따라 곧 가겠어요.(손저어 바래워준다.)

△ 자동차 떠나는 소리.

△ 이때 순정 첫날웃감을 보자기에 싸들고 나온다.

순정; 아니, 저 사람이 집에도 들리지 않구 왜 가느냐?

금숙; 갑자기 부대가 먼데로 이동한대요.

순정; 뭐라구? 그럼 잔치는 어찌구?

금숙; 우린 서로 잔치를 안하기로 약속했어요.

순정; 잔치를 안하다니?!

금옥; (뒤따라 들어와 그 말을 듣자 놀라며) 언니, 어머니 잔치상만은 남부럽지 않게 차려주자구 애써왔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순정; 금숙아, 무엇때문에 그러느냐? 응?

금숙; 어머니, 섭섭하시겠지만 어찌겠어요. 어머니 늘 제 마음을 이해해주셨지요. 우린 그대신 염소랑 집짐승들을 장만해서 병사들을 돕기로 했어요.

금옥; 그럼 언니 잔치상도 안반구 그런걸 지참품으로 가지고 시집간단 말인가요? 이제 보니 그래서 아저씨가 이런 편지를... (편지를 준다.)

순정; 애야, 하지만 잔치는 일생에서 한번밖에 없는 인륜대사라는데 먼 후날에 가서 후회하지 않겠니?

금숙; 어머니, 전 군관의 안해로서 우리 병사들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는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겠어요.

금옥; 그래도 그렇지. 처녀총각이 잔치도 안하고 산단 말이에요. 잔치도 안하고 낫선 곳아 가서 살면 남들이 뭐라겠어요. 언니두 언니지만 어머니랑 더 흥볼거예요. 잔치상마저 차려주지 않구 훌쩍 시집보냈다구.

순정; 금옥아. 그만해라.

금옥; 온 동네에 잔치소문을 놓구 이게 뭐예요?

금숙; 금옥아, 우리 마음을 이해해주렴.

금옥; 언니마음대로 하라요. 그러나 난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그런겐 못하겠어요. 이제 후회하지 않나 두고 보라요 (흐느끼며 달려나간다)

금숙; 금옥아-

순정; 애 금숙아, 너흰 어떻게 그런 결심을 다 했느냐?

금숙; 어머니, 나는 그 동무한테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부대에 찾아오셨을 때 있던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순정; 장군님께서?

△ 음악이 흐른다.

금숙; 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병사들의 훈련모습을 보신데 이어 뜬김이 뽕얇게 서린 취사장이며 부엌지까지 일일이 돌아보시였을 때는 점심시간이 퍼그나 지난 뒤여서 부대지휘관들이 장군님께 자기들이 마련한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대요. 그러나 장군님께서 병사들의 식사까지 축내서야 되겠는가 하시면서 동행한 일군에게

가지고 온 식사를 들고 오셨는데요.

**순정**; 아니, 장군님께서 가져오신 식사를?!...

**금숙**; 네, 그런데 글썄... 그건 한공기의 죽이었다지 않겠어요.

**순정**; 뭐라구?!

**금숙**;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병사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먹일수만 있다면 더 바랄것이 없으니 앞으로 집짐승을 더 많이 길러 병사들의 식생활을 높여주자고 하시였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난후부터 전 생각이 깊어졌어요. 장군님께서 한공기 죽을 드시면서도 병사들의 식생활때문에 그처럼 마음쓰시는데... 그리고 그 동무의 부대까지 이동된다니 군관의 안해가 되는 제가 차라리 잔치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곳에 가서 우리가 병사들을 위해 차려주는 푸짐한 식탁을 잔치상으로 여기며 살겠어요.

**순정**; 뭐라구?!

**금숙**; 잔치상대신에 어머니랑 이웃들의 축복의 인사를 받으며 떠나면 되지요 뭐.

**순정**; 이제 보니 우리가 널 헛키우질 않았구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대견해하시였겠느냐. 장하다, 내 딸아 (와락 끌어안는다.)

**금숙**; 어머니,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아직 철없는 동생한테 집을 맡긴채 집을 떠나게 될 이 딸을 용서하세요.

**순정**; 애야, 이 애미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구 그저 너희네를 결심대로 우리 장군님의 병사들을 잘 돌봐주거라.

**금숙**; 어머니, 알겠어요.

**순정**; 금숙아!

**금숙**; 어머니.

△ 서로 뜨겁게 불안하다.

△ 방창이 울리는 가운데 무대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사이막을 통해 금숙이가 어머니와 녀동생을 비롯한 이웃들의 축복의 배웅속에 떠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 방창

어머니품을 떠나 시집갈 때면  
누구나 받아안은 축복의 큰 상  
아 내 비록 받지 못해도  
총잡은 병사위해 한생을 바치리

△ 무대 어두워진다.

2 경

△ 때; 1 경으로부터 6 년후

△ 곳; 금숙이네 집

△ 무대; 아담한 군인사택 일부가 보이고 호박덕대와 집짐승우리들이 있다. 그너머로 군인사택들이 보인다.

△ 무대 밝아지면 금숙이의 어린 딸 향미가 유치원 가방을 멘채 물을 뜬어가지고 들어와 토끼우리에게 뿌려주며 노래부른다.

**향미**; 양지쪽 창문가에 우리 집 토끼잠만 깨면 호물 호물 잘도 먹지요

△ 이때 전투군복차림으로 최혁대대장 들어온다.

**최혁**; 우리 향미가 유치원에 갔다 왔구나.

**향미**; 아버지, 오늘 발간별 탔어요.

**최혁**; 용쿠나. 어머니 아직 안들어오셨니?

**향미**; 산에 먹이풀 뜯으러 간댔어요.

**최혁**; 그래?!

**향미**; 나 어머니 오나 마중갈래요. (노래부르며 짱충짱충 뛰어나간다.)

**최혁**; 이 사람이 오늘 후방사업을 맡겠다고 하구선?!...(우유통을 보자) 옳지, 염소젖을 준비해 놓았구나. 그러면 그릴테지.

△ 염소울음소리 들리자 최혁 뒤울안으로 들어간다.

△ 이때 분대장과 마을녀인 1, 2 음식함지를 들고 나온다.

녀인 1, 2; 분대장, 이걸 받으라구.

**분대장**; 아니 이런걸 뭘 다?!

**녀인 1**; 우리 가족소대의 성의야.

**녀인 2**; 오늘 관정훈련에서 본패를 보이려구요.

**분대장**; 고맙습니다. (나간다.)

△ 녀인 1, 2 금숙이네 집마당으로 들어선다.

**녀인 1, 2**; 향미 아버지가 계시누만요.

**최혁**; 아주머니들이 어떻게?

**녀인 2**; 향미 어머니가 염소젖을 부대에 갖다주라는 분공을 주길래 왔어요.

**최혁**; 그렇소?!

**녀인 1**; 향미 어머니 없어요?

**최혁**; 아직 안왔습시다.(안으로 들어간다.)

**녀인 2**; 향미 어머니 훈련때 다친 영남전사를 또 찾아간 모양이지?

**녀인 1**; 그런가봐요.

**최혁**; (염소젖이 든 초롱을 가지고 나오며) 자, 염소젖입니다.

**녀인 1**; (뚜껑을 열고 말아보며) 야, 향기롭다. 정말 향미 어머니 숨씨가 있어.

**녀인 2**; 도시에서 온 녀자가 다르지뭘.

**최혁**; (닭알이 담긴 소랭이를 들고나오며) 여기 알도 있습니다.

**녀인 1**; (받으며) 원 이런. 엇그제도 받아갔는데 또 이렇게 모아놓았구만요.

**녀인 2**; 래일 향미생일이라는데 좀 남겨두자요.

**최혁**; 아니, 그러지 마오. 우리 집사람이 알면 큰일 납니다.

**녀인 1**; 집에선 대대장이 향미 어머니한테 꼼짝 못하는가 보군요. 호호호...

**최혁**; 할수 있습니까. 《후방참모》인데... 하하하.  
**녀인 2**; 하긴 그렇지요. 호호호  
**최혁**; (우유통을 받들어주며) 이거 아주머니들이 《병사들을 위한 날》마다 우리 병사들에게 특식을 마련해주느라 정말 수고합니다.  
**녀인 1**; 우리야 뭘요.  
**녀인 2**; 아무려면 가족소대장인 향미 어머니의 수고에 비기겠어요 뭐.  
**녀인 1**; 그럼 수고하세요.  
△ 녀인들 우유통과 알을 들고 나간다.  
**최혁**; (혼사소리로) 이거 가족소대아주머니들의 성의를 봐서라도 오늘 판정훈련을 잘해야겠는데...  
△ 이윽고 영남 들어온다.  
**영남**; 대대장동지. 전사 박영남 만날수 있습니까?  
**최혁**; 영남동문 왜 병실에서 몸조릴 하라는데 나다녀?  
**영남**; 오늘 판정훈련에 꼭 참가시켜주십시오.  
**최혁**; 그런 몸상태로는 안돼.  
영남 체가 상했을 때 대대장동지 아주머니가 수혈까지 해주구 또 어제밤에는 토끼곰이랑 해주어서 이젠 다 회복되었습니다.  
**최혁**; 뭐라구?!  
**영남**; 정말입니다. 훈련동작 한번 해보랍니까? 약-(격술동작 몇가지를 해보인다.)  
**최혁**; 됐어. 됐어. 이거 이마에 식은땀 보라구. (손수건을 꺼내 닦아준다.)  
**영남**; 대대장동지, 일없습니다.  
**최혁**; 내 눈은 못속여, 어서 가서 쉬라구.  
**영남**; 저...  
**최혁**; 차렷, 뒤로 돌앗!.  
△ 이때 돼지울음소리 들린다.  
**최혁**; 자 이런, 저놈들이 또 보채는군.(쓰물통을 들고 돼지우리쪽으로 들어간다.)  
△ 영남 맥물린 걸음으로 나가다가 집쪽으로 다가가는데 풀단을 진 금숙 힘겹게 들어오다가 다리상처 동통으로 신음한다.  
**영남**; (그 소리에 돌아보며) 아니 향미 어머니, 어디 다치지 않았습니까?  
**금숙**; 아니 영남이로구만 일없어.  
**영남**; 아주머니, (달려가 풀단을 내려준다.)  
**금숙**; 난 여기 온걸 모르구 오던 길에 초소에 들렸댔지. 그래 몸은 좀 어때요?  
**영남**; 이젠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두 대대장동진...  
**금숙**; 어디 좀 보자요.(이마를 짚어보며) 아직 몸에 열이 있군요. 가만, (풀단에서 가랑이에 싼걸 주며) 이걸 들라구. 배나 수박같은게 있으면 좋겠는데 산딸기야.  
**영남**; 아니 이걸 어디서요?  
**금숙**; 영남동무가 자꾸 시원한것만 찾는다길래 염

소플하러 갔다가 좀 따왔어요.  
**영남**; 아니?!  
**금숙**; 그리구 이 산꿀두 들라구. 그래야 밥맛이 돌지. 그래서 오늘 판정훈련에 꼭 참가해야지. 식전에 먹으라구.  
**영남**; 누님...(그의 품에 와락 안겨 흐느낀다.)  
△ 최혁 나오다가 그 광경을 뜨겁게 바라본다.  
**금숙**; 내 또 염소새끼곰을 해가지구 찾아갈게 어서 가봐요.  
**영남**; (뜨거운것을 삼키며 나간다.)  
**최혁**; 여보.  
**금숙**; 아니 당신이 들어와계셨군요.  
**최혁**; 영남이가 꽤 참가해낼가?  
**금숙**; 하지 않구요.  
**최혁**; 이거 정말 당신 성의가 보통이 아니구만.  
**금숙**; 아이참,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군관안해들이 최고사령부의 작식대원이나 같다고 하하지 않았나요. (풀단을 가린다.)  
**금숙**; 향민 유치원에서 안왔어요?  
**최혁**; 엄마오나 마중나갔는데 못봤소?  
**금숙**; 초소에 들렀다 오다보니 못만났군요.  
**최혁**; 래일이 향미 생일인데 뭘 좀 해줘야지.  
**금숙**; 아무렴요. 그러지 않아두 어머니 편지마다 늘 그 소린데 ...  
**최혁**; 당신 어머니말이 났으니 말이지 처제결혼식에도 안왔다구 얼마나들 섭섭해 하겠소.  
**금숙**; 금옥인 나더러 잔치때 꼭 와서 자기 둘리리를 서달라구 했는데 참.  
**최혁**; 아니 잔치상도 받아보지 못한 당신더러 둘리리를 서달라?! 하하하.  
**금숙**; 그러게 말이에요.  
**최혁**; 당신 잔치상도 못받은채 여기 와서 고생만 시켜서 안됐소.  
**금숙**; 당신두 참. 우린 병사들에게 차례지는 푸짐한 식탁을 잔치상으로 여기면서 살자고 하질 않았어요. 더구나 선군시대에 병사들을 위하는게 무슨 고생이겠어요. 참 오늘 새벽에도 방송을 듣자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전연부대를 또다시 시찰하셨다더군요.  
**최혁**; 그렇소... 처제결혼식도 결혼식이지만 당신 어머니 생일때도 훈련이 제기되어 못간게 마음에 걸리누만.  
**금숙**; 어머니 리해하실거예요.  
**최혁**; 여보, 우리 이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리 부대에 모시구 기쁨을 드린 다음 기회를 봐서 집에 함께 가보자구.  
**금숙**; 그럴 날이 있을가요?  
**최혁**; 있지 않구. 그때 마전해수욕장에 가서 쏘트 두 타구 함흥대극장에도 함께 가서 혁명가극도 구경하구 신흥관에 가서 당신이 좋아하는 농마

국수도 뒤그릇씩 제껴본잔 말ियो. 좋지? 왜 말이 없소?

△ 금숙 피곤에 지쳐 저도몰래 쪽잠이 든다.

△ 음악이 흐른다.

**최혁**; (돌아보고) 아니?! (금숙이가 벗어놓은 작업복을 덮어주려다가 주머니에서 떨어지는 수첩을 펼쳐들고 읽어본다.) 《병사들을 위한 수첩》?

이달에 생일상을 차려줄 병사 세명, 병사들의 식성, 최덕수병사 네발가진 고기는 못먹음, 김명철병사 간유필요함, 리민경병사 떡류보다 국수를 좋아함... (뜨거움에 잠겨) 원 사람두 이런것까지... (수첩을 작업복에 조심히 넣고 금숙이의 어깨에 걸쳐준다.)

△ 이때 분대장 급히 들어온다.

**분대장**; 대대장동지.

**최혁**; 무슨 일ियो? (한열으로 데리고 간다.)

**분대장**; 관정시간이 앞당겨졌습니다.

**금숙**; (그 소리에 깨어나며) 잠깐만. (급히 집안으로 달려간다.)

**분대장**; 상급참모부에서 관정성원들이 내려온다구려단장동지가 급히 오랍니다.(나간다.)

**최혁**; 뭐요?! 알겠소.

**금숙**; (붉은 기폭을 안고 나오며) 이걸 오늘 훈련때...

**최혁**; 이걸 뭐요? (기폭을 펼쳐본다) 결사옹위! 아니 이걸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당신 첫날옷감으로 만든게 아니요?

**금숙**; 그래요. 어서 가보세요. 저두 토끼곰을 해가지고 뒤따라 가겠어요.

**최혁**; 알겠소. 오늘 훈련때 큰 힘이 될거요.(달려나간다.)

△ 금숙 집안으로 들어가는데 향미 달려나온다.

**향미**; 어머니 함흥에서 외할머니랑 이모랑 와요.

**금숙**; 뭐라구, 어디?

**향미**; 저기.

△ 이윽고 려행가방과 트렁크를 든 금옥과 그 뒤로 순정 들어온다.

**금옥**; 언니.

**금숙**; 금옥아, 이게 얼마만이나? (뜨겁게 포옹한다.)

**순정**; 향미 에미야.

**금숙**; 어머니.

**순정**; 그동안 앓지 않았니?

**금숙**; 앓긴요. 그런데 어떻게 온다는 소식도 없이 갑자기 오셨어요?

**순정**; 래일 향미생일이지. 또 널 먼 곳에 보내놓구 한번두 와보지 못했는데 겸사겸사해서 왔다.

**금숙**; 먼길에 힘들었겠어요.

**금옥**; 기차에서 내려 걸기 시작했는데 이쪽으로 오

는 자동차를 세워주어 그걸 타구 왔어요.

**금숙**; 그래?!

**순정**; 점잖게 생긴 군관어른에게 향미 아버지이름을 대면서 찾아간다고 했더니 자기네 대대장이라고 하면서 태워주길래 힘들지 않게 왔지.

**금숙**; 려단장동진가 보군요. 자 어서 들어가자요.

△ 짐을 들고 집쪽으로 걸어가는데 갖가지 집짐승들의 울음소리 요란하게 들려온다.

**순정**; 아니 원, 이거 꼭 목장에 온것 같구나. 돼지, 염소, 토끼, 닭, 오리. 어마나, 제사니까지?

**금옥**; 저절 다 언니네가 기르는건가요?

**금숙**; 그럼, 어머니가 그때 우리네 잔치를 해주려던 걸로 몇마리 구해서 길렀는데 오늘은 저렇게 늘어났구나.

**순정**; 기차라... 저절 다 기르자니 얼마나 힘들겠니.

**금옥**; 언닌 집짐승 《록해공군총사령관》인 셈이군요. 호호호...

**금숙**; 아닌게아니라 그렇게 됐다. 호호호...

**금옥**; 아저씨 안계세요?

**금숙**; 오늘 훈련이 있어서 나갔어.

**순정**; 요즘 미국놈들이 또 기승을 부린다니 군관들이 집에 들어와 지낼 날이 별로 없겠구나.

**금숙**; 네, 우리 군관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병사들을 위한 날》 마다 특식을 마련하구 또 사격 훈련도 한답니다.

**순정**; 뭐 사격훈련까지?!

**금숙**; 전번 가족소대실탄사격에서 우리 가족소대가 《우》를 맞았는걸요.

**순정**; 원 저런...

**금옥**; 어마나, 애기어머니들이 그렇게 잘 쏜단 말이에요?

**금숙**; 그럼, 놈들이 덤벼들면 우리도 남편들과 함께 한전호에서 싸워야 하거든.

**향미**; 할머니, 우리 엄마 군관가족소대 소대장이야요.

**순정**; 대단하구나. 이 애가 참 똑똑하더라. 네 어릴때 같구나.

**금숙**; 어머니두 참.

**금옥**; 어머니닌 그저 언니밖에 모른다니까.

**금숙**; 호호호, 참 네 결혼식에 못가서 미안하구나. 그러지 않아도 오늘두 네 아저씨와 그 소릴했다.

**금옥**; 언닌 뭐야. 우린 가족명단에서 언닐 제명해버렸어요. 호호호...

**금숙**; 넌 여전하구나. 참 네 남편이 무역선을 탄다지?

**금옥**; 그래요. 이걸 내 결혼식날 찍은 사진인데 언니한테 주자구 가져왔어요. (여러장의 사진을 꺼내보인다.)

**금숙**; (받아보며) 어디 보자. 네 남편이 잘났구나.



허여멀끔한게. (다음 사진을 보며) 어마나, 잔치상도 요란하게 차렸구나. 어찌면...

**향미**; 나도 좀 보지요.(사진을 보다가) 야 멋있다!

엄마, 우린 왜 이런 잔치사진이 없나?

**금숙**;?...

△ 음악이 흐른다.

**순정**; (얼른 나서며) 향미야. 우리가 네 생일날에 주려구 맛있는걸 가져왔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향미를 데리고 들어간다.)

**금옥**; 언니두 어서 들어가자요.(집안으로 들어간다.)

**금숙**; (사진을 한동안 보다가) 내가 무슨 생각을...

△ 이때 돼지와 염소울음소리가 엇갈려 울려온다.

**금숙**; 저것들은 어머니가 온줄도 모른다니까.(뜨물통과 먹이를 집짐승우리마다 넣어주며 돌아간다.) 너희들은 좀 더 기다려라. 내 인차 줄게. (풀단을 칼로 토막치기 시작한다.)

**금옥**; (다시 나오며) 어머니랑 오래간만에 왔는데 두 어찌면... 그새 돼지가 굶어죽겠어요. 어서 들어가자요.

△ 금숙이를 잡아끄는데 먹이풀이 땅에 흩어진다.

**향미의 목소리**; 이모, 어서 와요.

**금옥**; 오 들어간다. (집으로 앞서간다.)

**금숙**; (땅에 떨어진 먹이풀을 주섬주섬 집어들고 돼지와 염소에게 준다.)

**순정**; (나오며) 애에미야, 좀 쉬려무나.

**금숙**; 어머니, 미안해요.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순정**; 원 별소릴. (일손을 도와준다.)

**향미**; (수박을 들고나오며) 어머니, 이거.

**금숙**; 아니 이 수박은 어디서?

**향미**; 외할머니랑 내 생일날 먹으라구 가져왔대요.

**금숙**; 그래?!

**향미**; 어머니, 어서 쪼개줘.

**금숙**; (수박을 받아들고 생각에 잠기다가) 어머니, 이런 수박 더 없어요?

**순정**; 왜?

**금숙**; 좀 쓸데가 있어서요.

**향미**; 싫어. 그건 내거야.(응석을 부리며 운다.)

**금옥**; (나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언닌 너무해요, 너무해. (금숙이의 손에 든 수박을 빼앗아 향미에게 주며)엣다, 울지 말아. 언닌 어찌면...

△ 순정 향미를 데리고 들어간다.

**금옥**; 언니한테.할 말이 있어요. 나쁘게 생각지 마세요.

**금숙**; 어서 말하렴.

**금옥**; 물론 전 군인가족들의 생활을 모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결혼식은 못왔다 치더라도 어찌면 어머니 생일에조차 안올수가 있어요.

어머닌 언니의 잔치상도 못차려줬는데 생일상이 뭐냐고 만류했지만 저흰 상도 차려주구 언

니대신 술도 부어드렸어요. 그때 어머니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자식이라곤 언니와 나 둘뿐인데 아버지없이 우릴 키우신 어머니한테 어찌면 그렇게 무정할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니 심지어 어머니생일에 왔던 동네너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언니가 이붓딸이 아닌가구 묻더군요.

**금숙**; 뭐 이붓딸?!

△ 음악이 흐른다.

**금숙**; 할 말이 없구나. 이 언닐 용서해라.

**금옥**; 언닌 물론 아저씨도 너무 무정한것 같애요.

**금숙**; 이 언니에겐 아무말도 해도 좋지만 너의 아저씨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금옥**; 그래 언니와 아저씨가 잔치상도 받지 않고 여기 와서 술한 집짐승을 애써 기르구있지만 자기 가정이나 살림에 대해선 어찌면 그렇게 무관심해요. 집안에도 앓을 자리없이 온통 헛병아리와 오리새끼뿐이고 가산이라곤 나무꺾꽂밖에 없으니 말이에요. 이럴줄 알았으면 제가 올 때 뭘 좀 가져오는건데... 미안해요.

**금숙**; 네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우린 비록 가산은 없구 손에 총대밖에 잡은것이 없지만 조국을 지키구 너희들이 누리는 행복을 지켜준다는걸 알아야 해.

**금옥**; 언니...

**금숙**; 그래서 우리 장군님께서선 선군정치를 펴시는거구 군대를 제일 내세워주시는거야. 넌 언젠가 나더러 잔치상을 못받은걸 후회할 날이 있을거라구 했지만 난 병사들에게 차례지는 푸짐한 식탁을 나의 잔치상으로 여기며 오늘까지 살아왔다. 하기에 난 군관의 안해가 된걸 한번도 후회한적이 없다. (집안으로 들어간다.)

**순정**; (이미전에 나와 듣다가 금옥에게 다가서며) 금옥아, 언니가 한 말을 명심하거라. 예로부터 우리 녀인들은 자기 한가정의 안락보다도 나라의 운명을 먼저 생각해왔다. 그래서 지난 전쟁때에도 이 나라의 녀인들이 남편들과 함께 피흘리며 싸워 승리한걸 알아야 한다.

**금옥**; 어머니...

**순정**; (결상우에 앉으며) 나도 이제부턴 여기로 와서 언니네 일손을 도우며 살려나.

**금옥**; 어머니, 그것만은 안돼요. 어머니... (그앞에 꿇어앉아 흐느낀다.) 어머니만은 제가 모실래요.

**순정**; 이제까지 널 눈먼 사랑으로 키운 이 에미의 잘못이 크구나. 나라에서 군관가족살림에 필요한걸 마련해주는것마저 고스란히 병사들을 위해 바친 언니의 그 마음을 너는 왜 모르느냐

**금옥**; 예?!

△ 금숙 토끼곰단지를 안고 나온다.

**순정**; 부대에 나가느냐?

금숙; 오늘 판정훈련이 있어서... 정말 미안해요.  
 순정; 우리 걱정은 말구 어서 나가봐라.  
 금숙; 그럼... (걸어나가다가 발의 동통으로 신음한다.)  
 순정; 아니 너 왜 그러느냐?  
 금옥; 언니.  
 순정; (금숙이를 걸상에 끌어다 앉히며) 어디 좀 보자.  
 금숙; 괜찮아요.  
 순정; 글썄 어서 보자. (금숙이의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고 상처를 보자) 아니 왜 이렇게 됐느냐?  
 금옥; 어마나, 저런...  
 향미; (수박을 안고 나오다가) 엄마야.  
 금숙; 한 병사가 입맛을 잃었길래 산딸기랑 산딸을 구해주려다가 그만...  
 순정; 뭐라구?! 그래서 그 수박을?!...  
 향미; (그 모습을 보자 수박을 내밀며) 어머니, 그럼 이 수박을 군대아저씨에게 갖다드려요.  
 금숙; 향미야, 용타. (수박을 받아안고 뜨거움을 삼킨다.)  
 △ 음악이 흐른다.  
 향미; 엄마, 울지마. (어머니의 눈굽을 훔쳐준다.)  
 금숙; 향미야... (걸어나간다.)  
 순정; (집안에서 수박을 들고 나오며) 이것두 함께 갖다주거라.  
 금숙; 어머니, 그럼 갖다오겠어요. (나간다.)  
 순정; 오냐.  
 △ 모두 금숙이를 바래워주는 가운데 무대 어두워진다.

### 3 경

△ 때; 노을비낀 저녁  
 △ 곳; 군인사택마을  
 △ 무대; 느티나무가 서있는 휴식터. 그 너머로 풀판을 조성한 푸른 산언덕이 보인다.  
 △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는 가운데 무대 밝아지면 꽃다발을 든 가족소대원들 감격에 겨워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  
 △ 순정, 금옥, 향미 들어온다.  
 순정; 우리 장군님께서 방금 부대를 다녀가셨다면 서요?!  
 녀인들; 그래요. 어머니.  
 금옥; 그런데 우리 언니 왜 보이지 않아요?  
 녀인 1; 글썄 오늘 훈련을 끝내면 병사들한테 시원한 농마국수를 차려주겠다면서 농마를 구하러 농장마을에 갔어요.  
 녀인 2; 향미 어머니가 있었으면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뵈을수도 있었겠는데 얼마나 서운해할까요?  
 녀인들; 그러게 말이에요.

금옥; 언니두 참, 오늘같은 영광의 시각에 어쩌면  
 순정; 우리 장군님께서 것처럼 소문도 없이 찾아 오실 줄이야 언니들을 어떻게 알았겠니...  
 향미; 저기 우리 어머니가 와요.  
 △ 이윽고 목직한 배낭을 진 금숙 들어온다.  
 녀인들; 수고했어요.(배낭을 받아든다.)  
 녀인 1; 방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부대를 다녀가시었어요.  
 금숙; 아니, 이자 뭐라구 했어요?! 장군님께서요?!  
 녀인들; 그래요.  
 향미; 어머니 왜 이제야 왔나?  
 금숙; (말 없이 하늘가를 바라본다.-)  
 녀인 1;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영남전사의 훈련모습을 보시고 대단히 만족해하셨대요.  
 금숙; 영남전사료요?!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렸다면 됐군요. 야... (기쁨을 감추지 못한채 눈굽을 닦는다.)  
 △ 이때 앞가슴에 꽃송이를 단 영남전사와 분대장이 기쁨에 넘쳐 달려나온다.  
 영남; 가족소대아주머니들!  
 금숙;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기쁨을 드렸대지요.  
 녀인들; 《꽃다발을 안겨주며》 축하해요!  
 영남; 대대장동지 아주머니랑 가족소대아주머니들이 저를 친혈육처럼 돌봐주었기때문입니다. (어깨를 들먹인다.)  
 △ 이때 승용차뎛는 소리 들린다.  
 분대장; 저기 러단장동지와 대대장동지가 옵니다.  
 △ 이윽고 러단장과 함께 최핵대대장 나온다.  
 △ 모두 그들에게 인사한다.  
 러단장; (순정을 보자) 아니 어머니도 나오셨군요.  
 순정; 러단장어른... (인사한다.)  
 러단장;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병사들의 훈련모습을 보신데 이어 식당에 들리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동무들이 마련한 특식을 헤아려보시고 이곳 군관가족들이 《병사들을 위한 날》 운영을 아주 특색있게 잘한다고, 최고사령부의 작식대원들답다고 높이 치하해주시었습니다.  
 △ 모두 격정에 넘쳐 박수를 친다.  
 러단장; 그리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대대장동무를 만나주시었습니다.  
 순정; 아니 향미 아버지를?!...  
 금숙; 향미 아버지...  
 최핵; 어머니, 여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난 《고난의 행군》 때 우리들이 일생에 단 한번밖에 없는 뜻깊은 잔치상도 스스로 받지 않고 그대신 수많은 갖가지 집짐승들을 길러 병사들에게 바쳤다는것을 아시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하시면서 가정을 이룬지 6년 세월

이 흐르고 어린 딸이 어느덧 유치원에 다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잔치상을 차려주자고, 옛날 풍습대로 어린 딸의 상도 함께 차려주자고 하시었습니다.

**모두;** 아니 장군님께서 잔치상을요?!

**금숙, 순정;** 향미야... (향미를 불안고 흐느낀다.)

**려단장;**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가족소대장인 금숙동무가 병사들에게 차례지는 식탁을 자기의 잔치상으로 여기면서 모든것을 병사들을 위해 바쳐왔다니 이 얼마나 훌륭한 소행인가고 이 동무야말로 오늘 선군시대의 영웅이라고 하시면서 이번에 잔치상을 받을 때 앞가슴에 축복의 꽃송이와 함께 금별로 빛나는 영웅메달을 달고 상을 받도록 해주자고 뜨거운 은정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순정;** 아니 영웅칭호까지요?!

**금옥;** 언니.

**금숙;** (감격에 넘쳐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장군님, 군관의 안해라면 누구나 할 응당한 일을 한 저에게 이처럼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십니까. 장군님,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흐느낀다.)

△ 마을녀인들이 금숙이를 안아 일으켜준다.

**금숙;**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더 잘 받들어나가겠습니다.

△ 모두 위대한 장군님께서 떠나가신 곳을 향하여 정중히 인사를 올릴 때 방창이 열린다.

아 어버이장군님 품속에서  
사랑의 새 전설 꽃피어나네

△ 붉은 해살이 찬란히 퍼지면서 막이 내린다.

## 탄은 무엇을 속삭이는가

박 상 민

막장 한끝  
하늘의 별들이 내린듯  
끝없이 반짝이는 탄빛!  
안전등불빛을 받아 더욱 유난쿠나

굴진 천메터  
분기에 돌파하고  
새 채탄밭앞에 서니  
제대군인 굴진공의 마음속에  
탄은 무엇을 속삭이는가

탄을 두고  
울고 웃으며 사는  
탄광마을사람들의 끈은 마음이  
탄밭을 찾아 백날을 달려온 이 순간  
막장에 뿌리내린 가슴속에 젖어온다

거리에 전차들이 경쾌히 달리는 소리  
따스한 창가에서 구울러나오는  
아이들의 랑랑한 글썽는 소리  
수자조종반들이 깎아낸  
은빛제품들이 조립되는 소리  
이 막장에서 다 안고사는 탄부들

육체의 힘겨움과  
생활의 불편쫓은  
뒤에 남겨두고

쉬임없이 넓혀가는 막장길은  
내 조국이 가는 강성대국지름길은 아니던가

내 땀흐르는 더운 불에 탄을 부비며  
끓고 온 굴진갱도 뒤돌아보니  
심장의 무게우에 정히 없힌  
한덩이 탄이 속삭이는듯

탄에 스며있는것이  
어찌 후더운 땀뿐이라  
피도 바쳐야 하는 순간과  
탄부의 심장을 영원히  
애국열로 달궂주는 불이 끓고있다

내 땀 내 열정 스민 이 탄  
우리 장군님 만부하걸린  
발전소 현지도하시며  
나를 보시는듯 환히 웃으시면  
아, 나는 얼마나 행복할것인가

막장 한끝  
하늘의 별들이 내린듯  
끝없이 반짝이는 탄빛!  
내 삶의 래일을 축복하는가

어제날 참된 병사였듯이  
조국을 위해서만 사는

## 세계작가일화

# 작가의 권리와 공민의 의무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나라의 문화를 주체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좋은것은 허심하게 배울줄도 알아야 한다.》**

이전 쏘련시기 까자크소설가로 널리 알려진 엠솔로호브(1905~1984)는 력사적사실을 대하는데서 형상의 무기를 가진 작가의 권리보다 먼저 공민적인 의무에 충실한 진실한 인간이었다.

그의 장편소설 《고요한 돈》은 준엄하고 간고했던 사회주의혁명시기의 력사적사변들을 두리몽실한 《형상》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그려낸 것으로 하여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소설은 쏘베트정권이 수립되던 복잡하고 치열했던 나날들을 취급하면서 혁명정권과 혁명의 전취물이 어떤 비싼 대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고수되었는가 하는것을 생동하게 잘 보여주었다. 심각하고도 참예했던 이러한 계급투쟁장면들을 통해 사람들은 생활의 교훈적인 진리를 깨달았으며 새로운 기대속에 다음권들을 기다렸다.

그렇지만 모두가 처음부터 이 소설을 긍정하고 좋아한것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준엄했던 현실이라도 시기성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 지금의 시기성에 맞게 사실들을 원만하게 그려야 한다고 유하게 작가를 《충고》했는가 하면 격한 어조로 반혁명이 득세하는 장면이 많은데 사실은 어떻게든 작가의 《립장》이 모호하다고 공격해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현실화된 개소》라고 제멋대로 이곳저곳 삭제할것을 요구했으며 심지어 이 소설이 전혀 쓸모없는, 판매금지처분을 받아야 할 작품이라고 최고쏘베트에 고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의 비난의 본질은 바로 《쏘베트사상의 순결성》에 있었다. 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결국 후대들은 《순결한 쏘베트사상》에 깨끗하게 부합되는 《형상된 진실》만을 알게 될것이었다.

어느날 한 동료작가가 솔로호브를 찾아왔다.

《이보시오, 솔로호브선생, <고요한 돈> 때에 나오는 까자크들의 폭동장면은 지나치게 <현실>적이요, 그 장면을 좀 두리몽실하게 형상하는게 어떻겠소?》

《아니, 두리몽실하게라니?!》

《현실속의 사실이라구 다 형상의 대상이 될수야 없지 않소. 예술적진실이야 어디까지나 예술의 진실, 예술화된 진실이 아니겠소.

더우기 쏘베트를 반대해나섰던 일들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릴 필요가 있겠소? 반혁명을 두둔한다는 비난까지 들으면서 말어요.》

남달리 정의감이 강하고 격하기 잘하는 솔로호브 인지라 대뜸 흥분을 앞세우며 맞받아 뱉었다.

《반혁명이 뭐 어쨌다구? 예술적진실이 뭐 어떻다구? 정말 말 다했소?!》

성이 똑같이 올라 흥분을 건잡지 못해하는 솔로호브앞에서 동료작가는 두려워 이구석저구석 몸돌 곳을 찾지 못해했다.

한동안 지나 흥분을 저으기 가라 앉힌 솔로호브는 준절하게 말하였다.

《이보시오, 우린 글을 쓰는 작가 이기전에 력사와 후대들앞에 충실한, 아니 충실해야 할 의무를 지닌 공민이란 말어요, 공민!

우린 그것이 지어 경악스럽다고 해도 그런 가혹한 진실로써 쏘베트공민들과 후대들을 교양해야 하오.

당신네가 삭제하라고 하는것은 전체 내 소설의 4분의 3이나 되오. 그 저주맛을 비난의 대상이 말어요.

그것을 견디기가 무척 괴롭고 위태롭다고 해도 난 그 4분의 3만큼의 <위태로운> 공민의 모습에 대해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오. 반대로 너무 적지만 당신들이 극구 찬양하는 나머지 4분의 1만큼의 작가적모습은 내 잔재간에 불과한거란말어요.

이보시오 작가선생, 이 땅의 모든것은 력사속에 존재하는거요. 당신들이 말하는 쏘베트사상도 그렇소. 그것을 망각할 때 모든것은 자기의 존재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거요. 바로 이것을 똑똑히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는것이 작가로서, 쏘베트공민으로서 우리들의 의무요!》

이 일이 있은후에 고리끼를 비롯한 많은 작가들이 솔로호브를 옹호하여나섰으며 《고요한 돈》은 독자들속에서 더 큰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렇듯 솔로호브는 공민적의무에 충실한 작가였으며 그에 의하여 창조된 예술적형상들은 오늘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쏘베트시대의 훌륭한 군상으로 새겨져있다.

## 리근세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투철한 계급의식과 반제투쟁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사회주의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사설에서

### 평론

## 사랑과 증오에 높뛰는 시대의 맥박

-반제반미 계급교양주제의 단편소설들을 읽고-

### 리용일

올해 공동사설에서는 정치사상, 반제군사, 경제과학의 3대전선에서 강성대국의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혁명적공세를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특히 정치사상전선에서부터 혁명적공세를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계급적원칙,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군인들과 인민들속에서 계급교양, 혁명교양을 더욱 강화하는것을 추후도 양보할수 없는 당적요구로 강하게 내밀고있습니다.》

오늘의 정세와 현실은 우리 작가들로 하여금 지난 시기와 같이 투철한 계급의식과 반제투쟁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해나가는데 이바지하는 반제반미계급교양주제 작품들을 창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시대의 숨결을 안고 우리는 단편소설 《승냥이》(한설야작)를 다시금 음미해본다. 앞선 소설들의 긍정적경험을 살려 이 주제작품창작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이다.

수십년전에 창작된 한편의 반미주제 단편소설이 오늘 날 단행본으로 나오고 여러 신문, 잡지들에 게재되고 영화로 각색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어찌하여 단편소설 《승냥이》의 작중인물인 나 어린 수길이가 가지고 놀던 고무공이 오늘날 독자들의 가슴속에까지 굴러 와 증오와 복수의 불덩이로 솟구치는가?

그것은 외양간에서 얻은 낱아빠진 고무공을 가지고 놀았다고 하여 선교사의 아들 시몬놈이 연약한 수길이를 때리어 사경에 처하게 만든 사실, 선교사년놈이 저들의 죄행을 가리우려고 수길이의 시체를 빼앗아 불태우는 끔찍하고 몹서리치는 사실을 작품에 생활 그대로 형상한데 있다.

소설은 이 하나의 사건을 치밀한 극조직으로 발전시켜 미제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작품의 세계에 한걸음 더 들어가보면 소설이

그대로 독자들의 가슴속에 미제에 대한 증오의 불길을 지퍼주는 불씨로 되는것은 수길이가 어머니의 생활을 통해 미제의 본성을 낱알이 폭로하고있는데 있다.

여기에 반미계급교양주제의 단편소설창작에 긍정적시사를 주는 일련의 문제점들이 있다.

그의 생활세계에 대한 형상에서 주목하게 되는것은 무엇인가?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탐구하여 생활을 형상한것이다.

미제는 어떤놈들인가? 과연 놈들의 진면모는 어떤것인가?

이 물음에 사랑하는 아들을 살인귀들에게 잃고 시체조차 안아볼수 없게 된 주길이가 어머니의 생활이 대답하고있다.

승냥이, 미제의 본성을 밝히는데 이보다 더 어울리는 말이 있을듯싶지 않다.

《자선》, 《박애》, 《자유》를 부르짖는 미제의 진면모에 대한 신랄하고 예리한 평가, 정확한 표현이며 규정이다.

소설이 창작된 주체40(1951)년, 전쟁의 불을 지른 미제가 우리 나라에 대한 근 한세기의 침략력사를 가지고있지만 그때처럼 우리 인민앞에 침략성과 야수성, 교활성을 낱알이 드러낸적은 일찌기 없었다.

우리 인민들에게 미제의 침략적본성을 똑똑히 알려주어 투철한 대미, 대적관념을 가지게 하는것이 당시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현실적요구를 반영하여 소설에서는 미제의 본성, 그 정체에 대한 문제를 정면에 제기하고 수길이가 어머니의 체험세계를 통하여 날카롭게 해명하였다.

수길이가 어머니의 피의 절규가 오늘날 독자들의 귀가에 쟁쟁한 형상적요인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주제의 적극성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소설에서는 수길이가 어머니의 반미계급의식형성과정을 특색있게 그려내었다.

그것은 미국선교사에 대한 환상이 깨어져나가는 것으로 그런데 있다고만 단정하고 지나칠수 없는것

이다.

수길이는 어머니의 미제놈들에 대한 환상은 어찌보면 환상이라고 말할 여지도 없이 실낱같은 희망과 기대로 이어진 소박하고 보잘것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선교사의 힘을 빌어 수길이를 교회학교에 입학시켜볼까 하는 소원에 불과한 것이었다.

놈들에 대한 환상은 싹에 불과한 것이었어도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열렬했던만큼 집요하고 뿌리깊은 것이었다. 수길이가 매를 맞고 쓰러졌을 때조차도 선교사놈에게 항거할 용기를 선포 가지지 못하며 놈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아들을 악마의 소굴인 《교회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에 기대를 거는 어머니였다. 소설에서는 어머니의 성장과정을 뒤늦게야 놈들의 만행을 깨닫고 《하느님을 팔아 살인하는 백정놈들》이라고 절규하는 것으로 그리었다. 작품은 미국선교사에 대한 자그마한 환상으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이 빚어낸 엄청난 사실앞에서 변화 발전하는 어머니의 반미의식발전과정을 생활적으로 깊이 있게 형상화했다.

이는 예술영화 《최학신의 일가》에서 독실한 그리스도교목사인 최학신이나 승미반공분자인 최성근이와도 구별되는 이채로운 반미계급의식성장과정이다.

성장과정이 남다른만큼 그것이 주는 교훈이 또한 새롭고 심각하다. 미제놈들에 대한 사소한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 미제에 대한 한치의 양보나 자그마한 타협도 돌이킬 수 없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미제는 승냥이이다. 승냥이 미제와는 추호의 동요도 없이 무자비하고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수길이는 어머니의 성격장성과정이 톡톡히 보여주고 있다.

단편소설 《승냥이》의 창작경험은 원수들의 만행을 체험하는 긍정인물의 생활세계를 시대가 제기하는 절실한 문제를 적극 탐구하여 그려낼 때 그리고 계급의식 성장과정을 깊이 있고 특색있게 그려낼 때 작품이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자기의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반미계급교양주체의 단편소설창작에서 단편소설 《승냥이》의 창작성과를 살려 보다 새로운 사상예술적 높이로 나래쳐야 한다.

이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계급교양주체의 단편소설창작에서 긍정적주인공의 생활세계에 체현시킬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는 어떤 것인가?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계급적각성과정을 그리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단편소설 《승냥이》가 창작된 시기와 같은 첨예한 계급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심화될수록 우리의 사상과 위업을 반대하는 온갖 계급적원수들의 책동은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우리가 계급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오직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선군의 기치따라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

적공세를 벌려 나아가는데 있다는 것을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총대, 그것은 곧 계급의 총대이며 선군의 기치는 반미계급투쟁의 가장 위력한 무기로 된다.

선군정치를 받들어 나아갈 때에만 사회주의계급진지를 튼튼히 다질 수 있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수 있다.

계급교양주체의 단편소설창작에서는 응당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문제, 선군정치를 빛내여 가는데 적극 이바지될 수 있는 인간문제를 탐구하여 긍정적주인공의 사상정신세계를 형상하는데로 지향하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를 탐구하지 못한채 원수들의 만행을 기록하는데서 그친다면 소설은 선군시대 독자들의 계급교양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각도에서 최근 발표된 이 주체의 단편소설들을 살펴볼 때 다소 결함과 부족점은 있지만 긍정적인 형상시도들이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다.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소중히 여기게 된다.

단편소설 《평양의 눈보라》(전인광작, 《조선문학》 2000년 11호)에서 인상적인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와 관련된 사실에서 간첩선원들의 억류기간 생활을 파고들어 놈들의 너절한 정신도덕적면모를 생동하게 그려낸 것이다. 앞에서는 신사연하고 점잔을 피우지만 돌아앉아서는 추잡한 행위를 일삼고 그에 방해가 되는 부하를 없애기 위해 탈출음모를 쪽지편지로 밀고하는 대위 킨죽크, 어릴 때부터 형성된 인간중오사상으로 남을 타고 놀려야 한다면 동료들을 꺼리낌없이 구타하는 랭겔버그, 돈버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거기에서 쾌락을 찾는 사병 페질모로마... 미국놈들의 내부모순과 알락을 통해 도덕적면모의 부패성, 추악성을 까밝힌 것은 이 단편소설의 특징이다. 사실 지난 기간 《승냥이》를 비롯한 단편소설들에서는 흔히 적아간의 적대적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우리 인민에 대한 원수들의 포악하고 야수적인 살인만행을 보여주었다.

단편소설 《평양의 눈보라》의 이채로운 생활형상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나》의 생활세계를 통해 의의있는 문제를 탐구한 것이다. 《나》는 놈들의 생활을 말아보는 인민군군관이였다. 간첩선원들의 생활을 가까이할수록 더욱 커지는 《나》의 의문과 놀라움, 혐오와 경멸...

그것은 나라간 거리, 민족적생활관습, 지식수준의 차이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였다.

동물적본능을 추구하는 미국놈들과 《나》의 참된 삶에 대한 관점과 지향의 차이에서 생겨난 것이다.

《나》의 인생관은 어떤 것인가?

놈들의 더러운 생활에 침을 뱉고 밖으로 나온 《나》의 머리에 떠오른 생활 사실들을 놓고 말할 수 있다. 3년세월 하루같이 불구인 학생을 업어서 공부시킨 산골 학교 교원인 《나》의 애인, 그 마음을

소중히 여겨 결혼식을 미루며 3년이나 애인을 기다려온 《나》의 마음은 참으로 아름다운것이다. 락하훈련시 뜻밖의 사고로 위협에 처한 전우들을 희생적으로 구원한 병사를 《나》는 얼마나 감동깊게 추억하는가.

이는 사랑과 의리로 이어져 서로 돕고 이끄는 우리 사회,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된 우리 시대 인간들의 관계이고 생활인것이다. 《나》의 사상정신세계를 이루는 바탕이며 인생관을 보여주는 생활인것이다.

소설에서는 《나》의 체험세계를 놈들의 썩어빠진 사상과 도덕을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대하도록 사색의 세계를 승화시키고있다.

소설에서는 우리 시대 인간의 사상정신적놀이에서 놈들의 정신도덕적면모의 부패성, 반동성을 까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놈들의 썩어빠진 사상문화를 부식시키려는 놈들의 책동에 높은 혁명적각성을 가지고 짓부실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오늘 미제는 우리의 필승의 무기인 일심단결을 허물어보려고 어느때보다 악랄하게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에 열을 올리고있다.

현실은 군사중시와 함께 군인품성을 따라배워 우리의 계급진지, 사회주의사상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질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선군정치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평양의 눈보라》는 시대의 요구가 반영된 의의있는 문제를 내세워 독자들이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깊이 깨닫고 선군령도를 높이 받아들여가는데 이바지되게 형상하였다.

그러나 소설에서 긍정인물의 생활세계에 실린 문제를 보다 깊이있고 진실하게 해명할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 미간첩선원들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있는가 하는 흉악한 측면에는 낯을 돌리지 못하였다. 놈들의 더러운 리면생활을 보여주는데만 치우치고있다.

때문에 놈들의 생활을 보면서 하는 대조선침략의 본성에 대한 《나》의 사색이 다소 인위적인 감이 들며 심각하고 날카롭게 형상되지 못하였다.

오늘날 미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변함없는 침략야망을 품고 우리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고립압살하려고 미쳐날뛰면서도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를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간첩선원들의 성격과 생활을 그리면서 놈들과 《나》사이의 교감의 세계를 펼쳤더라면 작품이 제기한 문제는 보다 심각하고 날카로와졌을수도 있었다. 아쉬운 점은 있지만 단편소설 《평양의 눈보라》에서 미제원수들의 추악한 면모를 보여주는 생활을 취급하면서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의의있는 문제를 내세운것은 긍정적이고 귀중한것이다. 이 소설의 경우는 놈들의 만행을 보여주는 계급교양주제의 작품에서 보다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여 의의있는 문제가 비친 생활을 탐구할 때 훌륭한 형상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것은 단편소설 《군관신분증》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소설에서는 조선봉건왕조말기 조선군사의 아들인 철국이네 가정과 그들에게 대를 두고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는 왜놈군대 야스께와의 숙적관계를 통하여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일제의 침략야망과 악랄성을 까밝히고있다. 하여 그 생활을 통하여 군사중시, 총대중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선군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두 단편소설에서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계급교양주제의 단편소설을 창작하기 위하여 작품이 원수들의 만행을 까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긍정인물의 생활을 통해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내세우고 형상하고있다.

이는 옳은 탐구적자세이며 지향인것이다.

단편소설 《군관신분증》은 극히 짧은 생활속에서 한 두인물의 성격발전의 계기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것을 요구하는 단편소설의 형태적특성을 벗어나 한세기에 가까운 방대한 생활이 취급되고있으며 3대로 바뀌여지는 인물들이 차례로 설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활을 통해 독자들이 일제의 야수적만행을 인식하며 총대중시사상의 정당성을 감득하게 되는것은 하나의 《선》으로 한가정의 운명사를 깊이있게 파고들었다.

그 《선》이란 총대에 대한 관점과 태도이다.

총대가 약한것으로 하여 나라를 잃고 수치와 울분으로 땅을 치는 조선봉건왕조말기 조선군사였던 아버지, 왜놈들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며 총대에 대한 절절한 갈망으로 가슴 불태우다가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희망을 꽃피우는 아들 철국이,선대의 뜻을 이어 해군군관이 된 손자...

그들의 생활은 민족의 운명은 총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것, 총대우에 한가정의 행복도 민족의 장래도 있다는 철학세계를 강조하고있다.

소설에서는 3대로 바뀌여지는 인물들의 각이한 생활들을 이 진리를 신념으로 간직해가는 인물의 성장과정처럼 이어지게 그리었다. 이것이 과연 선군정치를 신념으로 받아들여가는 참다운 인간의 성장과정, 각성과정이 아니란 말인가.

물론 이 소설의 형상창조에서 심사숙고할 문제가 있다.

단편소설의 형태적특성의 요구를 벗어난 형상은 크게 장려할것은 못된다.

그러나 우리는 기성의 형식과 틀에 얽매여 우리시대인간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계급적성장과정을 보지못하고 그를 도식화, 류형화하는 편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계급교양주제 단편소설에서 시대의 절박한 문제를 탐구하고 주인공의 생활세계를 군인품성이 나래치는 계급적성장과정으로 깊이 있고 특색있게 형상할 때 지구상에서 온갖 원수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는 그날까지도 독자들의 심장속에 깊은 여운을 주는 새로운 단편소설 《승냥이》가 태어날것이다.

## 그네뛰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넌뛰거나 그네뛰기도 좋은 민속놀이입니다.》**

그네뛰기는 일정한 높이에 바줄을 매어 앓을개(발판)를 걸고 그 우에 올라서서 앞뒤로 굴러 높이 솟아오르기를 겨루는 녀성들의 민속놀이이다.

그네뛰기는 오랜 전통을 가진 민속놀이로서 지방에 따라 《그니》, 《구네》, 《근디》, 《건네》, 《홀기》라고 불렸으며 《추천》이라고도 하였다. 력사 문헌에는 고구려에서 봄명절에 그네뛰기를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흔히 그네뛰기라 하면 의례히 봄명절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 놀이가 봄명절을 장식하는 녀성들의 놀이였기때문이다.

심한 봉건적구속으로 집대문 밖에도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던 젊은 녀인들이 이날만은 너나없이 펼쳐나와 그네터에 모여들어 하루를 즐기였다.

봄명절의 그네뛰기에는 중년 녀인들도 한몫 끼웠다. 서북지방에서는 늙은 녀인들까지 앓은 그

네라도 한번씩 뛰여보는 풍습이 있었다. 어린 처녀들은 명절이 아닌 때에도 자주 그네뛰기를 하였다.

봄명절무렵이면 도시와 농촌 할것없이 이르는 곳마다에서 전망이 좋은 곳의 큰 나무가지 또는 두대의 긴 기둥나무를 세우고 꼭대기에 건너맨 가름대에 두개의 바줄을 벌려 매어 그네터를 설치하였다. 그네기둥을 따로 세우는 경우에는 흰색, 붉은색 천을 돌려감아 아롱다롱하게 장식하였다.

그네줄에는 앓을개 (발판)를 엮어서 두발이 편안히 놓이여 잘 구를수 있게 하였다. 또 부드러운 무명천으로 된 안전끈을 그네줄에 매어 두손목에 감아 그네줄을 잡게 하였다.

그네줄은 흔히 버짚이나 삼으로 동아줄을 드려서 만들었는데 길이는 대체로 9~10m 정도로 하였다.

그네뛰는 방법에는 혼자서 뛰는 외그네와 두사람이 함께 타고 마주서서 뛰는 쌍그네 또는 맞그네가 있었다.

그네뛰기경기방법에는 여러가

지가 있었다. 우선 그네를 적당한 높이의 나무가지에 매여 앞의 나무가지 또는 꽃가지를 목표로 정하고 그것을 발끝으로 차거나 입에 물게 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리고 그네 앞쪽에 방울줄을 높이 달아놓고 그것을 차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다. 또한 앓을개 밑에 눈금이 찍혀있는 줄을 매어 놓고 그네줄의 정지점에서부터 공중 몇자 올라갔는가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네뛰기는 예로부터 전국각지에서 다하였으나 특히 서북지방에서 성황을 이루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평양의 봄명절그네뛰기가 유명하였다.

그 유래가 오래고 우수한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의 그네뛰기는 녀성들의 몸단련에 좋고 경쾌하고 신바람나는 민속놀이이다.